

◆ KINU 연구총서 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 박영자

◆ KINU 연구총서 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 박영자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인 쇄 2014년 12월

발 행 201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900-4300 (직통) 02-901-2525 (팩시밀리) 02-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84)

ISBN 978-89-8479-771-0 93340

가 격 ₩7,500

©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02-734-6818 ·사무실: 02-394-0337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vii
I. 서론	1
II. 정치저항과 사회운동의 일반 이론	7
1. 1960년대 이래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의 출발	10
2. 자원동원 이론	15
3. 정치적 기회구조·정치과정론	22
4. 프레이밍 이론	30
5. 합리적 선택이론과 구조-인지 모델	38
6. 요약과 결론	46
III. 정치저항과 사회운동 이론으로 본 북한변화의 논리	51
1. 북한변화와 불변의 논리 구조	53
2. 집합행위론에 기반한 북한변화	62
3. 자원동원론에 기반한 북한변화	75
4. 정치적 기회구조론에 따른 북한변화	84
5. 프레임 이론에 따른 북한변화	106
IV. 이론의 적용: 정책 설계와 방향	123
1. 정책 목표 및 이론의 적용 시각	125
2. 정책 설계의 이론적 모델: 거시와 미시 연계	127
3. 정책 방향	139

V. 결론	149
참고문헌	15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69

표·그림 목 차

<표 III-1>	정치저항과 사회운동 이론으로 본 북한변화의 논리	54
<그림 II-1>	오프(Opp)의 구조-인지 모델	45
<그림 IV-1>	정치저항과 사회운동 이론이 다루는 연구범주 및 해결과제	128
<그림 IV-2>	정책 설계의 기본모델	134
<그림 IV-3>	기본모델의 통합적 진화	135
<그림 IV-4>	거시-미시 연계의 최종 모델: 구조-인지 모델	137

요 약

본 연구는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 관련 일반 이론을 발굴하고, 직간접적으로 각각의 이론들에 기반한 북한변화와 전망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나아가 이 이론들과 선행연구들의 성과 및 한계에 기초하여, 거시와 미시를 연결하는 총합적 정책 모델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정치저항과 사회운동의 일반 이론이다. 이 장에서는 1960년대 이래 서방에서 전개된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의 출발 배경, 집합행위론, 자원동원 이론, 정치적 기회구조·정치과정론, 프레임·프레이밍 이론, 합리적 선택이론과 구조-인지 모델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이론들의 북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Ⅲ장은 앞서 언급한 사회운동 이론의 통찰이 한국에서의 북한변화 연구에 묵시적으로 스며들어 있다는 것으로 밝힌다. 또한 사회운동 이론의 통찰이 어떻게 북한변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밝힌다.

제Ⅳ장은 앞서 살펴본 사회운동 이론과 기존 북한변화 연구에서의 다양한 통찰을 종합하여 북한변화 촉진과 남북 친화성 증대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북한변화, 남북 친화성, 정치저항과 사회운동 이론, 거시-미시 연계 모델

Abstract

Theories of Social Movements and Their Application to Analysis of North Korea's Political Change and Inter-Korean Rapprochement

Park, Hyeong-Jung and Park, Young-Ja

This study reviews the general theories related to political resistances and social movements and analyzes the preceding researches implicitly based on these theories to find ways to promote changes in North Korea as well as the inter-Korean rapprochement. Furthermore, this study designs a policy model and a direction for promoting changes.

The Chapter 2 investigates the theories having developed in the Western world since 1960s to apply them to North Korea; collective behavior, resource mobilization, political opportunity, frame, rational choice, and structure-cognitive models. The Chapter 3 demonstrates that the preceding researches on North Korea's change were implicitly based on the above theories introducing logics of changes/unchangeability in North Korea. The final chapter suggests a policy model to link between macro and micro approaches.

Keywords: Changes in North Korea, Inter-Korean Rapprochement, Theories of Political Resistances and Social Movements, Linkage Model between Macro and Micro Approaches



I. 서론

북한변화는 여러 가지 추동력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 추동력 중의 하나는 주민의 정치참여 또는 정치저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북한에서 정치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주민들의 정치참여 증가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이며, 여러 다른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뜻에서 현실적으로도, 분석적으로도 간단치 않은 과정이다.

정치참여의 증대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가 ‘임파워먼트(empowerment)’이다. 이 단어의 뜻에 상통하는 한국어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풀어서 번역한다면, 주민의 사회정치적 역량강화로서, 주민의 정치참여가 증대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형성에 주민의 발언권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 역량강화의 수준은 어떤 국가에서 정책과 제도가 주민의 이익에 얼마나 봉사하느냐의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정치참여 또는 정치저항의 발생과 전개에 대한 이론을 북한에서 주민의 사회정치적 역량강화(empowerment)와 관련하여 적용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 또는 주민의 역량강화가 북한에서 정책과 제도의 중장기적 공고화 및 개선에 핵심적 요소라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 사이의 친화성을 증대시키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학문적 접근은 다양하지만, 여기서 일차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서방 학계에서 전개되어온 사회운동의 발생과 전개에 관한 이론이다. 이 이론들은 서방에서 사회운동이 어떠한 조건에서 발생하고 유지되며, 그 추동력과 동학은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이와 관련한 이론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특히 서방에서 1960년대 이후 사회운동과 관련하여 전개되어 온 연구와 이론을 조망한다.

I

II

III

IV

V

특히 사회운동에 관한 여러 이론 중에서도 주류를 이루었던 다섯 가지 이론에 관심을 갖는다. 첫째, 1950~1960년대의 고전적 집합행위(collective behavior) 이론이다. 이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1960년대 이후 등장한 둘째, 자원동원 이론, 셋째, 정치적 기회구조 또는 정치과정론이다. 그리고 자원동원 이론과 정치적 기회구조 이론에 대한 반론과 보완으로 넷째, 1980년대부터 전개된 프레이밍 이론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1965년 올슨(Mancur Olson)의 집합행동 이론(collective action)¹⁾의 논리에 기원을 두고 있는, 합리적 선택이론과 거시-미시 연계 모델인 옵(Karl-Dieter Opp)의 ‘구조-인지 모델’이다.

1960년대에 들어 서방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회운동 이론이 새롭게 태동하기 전까지 정치변동 또는 사회운동 이론은 두 개의 핵심 명제를 기반으로 했다. 첫째, 불만 또는 결핍이 존재하는 곳에는 자동으로 저항이 발생한다. 둘째,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개의 명제는 마르크스(Karl Marx)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고전적 혁명이론 및 1950~1960년대까지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데 주축을 이루었다.

이 두 개의 명제는 오늘날까지도 일반인들의 상식 속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여 년간 북한에서 정치 변동의 당연성과 임박성에 대한 일부에서의 확신이었다. 다시 말해 지난 20년간의 북한처럼 결핍이 극심한 경우 사람들의 불만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저항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클 것이며, 이

¹⁾ ‘collective action’의 번역어로 여기서는 ‘집합행동’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이 용어에는 개인별 합리적 선택이 모인 결과로 집단(합) 행동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즉 집단은 내부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행위체가 아니라, 이기적 개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집단의 행동도 개인별 선택의 집합이 표출된 것이다.

것이 언젠간 또는 조만간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식의 기대·예측·확신이다. 이 기대에 묵시적으로 상정되고 있는 것은 그토록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극심한 결핍에 시달리고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아마도 북한사람들은 당연히 힘을 모아 현재의 정치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쫓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1960년대 이래 서방 사회운동 이론은 공통적으로 앞서 언급한 두 명제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방 사회운동 이론은 두 개의 핵심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첫째, 불만 또는 결핍이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가졌다고 해서 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직관적으로 볼 때, 이 두 개의 부정 명제가 적어도 지난 20여 년 북한의 현실과 관련해서 더 타당한 명제이다. 이러한 두 개의 명제에서 출발하게 되면, 정치저항 또는 사회운동의 발생과 전개를 설명하는 것이 과거 고전 명제에서처럼 단순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1960년대 이래 사회운동에 관한 다양한 이론은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어떠한 경우에 정치적 저항 또는 사회운동이 발생하고 전개되며, 어떠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는가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제Ⅱ장은 서방에서 전개되었던 정치저항과 사회운동의 일반 이론을 소개한다. 여기서는 1960년대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의 출발 배경, 자원동원 이론, 정치적 기회구조론 또는 정치과정론, 프레이밍 이론, 합리적 선택이론과 구조-인지 모델을 다룬다. 그리고 간략하게 북한 적용 가능성을 진단한다.

제Ⅲ장은 북한변화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앞서 소개한 일반 이론에 묵시적으로 기반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먼저 사회운동 관

I
II
III
IV
V

런 서구 일반 이론을 기준으로 기존 북한연구의 변화와 불변의 논리 구조를 소개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층위에서 북한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주요 선행연구들에 집합행위론, 자원동원론, 정치적 기회구조론, 프레임 이론이 스며들어 있음을 밝힌다.

제Ⅳ장은 앞서 소개한 일반 이론을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 친화성 증대와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연구문제에 따라, 정책구상의 모델을 설계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선행연구들과 관련 일반 이론들이 주는 시사점을 총합하여,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남북한의 친화성을 증대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 목표에 따라, 어떻게 정책 방안 또는 모델을 설계하고,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다룬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목표 및 이론의 적용 시각,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을 연계하는 정책설계의 이론적 모델을 규명한다. 그리고 정책 방향으로 미시로부터 거시를 연계하는 전략 및 거시로부터 미시를 연계하는 전략을 밝힌다.

이 연구는 총 2년 연구의 1년차 연구이다. 1년차 연구는 이론 차원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2년차 연구는 이 이론적 검토에 기반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과 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Ⅱ. 정치저항과 사회운동의 일반 이론

정치저항 및 사회운동과 관련한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는 다음의 표준적 개념 정의에 기반한다. 먼저 정치적 저항을 보자. 터너(Ralph H. Turner)는 저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저항 행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불만 및 잘못된 것과 부정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행동, 둘째, 저항 행위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상황을 직접 바꿀 수 없다. 셋째, 행동은 불만에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와 목적에 따른 것이다. 넷째, 행동은 대상 그룹이 완화조치를 취하도록 만드는 수단이다. 다섯째, 저항 행위자들은 동정심 및 공포가 뒤섞인 압력을 통해 대상 그룹이 자신들을 위해 행동하도록 만든다.²

옵(Karl-Dieter Opp)에 따르면, 저항은 네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저항이란 첫째, 사람들의 공동행동으로서, 둘째, 그 목적은 대상 그룹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셋째, 행위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상 그룹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넷째, 행위는 제도화되고 규칙 있는 행동이 아닌 비통상적 행동이 활용된다.³

이와 같은 저항 개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저항 행위 그 자체가 바라는 바를 성취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항의 목적은 대상이 되는 사람, 단체, 정부 또는 국가에 압력을 가하여 결정 또는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에 성공함으로써, 저항자가 원하는 행동을 그

2. Ralph H. Turner, "The Public Perception of Protes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No. 34 (1969), p. 816.

3. Karl-Dieter Opp, *Theories of Political Protest and Social Movement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Critique, and Synthesis* (Abingdon, UK and New York: Routledge, 2009), p. 37.

I
II
III
IV
V

대상이 취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달성된다.

다음으로 사회운동의 개념 정의를 보자. 이 또한 다양한 개념 정의가 시도되어 왔다. 옅은 여러 개념 정의에서 나타나는 사회운동의 공통 요소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사회운동이란 첫째, 공식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둘째, 사회적 변화를 성취하려 하며, 셋째, 추종자 외부에 운동대상이 존재하며, 넷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합행동을 조직한다.

오늘날의 주류 사회운동 이론은 1960년대 이후 등장한다. 1950~1960년대 풍미하던 고전적 집합행위론에 대한 반론이 발생하면서부터이다. 이 반론들은 1960년대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1970년대 이후부터 2010년대 현재까지 자원동원 이론, 정치적 기회구조론(정치과정론), 프레임 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등으로 전개된다.

1. 1960년대 이래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의 출발

가. 사회운동에 대한 고전적 명제와 그에 대한 부정

1960년대 이래 전개되기 시작했던 사회운동 이론은 두 개의 고전적 명제에 대한 반론을 출발점으로 했다. 첫째 명제는 불만과 결핍이 존재하면 자동으로 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둘째 명제는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첫째 명제는 1950~1960년대 서방 사회이론에서 이른바 집합행위(collective behavior)론의 핵심 명제 중의 하나였다. 1960년대 이래 자원동원 이론과 정치기회구조론은 이와 같은 집합행위론에 대한 반론을 출발점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이러한 반론을 전개함에 있어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던 것은 1965년 출판된 올슨

(Mancur Olson)의 『집합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였다. 올슨의 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견지에서 집합행동을 설명하는 출발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운동 연구에 대해 일련의 논쟁점과 연구과제를 제기하여 후속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나. 1950~1960년대 집합행위론

1950~1960년대에 사회운동에 관한 주류 연구 경향은 집합행위(collective behavior)론이라 총괄될 수 있다. 이 조류에는 콘하우저(William Kornhauser)의 대중사회론,⁴ 스멜서(Neil J. Smelser)의 집합행동론,⁵ 거(Ted R. Gurr)의 상대적 결핍론,⁶ 데이비스(James C. Davis)의 혁명이론⁷ 등이 있다. 상이한 논리전개에도 불구하고 이 조류는 일련의 명제를 공유했다.

첫째, 이 조류는 보통 행위자 집단의 결핍, 좌절, 불만의 수준 그리고 운동 행위의 증가와 감소 사이에 밀접한 연계가 존재한다고 상정했다. 불만 또는 결핍이 저항 또는 정치적 참여의 등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는 불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저항 경향이 높아지며, 사회 내에 불만이 높을수록, 저항이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이 조류는 사회심리학적 그리고 감정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동원을 설명했다. 집합행위와 사회운동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구조적 긴장이 발생시키는 파괴적 사회-심리학적 효과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

4. William Kornhauser, *The Politics of Mass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59).

5. Neil J. Smelser,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New York: Free Press, 1963).

6. Ted R. Gurr, *Why Men Reb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7. James C. Davis,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7 (1962), pp. 5~19.

주되었다.

예를 들어 대중사회 이론가들은 사회적 고립이 소외와 근심을 발생 시키며, '이러한 긴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극단적 행위에 참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의 숫자를 증가시킨다고 인식한다. 다른 집단행위 이론가들은 사회운동이 상대적 결핍, 인지상의 불협화, 규범적 모호성, 새로운 규범의 등장에 대한 인식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사회운동을 보게 되면, 셋째, 사회운동은 병든 사회의 징후이자 표현으로 간주된다. 즉 건강한 사회에는 사회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운동은 사회적 긴장 발생이라는 비정상적 조건에 대한 비합리적(비이성적) 대응이 된다. 이러한 관점은 저항이나 사회운동을 사회 내에서 고립되고 원자화된 개인들이 병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정치에 개입하는 현상으로 간주했다.

1960년대 서방 사회에 등장한 다양한 사회운동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새로 전개되었던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는 1950~1960년대 집합행위론의 약점을 드러내 주었다. 그리하여 앞서 언급했던 집합행위론의 세 가지 명제는 이후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전개한 다른 사회운동 이론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후 사회운동 이론들은 앞선 세 개의 명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 명제를 제기했다.

첫째, 불만 증가와 집합행위 증가 사이에 경험적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사회 어디에서나 불만이 존재하지만, 어떤 경우는 불만이 표출되고 어떤 경우는 표출되지 않는다. 둘째, 운동은 비정상적 사회에 존재하는 소외 때문에, 또는 비정상적 심리 성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이성적 개인들이 정당하게 참가하는 정상적이고 조직된 행동이다.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고립되어 있

지 않다. 셋째, 사회운동 동원에 관한 새로운 모델은 심리학적 감정적 요소 대신에 집합행동의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비용과 손실의 계산, 자원의 통제, 전략적 기획, 변화하는 정치 배경과 같은 조직적·구조적 요소를 강조했다.

다. 올슨의 ‘집합행동의 논리’

올슨은 1965년 『집합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를 출간하여, 그간의 사회운동에 대한 통념에 도전했다. 올슨 이전의 사회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익집단)은 그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상정했다. 반면 올슨은 어느 한 집단 내에 공동이익, 실행가능성이 높은 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집합재(collective good) 또는 공공재(public good)의 성격 때문이다. 집합재 또는 공공재란 한 그룹 내 한 구성원이 누리게 되면 다른 구성원도 누리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재화이다. 이러한 집합재를 제공하는 행동이 집합행동이다.

그런데 해당 그룹의 구성원은 이러한 집합행동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일단 집합재가 공급되면 그 소비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구성원은 집합재를 만들어 내는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시 말해 무임승차하되 그 집합재의 소비에는 대개 동등하게 참여하고자 한다. 개별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는 합리적 계산이다. 그러나 모든 개별 구성원이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면 집합재는 공급되지 않는다. 이 유혹은 그룹이 커질수록 더 커진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그룹이 크면 어느 한 사람의 기여가 그 성과에 가

I

II

III

IV

V

시적 차이를 만들어낼 개연성이 줄어든다. 즉, 내가 행동하든 안하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팽배한다. 둘째, 그룹이 크면 기여했을 때의 이득이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분배되어야 한다. 이를 사례로 설명하면 이렇다. 올슨에 따르면,

경제체제에서 합리적 개인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지출을 삭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자신이 노력해도 가시적 효과가 없을 것이며, 둘째, 다른 사람의 기여로 해서 가격 안정이 발생하면 그 이득을 어찌되었든 함께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합리적 개인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⁸

이 논리에 따르면, 공공재 또는 집합재 공급을 위한 집합행동이란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또는 집합재 공급을 위한 집합행동엔 개별구성원의 기여가 존재한다. 올슨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별 구성원이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선별적 인센티브(selective incentives)’ 때문이라 했다. 여기서 ‘선별적 인센티브’란 개인별 기여에 따라 추가적 이득을 제공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를 우회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집합행동을 통해 임금 상승이라는 공공재를 만들어 내고 그 이득을 무임승차한 비조합원과도 공유한다. 여기까지는 집합행동에 참여자나 비참여자나 그 결과로서의 공공재의 혜택을 공히 누린다. 그러나 집합행동에 참여한 노동원은 이에 추가로 ‘선별적 인센티브’를 받는다. 즉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에게만 연금, 의료, 불만해소 절차에서 이득을

⁸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 166.

준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 독재체제에 대한 저항을 들어보자.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인권은 공공재로서 일단 실현되면, 과거 독재체제에 대한 저항 행위에 참여하여 높은 부담을 감내했든지 그러지 아니하였든지에 상관 없이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독재체제 타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물질적 사후 보상이 주어진다든가, 커리어에 특혜가 주어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것이 ‘선별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올슨의 이러한 논리는 사회운동 연구에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첫째, 개인이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인 충동에 기반한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효용과 비용의 계산에 기초한 합리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둘째, 올슨의 논리는 “집합행동 발생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집합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답하고자 하는 연구의 문을 열었다.”⁹

2. 자원동원 이론

자원동원 이론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운동과 정치적 저항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이다. 이 이론은 1960년대에 등장했고 현재에도 광범하게 적용되고 있다. 자원동원 이론은 자발적 결사가 존재하는 자유 사회에서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부분적 이론’¹⁰이라고 스스로를 한정

⁹ Pamela E. Oliver and Gerald Marwell, “Whatever Happened to Critical Mass Theory? A Retrospective and Assessment,” *Sociological Theory*, Vol. 19, No. 3 (October 2001), p. 294.

¹⁰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하고 있다. 자원동원 이론의 핵심 주장은¹¹ 불만은 어디에서나 존재하지만, 그러한 불만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회운동을 통해 표출된다. 즉 불만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원동원 능력이 없는 불만은 사회운동으로 표출되지 못한다.

자원동원 이론은 1950~1960년대 구래의 집합행위론에 반론을 제기하는 한편 올슨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먼저 구래의 집합행위론에 대한 반론을 보자. 자원동원 이론은 구래의 집합행위론이 “행위자 집단의 좌절 또는 불만 그리고 운동 행동의 성장과 감소 사이에 밀접한 연계가 있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정했던 것”¹²과 사회운동 참가자의 “사회심리학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과오를 시정하는 것”¹³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리하여 자원동원 이론은 “결핍과 불만의 중심성을 매우 중시하는 명제로부터 이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명제로 바꿔 타는 것”¹⁴을 목표로 한다. 자원동원 이론에 따르면, “불만과 결핍은 사회운동을 발생시키는 데 하나의 요소이지만, 때때로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다. 또한 과거의 집합행위론이 사회운동 참여를 소외와 고립, 뿌리 뽑힘과 같은 비이성적이고 병리적 행동으로 보았던 것에 비해 자원동원 이론은 “사회운동 참여를 정상적 행위이며, 개인의 인생환경, 사회적지지, 당면한 생활 상황으로부터 기원하는 것”¹⁵으로

Movements: A Partial Theor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 6 (May 1977).

¹¹- Paris Aslanidis, “Critical Review of Social Movement Literature,” *www.academia.edu* (2012), p. 6.

¹²-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p. 1213.

¹³- *Ibid.*

¹⁴- *Ibid.*, p. 1215.

보았다.

다음으로 올슨이 제기한 문제를 수용한 것을 보자. 올슨은 집합재를 획득하는 작업에서 ‘스스로’ 부담을 지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는데, 자원동원 이론은 사회운동도 그러한 집합재를 조달하는 집합행동의 하나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사회운동이라는 집합행동을 설명하자면 “집합행동을 초래하는 인센티브의 선택, 비용절감 메커니즘 또는 구조, 출세상의 이득에 세세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¹⁶이다.

과거 집합행동론에 대한 반론, 올슨의 집합재 이론의 수용이라는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자원동원 이론은 운동에 대해 “기업가적-조직중심의 접근을 하면서 과거 연구에서는 거의 탐구되지 않았던 일련의 새로운 주제, 명제와 가설을 산출했다.”¹⁷ 과거 집합행위론은 결핍과 불만의 존재 자체가 사회운동을 야기한다고 간주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 연구에서 결핍과 불만을 핵심적으로 중시했다. 그러나 자원동원 이론은 결핍과 불만이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운동이 꼭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원동원 이론은 결핍과 불만 그 자체 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운동으로 동원되는가 하는 동원 과정을 중시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원동원 이론의 주요 관심은 “이러한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분석적 도구를 찾는 것”¹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원동원 이론

¹⁵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The Enduring Vitality of the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Social Movements,” Jonathan H. Turner (ed.), *Handbook of Sociological Theory*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2002), p. 535.

¹⁶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p. 1216.

¹⁷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The Enduring Vitality of the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Social Movements,” p. 533.



은 “불만의 존재를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만의 표출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조건을 강조한다”¹⁹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원동원 이론은 사회운동 현상의 사회적 지지와 제약, 동원되어야 하는 자원의 다양성, 사회운동의 다른 집단에 대한 연계, 운동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외부 지원의 역할, 당국이 운동을 통제하거나 통합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²⁰

자원동원 이론은 운동의 발생과 유지에서 자원, 조직, 정치기업가 (political entrepreneur)의 역할을 강조한다. 먼저 자원의 중요성이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가를 보자. 사회운동의 행동을 이해하자면, 그 사회 운동이 통제하는 자원(돈과 노동)의 집성 꾸러미(aggregation)를 연구해야 한다. 사회갈등에 참여하려면 자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집합 행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해야 사회운동이 발생한다. 운동의 동원수준이나 참여분량은 결핍 또는 불만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동원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즉 운동에 “참여하자면 시간, 에너지, 그리고 돈을 지출해야 하는데, 자원을 가지지 못한 주민들은 불만이나 또는 인식된 부정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²¹ 여기서 자원이란 개인적 행위자 또는 집단적 행위자가 통제할 수 있는 재화로서²² 지식, 돈, 대중매체, 노동, 연대성, 정당성,

¹⁸-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p. 1215.

¹⁹-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The Trend of Social Movements in America: Professionaliz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Corporation, 1973), p. 1.

²⁰-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p. 1213.

²¹-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The Enduring Vitality of the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Social Movements,” p. 535.

²²- Karl-Dieter Opp, *Theories of Political Protest and Social Movements: A*

대내외 권력 엘리트의 지지 등을 포괄한다.

다음으로 자원동원 이론은 운동조직과 정치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회운동 기업가와 저항 조직은 집합적 불만을 사회운동으로 변형시켜주는 촉매제이다. 사회운동에서 조직은 사회운동의 등뼈 역할을 하면서 자원을 통제하고 활용한다. 사회운동조직은 가용할 자원을 통제해야 등장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운동 기업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들은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비용과 이득을 계산하며, 수요충족과 재화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전술을 택한다. 이러한 논점에 서게 되면, 운동의 발생과 전개에서 핵심적인 것은 불만 그 자체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행위체의 유무가 된다. 실제로 자원동원 이론 이후에는 불만이 존재하면 자동적으로 저항이 존재한다는 식의 시각은 등장하지 않게 된다.²³ 다시 말해 사회운동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 결핍과 불만이라는 요소는 자원과 조직이라는 더 큰 비중을 갖는 요소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부차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 밖에도 자원동원 이론은 운동의 성패에서 외부의 지원 및 동맹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먼저 자원동원 이론은 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것은 외부의 개인과 조직이 해당 운동에 관여하는가의 여부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한다.²⁴ 즉 외부의 지원과 동맹 획득 여부가 사회운동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 요소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원동원 이론은 단순히 운동과 당국 사이 양자 간의 관계 및 갈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방관자 공중 사이를 매개하는 미디어의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Critique, and Synthesis, p. 139.

²³- Paris Aslanidis, "Critical Review of Social Movement Literature," p. 7.

²⁴-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The Enduring Vitality of the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Social Movements," p. 535.

역할에도 주목했다. 즉 “운동과 당국은 방관자 공중과 관련 엘리트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보다 큰 차원의 경쟁에 사로잡혀 있다”²⁵는 것이다.

자원동원 이론은 사회운동과 관련하여 일련의 새로운 개념을 제기했다. 이 중 일부는 현재에도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운동(Social Movement: SM)은 “주민 속에 존재하는 일련의 견해와 믿음으로서, 이것들은 사회구조 그리고/또는 사회의 보수구조(reward structure)에서 일부 요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선호를 대표한다”²⁶고 개념 정의된다. 이에 대해 저항운동(protest movement)은 “주민 속에서 사회운동에 반대하는 일련의 의견과 믿음”이라고 설정된다.²⁷ 이러한 사회운동에 대한 개념 정의는 독특한 것이며, 다른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이라 개념화되어 있는 내용이 자원동원 이론에서는 사회운동조직(Social Movement Organization: SMO)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사회운동조직이란, “복합적이고 또는 공식적인 조직으로서, 이 조직은 사회운동 또는 저항운동의 선호에 자신의 목표를 일치시키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시도한다.”²⁸ 사회운동산업(Social Movement Industry: SMI)은 “한 사회운동의 가장 광범한 선호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모든 사회운동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²⁹ 여기서 산업이라 함은 통상적 의미와 유사하게 일련의 유사한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

²⁵- *Ibid.*, p. 535.

²⁶-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pp. 1217~1218.

²⁷- *Ibid.*, p. 1218.

²⁸- *Ibid.*

²⁹- *Ibid.*, p. 1219.

다. 예를 들어 경제에는 철강 산업이라는 분류가 있고, 이 개념은 관련 된 여러 종류의 기업을 포괄한다. 사회운동에는 예를 들어 ‘여성해방산업’이라는 분류를 설정할 수 있고, 여기에 낙태 찬성 조직 등 여권신장과 관련한 모든 운동조직을 포괄할 수 있다. 보다 포괄적인 개념은 사회운동부문(Social Movement Sector: SMS)인데, 이는 모든 사회운동산업을 통틀어 지칭한다.”³⁰

이외에도 자원동원 이론은 사회운동 또는 사회운동조직에 대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기초하여 개인 또는 그룹의 유형을 구분한다. “추종자(adherent)”는 운동의 목표를 수용하는 개인 또는 그룹이다. “구성원(constituents)”은 사회운동조직에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 또는 그룹을 지칭한다. “방관자 대중(bystander publics)”은 사회운동과 사회운동조직에 추종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으면서 사회운동의 활동을 단순히 보고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이다. “잠재적 이득자(potential beneficiaries)”는 사회운동목표 성취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다.³¹ “양심적 추종자(conscience adherents)”는 사회운동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회운동조직의 목표가 달성되어도 직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없는 개인 또는 그룹을 지칭한다.³² “양심적 구성원(conscience constituents)”은 사회운동조직의 목표가 달성되어도 그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없지만 사회운동조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과 그룹을 지칭한다.³³

³⁰- *Ibid.*, p. 1220.

³¹- *Ibid.*, p. 1221.

³²- *Ibid.*, p. 1222.

³³- *Ibid.*

I
II
III
IV
V

3. 정치적 기회구조·정치과정론

자원동원 이론이 1970년대 주류를 이루었다면, 정치적 기회론(정치 기회구조론 또는 정치과정론)은 미국에서 1980년대 초 사회운동 연구의 한 조류로 등장했다. 이 조류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회운동 연구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기회론의 핵심은 단순히 불만이 존재한다고 해서 또는 단순히 충분한 자원이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운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불만의 강약, 또는 자원의 강약과 비교할 때 사회운동 발생에서 정치적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운동에 있어 정치적 기회는 ‘열리기도’ 하며 ‘닫히기도’ 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기회론은 1950~1960년대의 집합행위론과 1960년대 이래의 자원동원 이론에 대한 비판과 반론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적 기회론은 사회운동 발생과 전개에 배경이 되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주요한 관심을 기울인다. 정치적 기회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이론적 변모를 겪고 있다. 정치적 기회론은 애초에 정치기회구조론으로 출발하면서 ‘구조’를 강조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치게 구조를 중시한 나머지 비구조적 요인 즉, 전략이나 행위적 요소, 문화 등과 같은 비구조적 요소들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과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리하여 비구조적 요소를 고려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정치기회’론 또는 ‘정치과정’론으로 바꾸었다.³⁴ 그렇지만 ‘정치기회구조’이든, ‘정치기회’이든, ‘정치과정’이든, 이론에서 핵심 개념은 정치기회이다.

³⁴ Jeff Goodwin and James M. Jasper, “Caught in a Winding, Snarling Vine: The Structural Bias of Political Process Theory,” *Sociological Forum*, Vol. 14, No. 1 (March 1999), p. 29.

정치과정 이론은 애초의 핵심 개념인 정치적 기회에 비구조적 요소를 포함한 “동원구조”와 문화를 포괄하는 “프레이밍”을 통합하여 이루어진 이론체계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치적 기회구조’ 또는 ‘정치적 기회’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정치적 기회구조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아이젠거(Peter K. Eisinger)의 연구였다. 그는 1960년대 미국의 여러 도시를 놓고 볼 때, 어떤 도시에서는 폭동이 빈번하고 어떤 도시에서는 빈번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왜 그러했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정치적 기회구조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 그는 미국의 각 도시마다 정치체제가 다르며, 그 차이 때문에 도시마다 폭동 빈도가 달라진다는 것에 주목했다. 해당 도시의 정치체제가 주민의 불만 제기를 공적 제도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기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폭동이 빈번했다. 다시 말해 각 도시의 정치체제 성격(폐쇄 또는 개방)에 따라 ‘정치적 기회구조’가 달라지고, 이에 맞추어 운동 전략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즉 아이젠거는 “정치가 전개하는 맥락으로서의 정치적 환경”이 사회운동에 주는 효과를 연구했다. 그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행정부 수장의 성격, 시의회 의원 선거의 양식, 사회적 기술과 지위의 분포, 사회적 붕괴의 수준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민들이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해하기도 또는 촉진하기도 한다. 정부가 시민의 문제제기에 얼마나 호응하는가, 해당 지자체의 자원 수준이 얼마인가와 같은 여타 환경적 요소도 시민의 정치 활동이 성공할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간략히 말하면, 환경에서의 요소들이 정치행위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거나 또는 통로를 열어준다. 정치체제에서

I

II

III

IV

V

개인과 그룹이 행위하는 방식은 그들이 단순히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함수가 아니라 정치체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방통로, 취약점, 장애물과 자원의 함수이다. 즉, 환경과 정치행동 사이에 상호 작용 또는 연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를 정치적 기회구조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³⁵

이 용어를 보다 발전시킨 타로우(Sidney Tarrow)에 따르면 정치적 기회구조는 “정치환경에서 항시적이고 고정적인 어떤 측면을 지칭한다. (이 측면이 반드시 공식적이거나 영속적일 필요는 없다.) 이 측면이 어떠한가에 따라 집합행동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은 집합행동에 나설지 여부와 관련한 인센티브로서 기능한다.”³⁶

정치적 기회의 유무를 파악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횡적 비교에 의한 정치적 기회 유무의 파악이다. 이는 어떤 특정 시기에 존재하는 사회운동과 관련된 정치적 환경을 비교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아이진거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 시점에서 미국에 있는 도시들의 정치체제를 비교하며, 그 차이에서 정치적 기회 구조의 차이, 그에 따른 사회운동 발생 양상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유사하게 키트셴트(Herbert Kitchelt)는 서유럽 주요 국가의 정치체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각 국가마다 사회운동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했다. 즉 한 측면에서, 해당 국가의 정치 체제가 사회적 불만 제기를 공적 통로를 통해 처리하는 데 개방적인가 폐쇄적인가, 다음으로 해당 국가의 정치체제가 불만해결책을 관철하는 데 능력이 있는가,

³⁵- Peter K. Eisinger, “The Conditions of Protest Behavior in American C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7 (March 1973), p. 11.

³⁶- Sidney Tarrow,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Collective Action an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85.

없는가이다.³⁷

이러한 횡적 비교와 대비되는 것이 종적 비교이다. 이는 어느 한 정치체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운동 발생의 기회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한다. 그 대표자는 맥아담(Doug McAdam)³⁸과 타로우이다. 타로우에 따르면 사회운동은 어떤 시점에서 정치적 기회가 “증가”한 결과로 등장한다. 그는 정치기회 명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주장은 정치기회가 등장하면 이에 호응하여 사람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집합행위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 사회운동 동원의 ‘시작점’은 그 사회운동에 정치기회가 열리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어떤 특정 시기에 정치적 기회가 열리면) 불만이 크지 않고 내부 자원이 별로 없는 그룹의 경우도 운동으로 대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불만이 크고 자원이 많은 그룹일지라도 (정치적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운동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³⁹

이러한 발상은 불만이 높다는 것과 자원이 많다는 것이 운동 동원을 발생시키는 데 충분하지도, 필수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사회운동 동원이 발생하는 데 필요하고 가히 충분한 조건은 정치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기회는 은유적으로 ‘열리고’ 그리고 ‘닫히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³⁷-Herbert Kitschelt,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Political Protest: Anti-Nuclear Movements in Four Democrac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5 (1986), pp. 57~85.

³⁸-Doug McAdam,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³⁹-Sidney Tarrow,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Collective Action and Politics*, p. 85.

정치적 기회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기회’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 수 있는가, 둘째, 기회가 어떻게 사회운동의 발발에 영향을 주는가이다. 정치기회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기회’라는 것이 연구자마다 그리고 연구 대상마다 달리 개념 정의되며, 결국에 사회운동이 당면한 외적 환경의 모든 요소를 거론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⁴⁰ 여러 개념 정의 중에서도 맥아담은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라는 정치기회의 구성요소 목록”⁴¹을 제시했다. 이는 네 가지이다.⁴² ① 제도화된 정치 체제에서 상대적 개방 또는 폐쇄, ② 정치체를 기본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엘리트 상호 관계의 안정성 또는 불안정성, ③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엘리트 동맹의 존재 또는 부재, ④ 국가의 억압 능력과 억압 성향이 그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타로우도 네 가지를 거론하고 있다.⁴³ ① 새로운 행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접근 경로의 개방, ② 정치체 내부에서 정치적 동맹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 ③ 영향력 있는 엘리트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 ④ 엘리트 내부에 등장하고 있는 균열 등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맥아담이나 타로우의 이러한 목록은 ‘광범한 동의’를 받고 있지 못하다. 연구자마다, 사례마다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거나, 또는 위의 목록들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⁴⁰- Jeff Goodwin and James M. Jasper, “Caught in a Winding, Snarling Vine: The Structural Bias of Political Process Theory,” p. 32.

⁴¹- Doug McAdam, “Conceptual Origins, Current Problems, Future Directions,”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16.

⁴²- *Ibid.*, p. 27.

⁴³- Sidney Tarrow,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Collective Action and Politics*, pp. 164~167.

기회 분석가들은 무엇을 정치적 기회라고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정치적 기회’ 개념은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운동이 동원되거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거의 모든 것에 명명되어질 수 있다.”⁴⁴

정치과정 모델은 이상에서 서술한 협소한 의미의 정치기회 명제가 당면하던 일련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제시되었다. 정치과정 모델은 정치기회라는 요소에 사회적/조직적 요소들과 문화적 요소들을 첨가했다. 정치과정 모델은 궁극적으로 사회운동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불만을 성공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기회의 팽창을 포착할 때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과정론은 맥아담에 의해 1982년 처음으로 제시되었다.⁴⁵ 맥아담의 분석에 따르면, 세 가지 요소가 미국 민권운동의 흥성과 몰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첫째, 정치적 기회, 둘째, 애초 존재하는 조직의 역량, 셋째, 인지적 해방이다. 여기서 정치기회는 “정치 기득구조를 구조지우고 있는 계산과 가정을 허무는 데 기여하는 모든 사건 또는 사회적 과정 전반”⁴⁶으로부터 초래된다. 정치기회의 개념 정의는 광범하다. 이 개념은 예를 들어 전쟁, 공업화, 국제정치상의 변화, 장기 실업 그리고 광범한 인구학적 변화도 포함한다. 정치적 기회는 도전하는 그룹과 대상 사이의 권력 불평등을 바꾸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⁴⁴- Jeff Goodwin and James M. Jasper, “Caught in a Winding, Snarling Vine: The Structural Bias of Political Process Theory,” p. 36.

⁴⁵- Doug McAdam,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⁴⁶- *Ibid.*, p. 41.

다음으로 동원을 고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애초 존재하는 조직이 얼마나 강력한가의 수준이다. 여기서 애초 존재하는 조직이란, 투쟁의 열기 속에서 형성된 조직이 아니라 불만을 가진 공동체 내에 기존하고 있던 잠재적인 정치적 조직들을 칭한다. 이 조직들은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지도자, 의사소통 네트워크, 개인들 간의 연계를 조달하여 저항집단을 형성시킨다.

맥아담의 정치과정 모델에서 셋째 요소는 잠재적 사회운동 참여자 사이에 인지상의 혁명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들은 현재의 정치체제가 정당성이 없으며, 사회운동에 참여하면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에만 운동에 참여한다. 이러한 인지상의 혁명은 그룹 과정의 결과이며, 정치구조로부터 그리고 지역 조직을 통해 직접적으로 일어난다.

정치과정론은 기존의 기본논리를 변경시키지 않았지만, 새로운 버전으로 진화했다. 애초에 맥아담은 위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정치기회, 애초에 존재하는 조직역량, 인지상의 혁명이라는 세 요소를 정치과정의 핵심요인으로 간주했었다. 나중에 새로워진 버전에서는 애초의 조직역량 대신에 ‘동원구조’, 인지상의 혁명 대신에 ‘문화적 프레이밍’이 등장했다. 타로우는 동원구조 대신에 ‘네트워크와 조직’ 그리고 문화적 프레이밍 대신에 ‘문화적 가공물과 프레임’을 거론한다.⁴⁷ 두 이론의 개념 설정은 많은 부분에서 서로 겹친다. 새로운 버전을 제시하면서 맥아담, 맥카시(John D. McCarthy), 잘드(Mayer N. Zald)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⁴⁷ Sidney Tarrow,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8), p. 121.

대부분의 정치 운동과 혁명은 현존하는 정치질서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변화 또는 현존 정치질서가 도전을 수용하게 만들어 주는 사회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이것이 ‘정치기회’이다. 그런데 ‘정치기회’는 행동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필요 전제일 뿐이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조직이 존재해야 그러한 기회가 활용될 수 있다. 조직이 없다면 기회는 활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기회의 구조적 요건과 능력 있는 조직 사이를 중재하는 것은 새로 등장하는 운동의 추종자가 공유하고 있는 새로운 의미와 개념 정의 또는 프레임이다.⁴⁸

이러한 논리에는 사회운동을 발생시키는 세 가지 요소가 재차 거론되어 있다. 먼저 정치기회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정치기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운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잠재적 반란자들은 이러한 정치기회를 활용하여 운동을 출범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동원구조’이다. 여기에 집합행동을 통해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에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적 자세를 고무하는 적절한 문화적 프레이밍이 부가되어야 한다. 객관적 정치기회는 프레이밍을 통해 주관적으로 인지되며, 이러한 주관적 인지에 기반하여 조직동원이 이루어진다.

⁴⁸-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Introduction: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Framing Processes - Toward a Synthetic, Comparative Perspective on Social Movements,”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8.

4. 프레임링 이론

프레임링 이론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그 영향력이 현저히 증대했다. 이후 이 이론은 자원동원론 및 정치과정론과 더불어, 사회운동의 성격과 진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 논의로 자리 잡았다. 프레임링 이론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의 사회운동 연구들이 사회운동에 핵심적 과정인 의미작업(meaning work)을 등한시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서 의미작업이란, “동원하고 반대동원하는 이념과 의미의 생산을 둘러싼 투쟁”⁴⁹이다. 프레임링 이론가들이 보기에, “운동 행위자는 구성원, 적대자, 방관자 또는 관찰자를 상대로 의미의 생산·유지와 관련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의미생성 요원(signifying agents)”⁵⁰이다.

프레임링 접근은 불만이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발생하고 유포되는 방식에 초점을 두었다.⁵¹ 프레임링 이론가들은 자원동원 이론이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불만이 도처에 항시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만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는 해석의 문제를 회피했다고 비판한다.⁵² 다시 말해 자원동원 이론은 불만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그것이 사회운동조직의 목표와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는가의 문제를 망각하거나 당연시했다는 것이다.

프레임링 이론의 기틀을 세운 연구자는 데이비드 스노우(David A.

⁴⁹-Robert D. Benford and David A. Snow,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6 (2000), p. 613.

⁵⁰- *Ibid.*

⁵¹- *Ibid.*, p. 466.

⁵²-David A. Snow, E. Burke Rochford, Jr., Steven K. Worden, and Robert D. Benford,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1, No. 4. (August 1986), p. 465.

Snow)와 벤포드(Robert D. Benford), 그리고 그 협력자들이다. 특히 스노우와 벤포드는 사회운동 기업가(social movement entrepreneur)와 그 잠재 구성원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해 사회운동가가 잠재적 동원자를 프레임 작업을 통해 어떻게 동원시키고 관계를 맺는가에 대부분의 관심을 쏟았다. 이러한 문제 설정은 프레임 이론에 기초한 사회운동 연구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로 프레임 연구는 사회운동 기업가의 잠재적 동원자에 대한 프레임 관련 전략적 활동을 주로 연구하게 되었다.⁵³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임 이론의 관심은 사회운동과 아직 동원되지 않은 개인이라는 양자의 프레임을 일치시키면 집합행동의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먼저 프레임의 개념 정의를 보자. 프레임(frame)이란 용어는 원래 고프만(Erving Goffman)에 의해 제기된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프레임이란 “개인이 자신의 생애 공간과 바깥 세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위치지우고, 인식하며, 식별하고 이름 붙이는 해석 도식(schemata of interpretation)”이다.⁵⁴ 즉 프레임은 사건들이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을 통해 개인이든 집단이든 경험을 조직하고 행동을 인도한다. 존스톤(Hank Johnston)과 녹스(John A. Noakes)는 프레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장 간략하게 말하면, 프레임은 사진을 둘러싼 프레임과 똑 같다. 보이는 장면 중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것에 주의가 집중되고 무관계한 항목에게는 주의가 가지 않는다. 억압이 강력하고

⁵³ Hank Johnston and John A. Noakes (eds.), *Frames of Protest: Social Movements and the Framing Perspective* (Boston: Rowman and Littlefield, 2005), p. 2.

⁵⁴ Erving Goffman, *Frame Analysis*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p. 42, Hank Johnston and John A. Noakes (eds.), *Frames of Protest: Social Movements and the Framing Perspective*, p. 2에서 재인용.

또는 지도자의 전술이 행동의 기회를 명확하게 열어주어도, 개인들은 부정의가 발생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집합행동이 요구된다고 설득되어야 하며, 행동하는 동기를 가져야 사회운동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집합행동 프레임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주어야 할 뿐 아니라,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성공적인 프레임은 사건을 분석하고 누가 책임이 있는가를 분석해야 할 뿐 아니라 청중에게 사실처럼 들려야 한다. 다시 말해 청중과 공명해야(resonate) 한다.⁵⁵

프레이밍 이론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 집합행동 프레임(collective action frame)이다. 집합행동 프레임은 모든 사회운동의 중요한 일부이다. 벤포드와 스노우에 따르면,

집합행동 프레임은 “세상(world out there)”의 측면들을 단순화하고 응축함으로써 해석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단순히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추종자와 구성원을 동원하고, 방관자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며, 반대자를 동원해제 시키는 목적에 부합한 방식으로 해석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집합행동 프레임은 사회운동조직의 활동과 캠페인을 고무하고 정당화하는 일련의 행위 지향적 신념과 의미의 꾸러미이다.⁵⁶

갨슨(William Gamson)과 메이어(David S. Meyer)는 “집합행동 프레임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불변성을 부정하며, 그 상황이 집합행동의 일정 형태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집합행동 프레임은 사람들이 자기 역사의 잠재적 행위자라고 개념 정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⁵⁷ 즉 집합행동 프레임은 상황을 문제성 있는 것

⁵⁵- Hank Johnston and John A. Noakes (eds.), *Ibid.*, p. 2.

⁵⁶- Robert D. Benford and David A. Snow,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p. 614.

⁵⁷- William Gamson and David S. Meyer, “Framing Political Opportunity,” Doug

으로 개념 정의하지만, 사람들에게 조율된 행동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집합행동을 발생시키고자 한다. 벤포드와 스노우에 따르면, “집합행동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라 간주되는 일련의 상황, 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형성한다. 집합행동 프레임은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가운데, 운동 추종자들이 서로 협상하고 책임소재를 설정하고 대안적 협약을 만들어 내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구성된다.”⁵⁸

집합행동 프레임은 세 가지 핵심 프레임 업무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진단 프레임, 처방 프레임과 동기부여 프레임이다.⁵⁹ 진단 프레임(diagnostic framing)은 잠재적 참여자에게 이슈 또는 사건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다. 이는 마치 의학적 진단과 같은 것으로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말해준다. 처방 프레임(prognostic framing)은 진단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기한다. 동기부여 프레임은 사람들이 집합행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고자 시도한다. 동기부여 프레임(motivational framing)은 잠재 행위자에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형의 프레임은 사회운동에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동원이 핵심이지만 동원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기부여 단어 중의 일부로 엄중성, 긴박성, 효능성, 타당성이 식별되어 있다. 엄중성은 위협과 관련한 인식된 위협이 엄중함을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285.

⁵⁸-Robert D. Benford and David A. Snow,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p. 615.

⁵⁹- *Ibid.*

I
II
III
IV
V

지칭한다. 긴박성은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는 신속성을 지칭한다. 효능성은 문제를 다루는 데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의 문제이다. 타당성은 행동의무를 지칭한다.

위의 벤포드와 스노우가 사회운동 기업가가 잠재적 동원층을 동원하고자 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집합행동 프레임을 규정했다면, 갠슨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미를 협상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집합행동 프레임에 대한 대안적 목록을 제기한다. 이는 정체성, 행동성(agency), 부정의(injustice)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⁶⁰ 정체성 요소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를 가진 불만 그룹을 특정해낸다. 이 요소는 ‘우리’와 ‘그들’을 식별한다. 행동성 요소는 ‘우리’와 ‘그들’을 개념 정의하는 불만 상황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우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역사를 만드는 행위자가 되도록 고무한다. 부정의 요소는 불만의 책임이 ‘그들’을 구성하는 개인 또는 제도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우리’ 구성원들이 반응하도록 불붙인다.

사회운동이 내세우는 집합행동 프레임이 잠재적 참여자를 실제 참여로 이끌어 내자면, 사회운동 자체의 집합행동 프레임과 잠재적 참여자 개인의 프레임이 일치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의 핵심 개념은 프레임 일치(frame alignment)이다. 프레임 일치란 “개인의 해석 방향과 사회운동조직의 해석 방향이 다음과 같이 연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이익, 가치와 신념의 일련의 꾸러미가 사회운동조직의 활동, 목표와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며 상호보완적 방식으로 연계되는 것”이다.⁶¹ 벤포드와 스노우는 “프레임 일치는 그 성격이나 강도가 어

⁶⁰- William Gamson, *Talking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7.

⁶¹- David A. Snow, E. Burke Rochford, Steven K. Worden, and Robert D.

떠하든 운동 참여의 필요조건”이라고 간주하며, 프레임 일치는 전형적으로 상호 작용을 통해 성취된다고 한다.⁶²

사회운동과 잠재적 참여자 간의 프레임 일치에서 중요한 것은 공명이다. 집합행동 프레임은 잠재 참여자가 불만의 해석과 표현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면 공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공명이 강한 것은 프레임이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여겨지는 문화 상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스노우와 벤프드는 운동 기업가의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두고 프레임 공명의 핵심으로서 프레임의 다양한 성격과 운동 기업가의 다양한 행동을 식별했다. 이들은 프레임 공명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소를 식별했다.⁶³ 첫째, 프레임의 일관성이다. 공명하는 프레임은 그 내부 측면 간에 논리적 보완성이 존재한다. 전술, 진단, 처방, 핵심 가치와 믿음 등에서 그러하다. 둘째, 경험적 신뢰성이다. 운동의 프레임이 대상 청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서로 통하는가이다. 셋째, 경험과 일치성이다. 대상의 일상 경험과 프레임이 일치하는가 여부이다. 넷째, 중심성이다. 운동 프레임이 제기하는 핵심 가치와 믿음이 대상의 생활에 얼마나 핵심적인가이다. 다섯째, 이야기의 문화 충실성이다. 공명하는 프레임은 대상의 지배문화, 그 이야기, 신화와 기본 명제와 잘 얽히며 잘 활용하고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집합행동 프레임과 잠재적 참여자 사이의 프레임 일치와 공명을 만

Benford,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p. 464.

⁶² *Ibid.*, p. 467.

⁶³ David A. Snow and Robert D. Benford, “Master Frames and Cycles of Protest,” Aldon Morris and Carol M.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p. 133~155, Hank Johnston and John A. Noakes (eds.), *Frames of Protest: Social Movements and the Framing Perspective*, p. 12에서 재인용.

I
II
III
IV
V

들어 내는 과정에는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① 프레임 다리놓기 (frame bridging), ② 프레임 증폭(frame amplification), ③ 프레임 확장(frame extension), ④ 프레임 변형(frame transformation)이다.⁶⁴

프레임 다리놓기란 “관련성이 있지만 과거에는 연계되지 않았던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프레임을 연계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 생태학 = 생태학적 마르크스주의 프레임’ 또는 ‘페미니즘(feminism) + 생태학 = 생태학적 페미니즘 프레임’을 예로 들 수 있다.

프레임 증폭이란 “특정 문제, 또는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해석 프레임을 명료하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것”⁶⁵을 말한다. 이는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 핵심어를 만들어 내는 것과 유사하다. 프레임 증폭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가치 증폭과 신념 증폭이다. 가치 증폭은 “운동 참여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상정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집합행동을 아직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채로 잠복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식별해내고, 이상화시키며 고양하는 것을 지칭한다.”⁶⁶ 예를 들어 평화 운동은 핵 군비 경쟁, 국가안보,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헌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당한 발언권이라는 가치를 증폭했다. 신념 증폭은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을 인지적으로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이념적 요소인 신념”⁶⁷을 증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가는 착취자다’라는 명제에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스노우와 벤포드는 사회운동에 대한 문헌에 나타나는 동원과 참여

⁶⁴- David A. Snow, E. Burke Rochford, Steven K. Worden, and Robert D. Benford,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pp. 467~475.

⁶⁵- *Ibid.*, p. 469.

⁶⁶- *Ibid.*

⁶⁷- *Ibid.*

의 과정에 특히 중요한 신념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문제 또는 해당 불만의 심각성에 대한 신념, ② 인과관계 또는 책임소재의 위치에 대한 신념, ③ 적대대상 또는 영향 대상의 전형적 특징에 대한 신념, ④ 변화의 개연성 또는 집합행동의 효과에 대한 신념, ⑤ ‘펼기’해야 하는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신념이 그것이다.⁶⁸ 이러한 신념이 강할수록 동원효과는 커진다. 특히 행동을 하면 변화가 가능하고 따라서 행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 중요하다. 이러한 신념이 있어야 잠재적 참여자가 실제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회운동 기업가는 행동의 성공 가능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프레임 확장이란, 사회운동의 핵심 목표와 가치가 대상 청중에게는 생소할 때, 사회운동이 대상 청중이 소중하게 여기는 목표와 가치를 자신의 프레임 내로 끌어 들여 프레임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확장된 프레임은 주요 목표에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잠재적 추종자에게는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이익이나 관점을 포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⁶⁹ 예를 들어, “군축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을 군축 집회에 끌어들이기 위해 록큰롤 밴드를 초빙한다든가, 방위예산의 확대 때문에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문헌을 배포한다든가 하는 것”이다.⁷⁰

프레임 변형이란, 사회운동 프레임이 대상 청중의 프레임과 공명하지 않거나 상반될 때, 대상 청중의 ‘잘못된 프레임’을 재편하는 것이다. 기존하는 프레임의 관점에서 이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활동, 사건, 개인의 전기가 전혀 다른 프레임을 기축으로 하여 변형되어, 참가

⁶⁸- *Ibid.*

⁶⁹- *Ibid.*

⁷⁰- *Ibid.*

자들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과거의 것을 보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식 통속어로 ‘사상전향’에 해당한다.

5. 합리적 선택이론과 구조-인지 모델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한 정치적 저항 또는 사회운동 분석의 출발점은 올슨의 집합행동의 논리이다. 여기서는 옵(Karl-Dieter Opp)의 논리전개에 따라 이를 살펴본다.

옵은 먼저 저항, 사회운동과 같은 기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저항은 (저항의) 대상이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주어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합동(다시 말해 집합) 행동이라 정의된다.⁷¹ 저항그룹은 공유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또는 대상이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주어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의 집합이다.⁷² 다시 말해 저항하는 개인 또는 집단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다. 원하는 것은 저항의 결과로 저항 대상이 마음을 바꾸고 다른 결정을 내릴 때만 성취된다. 사회운동은 저항그룹의 한 유형이다.

올슨의 집합행동 이론은 어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언제 공동으로 행동하는가에 관한 이론이다. 이익을 공유하는 개인들은 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올슨 이론의 핵심 명제가 주장하는 바는 합리적이고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개인들은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동이익이 실현되면 탄생하는 재화는 특별한 재화로

⁷¹- Karl-Dieter Opp, *Theories of Political Protest and Social Movement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Critique, and Synthesis*, p. 38.

⁷²- *Ibid.*, p. 41.

서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그 재화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했든 하지 않았든 일단 생산되어 존재하면 모든 사람이 공히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재화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적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화 생산에 기여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 재화의 존재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누릴 수 있다. 개인들은 공동 또는 그룹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지만 그 혜택은 누리하고자 한다. 즉 무임승차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들은 자신의 참여가 눈에 띄는(noticeable) 효과를 내는가, 아닌가를 따진다. 자신의 참여가 눈에 띄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참여할 동기가 그만큼 작아진다. 그런데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 기여의 효과는 무의미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은 공공재 획득을 위해 행동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울슨에 따르면 무임승차를 극복하고 집합행동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선별적 인센티브(selective incentive)이다.⁷³ 합리적 개인들이 공공재 생산을 위해 굳이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참여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어떤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참여하도록 하는 어떤 강제 또는 징벌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여기서의 이득 또는 징벌이 선별적 인센티브이다. ‘선별적’이라 함은 그 혜택 또는 징벌이 일련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울슨의 기본 명제를 옅에 근거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 명제, 즉 그룹 규모 명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룹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공공재 공급의 개연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대규모 그룹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는 선별적 인센티브가 존재하

⁷³- *Ibid.*, p. 50

는 경우에 한정한다. 선별적 인센티브란 ... 기여하는 경우 이득이 발생하고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는 인센티브이다. 반대로 공공재의 이득은 그룹의 모두가 향유할 수 있다. 기여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규모가 큰 그룹이 집합재 공급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의 기여가 '거의 무시할 만한' 효과만이 있기 때문이다.⁷⁴

이러한 기본 논리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공공재의 공급은 매우 희귀하게만 발생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운동과 같은 여러 종류의 집합행동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낮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상식과 배치된다. 우리의 주위에는 다양한 형태와 효과의 집합행동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집합행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을 둔 사회운동 분석의 기본 문제제기가 된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해답으로서 옴은 무엇보다도 인센티브의 변화를 중심으로 저항과 사회운동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옴은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저항과 사회운동을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첫 단계는 개인 또는 사회운동 집단의 인센티브가 변화했는지의 여부이다. 저항을 설명하는 기본적 설명 요소는 항상 인센티브의 변화 여부이다. 저항의 발생이나 그 부재를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이 발생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인센티브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적 운동 또는 여타 조직과 같은 상이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룹이 존재하는가? 주민들 내부에서 인센티브의 분배는 어

⁷⁴ *Ibid.*, p. 89.

떠한가? 저항을 초래할 인센티브가 정확히 무엇인가? 유사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할 때 왜 어떤 경우에만 저항이 발생하는가? 변화하는 저항을 설명하자면 변화하는 인센티브를 관찰해야 한다.⁷⁵

둘째 단계는 인센티브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저항 행위의 사례에서 보면, 개인의 저항 인센티브는 어떤 명확한 사건과 함께 변화한다. 또는 다소 포착하기 힘든 사회적 변화가 저항 사건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구 변화, 도시화, 기후 변화 등이다. 선호, 가치 또는 규범의 일반적 변화가 저항에 기여할 수도 있다.

셋째 단계는 이러한 변화들이 집합 정치행동에 관한 개인의 인센티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식별하는 것이다.

옴은 올슨의 기본모델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사회운동과 관련된 저항 행위의 발생에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공공재 선호, 둘째, 인식된 개인의 영향력과 그룹효과, 셋째, 도덕적 인센티브, 넷째, 사회적 인센티브와 저항촉진 네트워크의 통합, 다섯째, 정체성, 여섯째, 상황적 인센티브, 일곱째, 기타 인센티브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상호의존적이다. 이를 차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재 선호를 보자. 불만 또는 불평은 다른 말로 하면 일정한 공공재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의사표현이다. 따라서 “불만의 분량은 해당 공공재 선호의 강도와 그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수준의 함수”⁷⁶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불만 중에서도 “행위자가 불만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믿을 수 있는 경우”⁷⁷가 사회운동과 저항을 분석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불만만이

⁷⁵- *Ibid.*

⁷⁶- *Ibid.*, p. 109.

저항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국의 새로운 결정에 의해 공공재가 공급될 수 있는 경우에, 저항이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국내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만 등은 그 저항 대상이 불분명하고 저항에 참여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을 촉발하는 불만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

둘째, 인식된 개인의 영향력과 그룹 효과이다. 옵에 따르면, 이 경우 실질적 영향력이 아니라 인식된 영향력이 중요하다. 올슨은 개인의 믿음과 현실이 부합한다고 생각했다. 올슨의 이론에서는 그룹의 규모가 크면, 개인의 영향력은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수많은 경험 연구는 대규모 그룹에서도 인식된 영향력은 무시할만하지 않으며, 영향력에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다.⁷⁸ 다시 말해, 대규모 그룹에서는 개인의 영향력이 평균적으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크다고 주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들이 행동에 나서며 이 행동 때문에 상황이 변한다는 것이다.

셋째, 도덕적 인센티브이다. 많은 활동가들은 저항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규범을 내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만이 높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저항해야 한다고 느낀다. 사람들은 억압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저항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⁷⁹

넷째, 사회적 인센티브와 저항 촉진 네트워크에 통합의 문제이다. 경험적으로 보면, 저항을 독려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있는가

⁷⁷- *Ibid.*

⁷⁸- *Ibid.*

⁷⁹- *Ibid.*, p. 110.

아닌가의 여부가 어떤 개인이 저항 행위에 참여하는가 아닌가 여부를 심대하게 결정짓는다. 저항의 ‘독려’가 뜻하는 것은 저항 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대체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체성의 문제이다. 옴은 정체성도 인센티브의 한 유형으로 파악한다. ‘정체성’과 관련한 일부 개념 정의를 분석해보면, 이 개념이 선별적 인센티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룹과의 ‘동일시’라는 개념 정의가 그러하다. 누군가가 한 그룹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이는 그가 이 그룹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그룹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이 그룹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경우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⁰

여섯째, 상황적 인센티브는 시위와 같은 저항 사건 과정에서 참여를 조장하는 새로운 인센티브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칭한다.

일곱째, 기타 비용 관련 인센티브는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지칭하는데, 참여할 때와 참여하지 않을 때 시간과 자원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이다.

옴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이러한 기본 관점에 입각하여 정치적 저항 또는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일반 모델로서 구조-인지 모델(structural cognitive model)을 제시한다. 구조-인지 모델이란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거시적 변화, 즉 구조적 차원의 변화, 예를 들어 정치기회의 증가는 그 자체로서 집합행동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 거시적 변화가 미시적 차원에서 저항과 관련한 개인의 인센티브를 변화시켜 개인들의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 때만 정치적 기회로서 의미가 있다. 개인들의 행동 증가는 집합행동의 규모와 강도의 증가로 나타난다.

⁸⁰ *Ibid.*

다시 말해 거시 차원의 구조적 변화는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들에 의해 인지되어 개인들을 움직이는 인센티브로 작용해야 의미가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구조 변화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들에 의해 인식되지 않으면 개인들의 인센티브에 변화가 생기지 않고, 따라서 집합행동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옴의 구조-인지 모델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자원동원 이론, 정치과정론, 그리고 프레이밍 이론을 종합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옴이 볼 때, 자원동원 이론과 정치과정론은 거시적·구조적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이 이론은 거시적 변화로부터 정치저항 또는 사회운동의 흥망을 직접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결합은 거시적 변화가 어떠한 매개 과정을 통해 정치저항 또는 사회운동의 흥망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소련의 변화'로 인해 '동독에서 시민 저항운동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할 때, 전자가 후자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단순히 전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후자를 발생시켰는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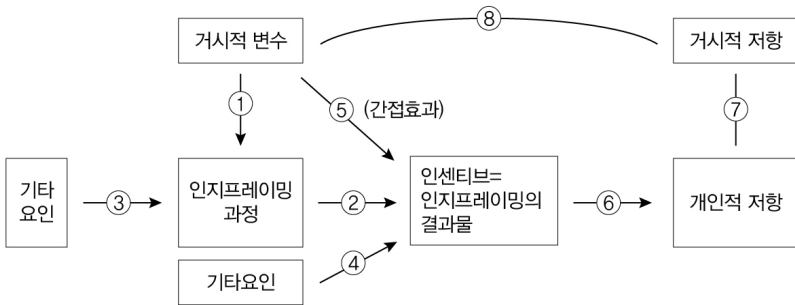
옴은 거시적 변화는 개인의 인센티브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집합행동 또는 사회운동의 흥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즉 거시적 변화가 원인이 되어 개인의 인센티브 변화라는 미시적 변화가 발생한다. 그 다음으로 개인 인센티브의 변화로 인해 개인의 행동이 변화한다는 추가적인 미시적 변화가 발생한다. 이처럼 개인별 행동이 변화하는데, 그러한 개인별 행동 변화의 총합으로서 거시적 차원에서 집합행동에 변화가 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거시 → 미시와 미시 → 거시가 함께 설명되고 있다. 자원동원 이론과 정치과정론은 거시적 변화를 포착하는 이론이다. 프레이밍 이론은 개인이 거시적 변화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센티브가 변화한다는 미시적 변화에 관한 이론이다. 옵의 구조-인지 모델은 자원동원 이론과 정치과정론의 거시적 설명과 프레이밍 이론의 미시적 설명을 통합한다. 구조-인지 모델에서 ‘구조’는 거시적 사회적 변수를 지칭하며, ‘인지’는 개인이 거시적 변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는가를 설명한다.⁸¹

옵의 구조-인지 모델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1 옵(Opp)의 구조-인지 모델⁸²



화살표 ①은 거시 변수의 변화가 개인의 인지적 프레이밍 과정을 통해 해석되는 것을 보여준다. 화살표 ③은 어떤 개인의 프레이밍은 거시 변화에 의해서 뿐 아니라, 예를 들어 친한 친구의 프레임과 같은 기타 요소로부터 영향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화살표 ②는 인지프레이밍 과정이 개인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화살표 ④는 개인의 인센티브는 (인지프레이밍 이외에도)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획득하는 정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

⁸¹- *Ibid.*, p. 330.

⁸²- *Ibid.*, p. 329.

- I
- II
- III
- IV
- V

낸다. 예를 들어 어떤 집회에 가면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정보를 획득하고, 원래 그 집회의 성격에 관계없이 참가하는 것이다.

화살표 ⑤는 거시 변화가 프레이밍 과정이 아닌 다른 변화를 통해 개인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어떤 거시적 변화로 인해 개인이 저항 행위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증가하면, 이것이 개인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화살표 ⑥은 인센티브가 개인의 저항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 선 ⑦은 (변화된) 개인 저항 행위의 총합이 거시적 저항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상관관계는 인과성이 아니다. 즉, 개인적 저항의 합이 거시적 저항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선 ⑧은 거시 변수와 거시 저항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6. 요약과 결론

1960년대 이후 서방에서의 정치저항과 사회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이 등장했다. 이 접근은 그간에 지배적이었던 두 개의 명제에 대한 반론으로부터 시작했다. 첫째, 불만이 존재하면 저항이 존재하고, 불만이 강하면 저항도 강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 사이에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그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개를 부정하면, 사회운동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집합행동이 언제, 왜,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된다.

그 첫 번째 대안적 시도는 자원동원 이론이었다. 자원동원 이론은 불만이란 도처에 널려있는데, 어떤 불만은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어

떤 불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주목했다. 자원동원 이론에 따르면 동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만의 고저가 아니다. 동원여부는 그룹이나 개인이 불만을 표출할 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 자원 중에서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운동조직이라 간주되었다. 따라서 자원동원 이론은 운동조직을 중시하고 그에 관심을 집중했다. 운동조직과 함께 조직과 자원을 통제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운동 기업가의 능력도 중시되었다.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정치적 기회구조론, 정치기회론, 정치과정론이었다. 이 세 가지 명칭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정치과정론이라는 이름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원래 정치기회(구조)론은 불만이나 자원이 있더라도, 정치적 기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정치적 저항이나 운동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지에서 출발했다. 정치기회론은 정치과정론으로 발전했는데, 여전히 정치기회의 유무를 중심으로 놓고, 여기에 조직역량(또는 동원구조)과 인지상의 혁명(또는 문화적 프레이밍)을 결합시켜 논리를 전개했다. 즉, 기회가 존재하더라도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조직역량 또는 동원구조가 존재해야 하며, 불만과 기회를 해석하여 집합행동의 근거와 당위성을 만들어내야 할 인지상의 혁명 또는 문화적 프레이밍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프레이밍 이론은 불만이 도처에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저항행동의 근거로 해석해내고 동원하는 의미작업이 없는 동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했다. 프레이밍 이론은 운동 기업가의 입장에서 잠재적 대중을 동원시키자면 의미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작업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운동이 존재하려면 집합행동 프레임이 존재해야 한다. 이 프레임을 상황을 문제성으로 개념 정의하고 사람의 행동에 의해 그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

I
II
III
IV
V

음을 심어줌으로써 집합행동을 발생시켜야 한다. 집합행동 프레임은 진단, 처방, 동원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사회운동의 프레임을 잠재적 참여자 개인의 프레이밍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일치가 이루어지려면 운동의 프레임과 개인의 프레임 사이에 공명이 있어야 한다. 이 공명을 이루는 방법으로 프레임 다리 놓기, 프레임 증폭, 프레임 확장, 프레임 변형이 존재한다.

구조-인지 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초로 앞서 거론한 자원동원 이론, 정치과정론, 프레이밍 이론을 종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구조-인지 이론의 출발점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공공재를 만들어 내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올슨의 논리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공공재를 만들기 위한 집합행동은 매우 예외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도처에서 집합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집합행동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가이다.

구조-인지 이론의 주창자인 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센티브가 변화했는가의 여부이다. 집합행동의 한 유형인 정치저항이나 사회운동을 설명하자면, 세 가지를 규명해야 한다. 첫째, 어떤 인센티브가 변화했는가, 둘째, 왜 어떠한 이유로 변화했는가, 셋째, 인센티브의 변화가 개인의 정치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이다. 구조-인지 이론이라는 명칭에서 구조는 거시적 조건의 변화를 연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이러한 점에서 자원동원 이론과 정치과정론을 포괄한다. 구조-인지에서 인지는 그러한 변화가 개인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으며, 어떠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구조-인지 이론은 프레이밍 이론을 포섭하고 있다.

이러한 저항 및 사회운동에 관한 이론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의

지난 20여 년간 북한 정치변화 논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첫째, 한국에서의 논리는 불평과 불만의 존재가 곧바로 정치저항 행위를 발생시킬 것이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둘째, 시장확대가 북한의 정치변화를 발생시킨다는 논리는 대체로 자원동원 이론과 유사하다. 시장확대로 인해 개인과 집단의 물질 및 정보 상의 자율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이것이 정치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논리이다. 셋째, 사회주의권의 붕괴, 또는 권력승계나 엘리트 갈등에 따른 정치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정치기회론과 접맥할 수 있다. 넷째, 한류의 확산, 북한 주민이 한국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북한 정치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논리는 프레이밍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에 자세히 서술되지 못한 측면까지 고려해 정치저항과 사회운동에 관한 일반 이론을 활용하면 북한에서 ‘주민은 왜 봉기하지 않았을까’를 더 적실성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한편, ‘봉기하는 사람들의 여러 특성’에 관한 일반명제로부터 북한에서의 정치변동 유발과 관련된 교훈을 획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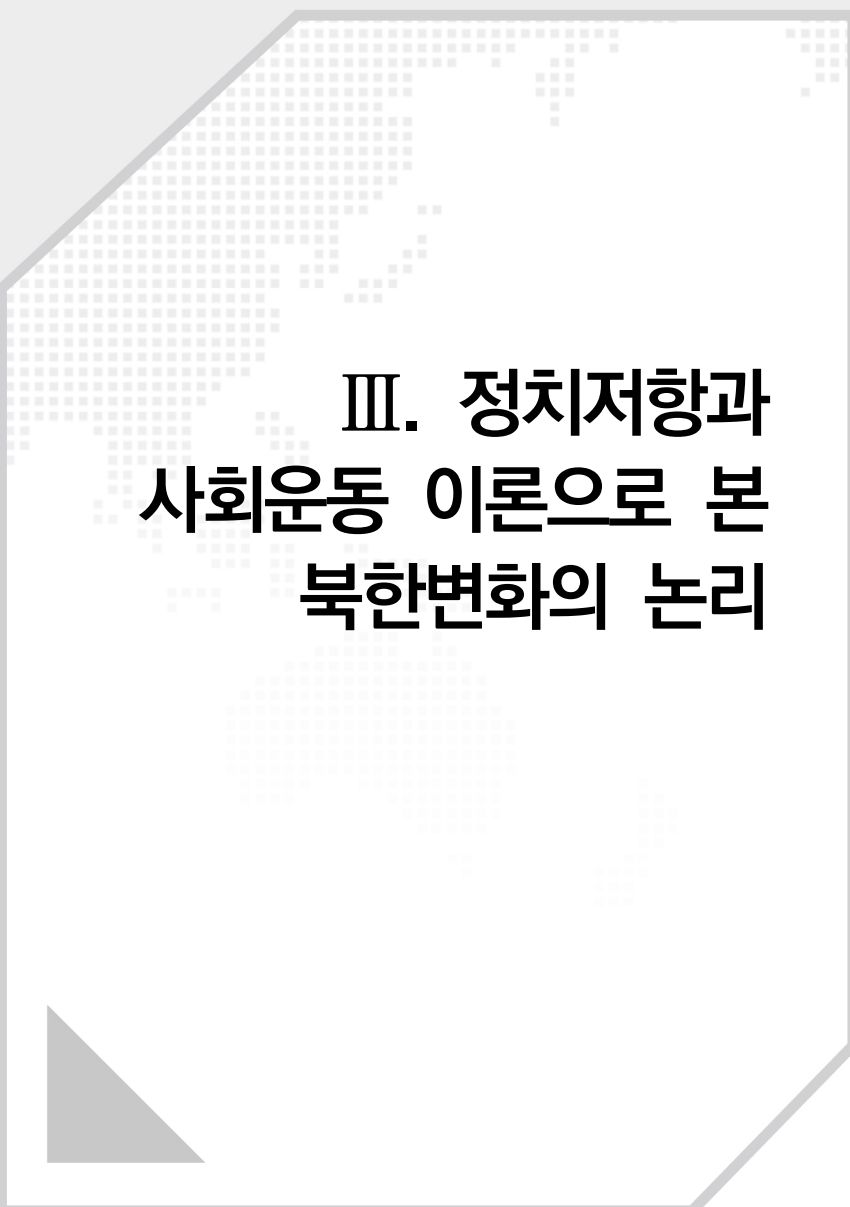
I

II

III

IV

V



Ⅲ. 정치저항과 사회운동 이론으로 본 북한변화의 논리

1. 북한변화와 불변의 논리 구조

1990년대 중반 이래 현재(2014년 말)까지 북한변화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논리가 전개되었다.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논쟁된 주제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구성요소들’의 변화 여부이다. 20세기 사회주의의 붕괴 및 이후 국제질서 변동의 외부 환경, 북한체제 수립자인 김일성으로 대표되었던 절대권력자의 리더십이 김정일이나 김정은으로 계승되었는지 여부, 지배엘리트층의 결집력 여부, 중앙집권적 배급제와 계획경제 시스템의 변화 여부, 이동·통제의 약화, 관료(부패)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양상, 외부정보 유입 등에 따른 사회적 결집력 약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증대 등을 논거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가 논의되었다.

북한의 국가소멸 논의를 제외하면, 북한식 사회주의의 변화는 주로 세 층위에서 논쟁되었다. 첫째, 정권(regime) 차원에서 북한 수령독재의 특수성, 권위주의 통제기구의 안정성, 일당독재, 수령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의 변화 여부, 둘째, 경제시스템 차원에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시장화 작동 양상, 셋째, 수령에 대한 인민의 충성심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 주민들의 주체사상, 집단주의 약화, 체제에 대한 불만 등이다. 즉, 정치를 중심으로 하여 경제와 사회 차원에서 변화 여부가 논쟁되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북한 시장화의 성격과 정책의 성격,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둘러싸고,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드러난 북한지역 행위자의 의식과 행위 변화 등이 논의되었다. 북한지역에 시장화와 정보화, 한류로 대표되는 외부 문화의 확대, 정권·정책에 대한 불신 및 불만에 따른 주민들과 엘리트들의 인식 변화 등이다. 그리하여 정치변동, 경제변동, 사회변동, 문화변동이 북한변화

I
II
III
IV
V

의 주요 범주로 자리 잡혔다.

그리고 각각의 양상과 함께 이 요인들이 체제(regime)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계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핵심 쟁점은 경제적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화는 존재하지만, 정치적 변화와 함께 초래되는 질적인 변화가 존재하는가 여부이다. 즉, 수위의 인식 차이는 있으나 변화는 각 분야에서 인정하는데 이것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질적인 변화인가, 단지 일시적 또는 양적인 변화인가, 변화의 요소들은 상호 연결되어 북한체제의 질적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가, 상호 연결성이 낮아 체제의 질적 변화를 추동할 전망은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논의다.

이러한 북한변화 여부에 대한 논리를 북한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층위에 초점 맞추어, 다소 인위적인 유형화로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주요 이론’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정치저항과 사회운동 이론으로 본 북한변화의 논리

저항과 운동의 주요이론	기원	주요 특징과 초점	핵심 결과물	북한변화의 주요 초점과 논거
집합행위 (Collective Behavi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갈등, 긴장, 불만 ○ 사건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만과 저항의 심리 ○ 상대적 박탈, 대중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화, 소외 ○ 제도적 구조 외부의 저항 ○ 창발적인 규범과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탈, 아노미 	새로운 조직의 의미와 형식	사회적 층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회주의 현상, 사회갈등, 체제불만 ○ 북한 주민·대중사회, 계층분화, 집단갈등

저항과 운동의 주요이론	기원	주요 특징과 초점	핵심 결과물	북한변화의 주요 초점과 논거
자원동원 (Resource Mobi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행동의 합리성 ◦ 자원의 유용성과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 동원을 위한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 자원(직업, 수입, 저축, 재화·서비스에 권리) - 비물질 자원(권위, 도덕적 책임, 신뢰, 우정, 기술, 산업습성) ◦ 공식조직, 행위체, 사회네트워크, 기존조직 	<p>새로운 자원:</p> <p>정치·경제적 변화</p>	<p>경제적 층위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 참여 통한 개인·가계·기업 변화 ◦ 화폐·상품·가격·교환/거래 등 시장경제 확대에 따른 행위자들의 자율성 증대
정치적 기회구조/ 정치과정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Political Pro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기회와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억압영향력 - 엘리트 분열 - 정치과정에서 제도적 참여 확대와 축소 - 정치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과 실패의 기대에 영향 미쳐 집합행동에 참여여부를 결정짓는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 조직, 동원, 기회 4가지 변수의 조합 ◦ 결정적 기회의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시스템에서 엘리트 간 분열과 동맹 - 국가억압 능력의 식퇴 - 대내외 열린공간들 	<p>새로운 조직·제도:</p> <p>정치·제도적 변화</p>	<p>정치적 층위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엘리트 갈등 ◦ 자원배분/의의 둘러싼 동맹·계급갈등 ◦ 리더십 변화 ◦ 당·군·내각 역할·제도변화 ◦ 중국·미국·국제 사회의 대북정책 ◦ 한국의 대북통일 정책
프레임 분석/ 프레임링 (Frame/ Framing appro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화된 인식들: 과거와 현재 환경에서 목적·상황·사건·경험·행동을 선택적으로 강조·재부호화 하여, 세계를 요약·단순화 하는 해석의 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의 현실에 대한 의미와 담론 생산: 대중과의 공명, 프레임 일치(사상전환) ◦ 불만의 전략적 프레임링, 불공평, 정체성, 행위체 ◦ 정치과정과 문화역동성 결합 ◦ 행동의 제도-비제도적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구조, 프레임링 전략 - 상징담론, 미시동원 과정 	<p>새로운 프레임:</p> <p>의식과 행위 양상 변화</p>	<p>문화적 층위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화와 정보화로 인한 북한 행위자들의 집단적 인식을 변화: 한류 등 정보유입 영향력 ◦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의 의식과 행위, 그 준거를 변화

I
II
III
IV
V

위의 <표 III-1>로 정리한 북한의 변화 논리를 정치적 저항 및 사회운동 이론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합행위(collective behavior)⁸³ 이론이다. 정치적 저항이나 사회운동의 기원으로 사회적 갈등, 긴장, 불만 등 심리적 요인과 사건 및 경험을 중시하는, 이 이론의 주요 특징과 초점은 저항의 심리, 주변화와 소외를 초래하는 상대적 박탈 및 대중사회, 일탈 및 아노미 등을 포함하는 창발적인 규범과 조직, 제도적인 구조 외부의 비공식적인 저항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춘다. 즉, 불만의 존재, 사회적 갈등과 긴장의 고조, 계기적 사건과 경험 등이 저항의 심리, 현실 제도를 벗어난 규범과 조직의 창출 등을 가능하게 하여 정치적 저항 행위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집합행동 이론은 저항과 운동의 핵심적 결과물을 ‘새로운 조직의 의미와 형식 창출’로 본다.

이 이론은 북한의 경제난과 정치적 억압이 북한 사회에 불평과 불만을 증대하여 결국 집단적인 저항을 초래하게 한다는, 일반적인 북한변화론이 상정하고 있는 암묵적 논리로 작용한다. 주요 초점으로 사회적 층위의 북한변화를 주목하며, 북한의 비사회주의 현상 증대, 체제불만, 북한 주민들과 대중사회 변화 양상, 계층분화, 집단갈등 등을 주요 주제로 변화 여부를 진단한다.

둘째, 자원동원(resource mobilization) 이론이다. 자원동원 이론은 (앞서의 집합행위론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정치적 저항이나 사회운동이 단순한 불만이나 저항의 심리 확산만으로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합리적 개인’을 행위 분석의 기초로 하

⁸³ 개념적 혼동을 피하기 위해 ‘collective behavior’은 집합행위로 ‘collective action’은 집합행동으로 번역 사용한다. 거시적 측면에서 집단적인 저항과 사회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 집합행동이며, 1950~1960년대까지 풍미한 고전적 집합행동 이론 중 가장 유력한 시각이 집합행위론이다.

는 주류 경제학의 이론을 활용하여, 구래의 집합행동 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불만이 저항이나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합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자원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경제학자 올슨(Mancur Olson)의 『집합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가 저항과 사회운동 분석에 도입되면서 확장되었다. 올슨은 “합리적이고 자기이해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공공의 또는 그들 그룹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원동원 이론에 경제학적 논리를 제공했다.⁸⁴ 올슨의 논리에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 이론이 결합된 자원동원론은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기원으로서 집합행동의 합리성 및 자원의 유동성과 동원을 주목한다.

이 이론의 주요 특징과 초점은 성공적인 동원을 위한 자원으로서 물질적 자원과 비물질적 자원, 공식조직, 행위체(agency), 사회적 네트워크, 기존 조직 등이다. 이때 물질적 자원은 직업, 수입, 저축,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비물질적 자원은 권위, 도덕적 책임, 신뢰, 우정, 기술, 산업적 습성 등이 주목되었다. 이 이론은 저항과 운동의 핵심 결과물을 정치 경제적 변화를 통한 새로운 자원의 형성으로 본다. 이러한 식의 인식은 한국에서의 북한변화론에도 암묵적으로 나타나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에 시장경제가 확대되면 북한지역 행위자들의 합리성을 증대시키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는 정치적 저항 및 사회운동의 자원으로 작용하여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시장화로 대표되는 북한의 경제적 층위 변화에 주요 초점을 맞추어, 시장경제가 확장되면 북한 사회 내 개인뿐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물질적 자율성과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등이 증가

⁸⁴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 2.

하는데, 이것들이 북한체제 전환의 자원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는 북한 시장화와 시장경제 관련 경제학자들의 암묵적 논리로, 북한의 상품 생산-소비-유통 구조, 가격결정, 시장경제 규모, 발전 양상, 경제행위자들의 필요, 대외 시장경제 영향 등이 주제로 다루어진다. 북한변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비공식적 시장경제 참여가 확대됨에 따른 개인, 가계, 기업의 변화 및 화폐, 상품, 가격, 교환 또는 거래 네트워크 등 시장경제 확대에 따른 행위자들의 자율성 증대가 기본적인 논리로 작동한다.

셋째,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또는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 이론이다. 사회운동 분야에서 1970년대 이후 자원동원 이론과 상호 보완적인 논리로 작동하며 진화한 정치적 기회구조 이론은 구조주의와 심리학의 연구성과를 접목하며 발전하였다. 정치 운동이나 행동, 정치세력 변화에 따라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의사결정이 변화되는가 등을 연구하는 정치과정론⁸⁵이 사회운동 분야에도 확장된 것으로, 자원동원 이론과 함께 집합행동 이론에 대한 또 다른 반론으로 평가된다.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기원으로 한 체제 내외부의 정치 환경과 주체의 변화를 중시하는 정치적 기회와 위협들, 즉 억압의 영향력 쇠퇴, 정치엘리트 분열, 정치과정에서 제도적 참여의 확대와 축소, 외부적 정치 환경의 변화를 지목한다. 이 이론의 주요 특징과 초점은 성공과 실패의 기대에 영향을 미쳐 개별 행위자들의 집합행동에 참여여부를

⁸⁵ 정치과정론은 정치학계에서 미국의 벤틀리(Bentley, A. F.)가 정치사상과 정당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학 연구경향을 비판하며 새롭게 개척한 분야로 평가되기도 한다. 다음사진,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29230&q=%EC%A0%95%EC%B9%98%EA%B3%BC%EC%A0%95%EB%A1%A0>> (검색일: 2014.9.2).

결정짓게 하는 인센티브들이다. 이 인센티브는 이익, 조직, 동원, 기회라는 4가지 변수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의 범주들로 정치시스템에서 엘리트 간 분열과 동맹, 국가억압 능력의 쇠퇴, 대내외의 열린 공간 발생 등이 지목된다. 이 이론은 저항과 운동의 핵심 결과물을 정치·제도적 변화를 통한 새로운 조직 및 제도의 창출로 본다.

이러한 방식의 인식은 북한 정치변화를 논하는 한국의 선행연구들에 직간접적으로 등장한다. 한국에서의 연구는 북한 내부 정치변화의 주요 계기를 정치기회로 간주하면서 북한변화와 불변, 체제 붕괴와 지속의 주요 논거를 제기한다. 이러한 인식이 제기하는 북한에서의 정치기회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분석에 활용된다. 지배 엘리트 계급의 갈등, 리더십 변화, 자원배분 또는 이권을 둘러싼 엘리트 동맹과 갈등, 당·군·내각 등 세력 역학 및 제도 변화, 20세기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세계적 정치구조·질서 변화에 따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중국의 대북정책, 6자회담을 포함한 동북아 정치환경, 한국의 대북정책 등이다.

특히 북한연구에서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와 2011년 김정일 사망 전후로 권력승계, 엘리트 갈등, 배급제 불안 및 구조적 경제난 심화에 따른 정치적 불안, 국제적 정치환경에 따른 북한체제의 변화 여부를 논하는 연구들이 이 이론에 기초해 있다. 이에 따른 북한 정치변화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방향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하나는 독재정치의 리더십과 엘리트 구조의 안정성/불안정성을 주목한 것이다. 북한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세습과정에서 수령제 시스템의 작동 여부 문제, 정치적 정당성 확보 문제, 이권 및 정책 갈등 등으로 인한 지도부 내 분열 여부 등이 주요 논쟁 주제가 되었다.

I
II
III
IV
V

또 다른 하나는 ‘경제가 변하면 정치도 변한다 vs 수령제 시스템은 경제구조와는 독립성을 갖는다’는 논쟁구도이다.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하부구조인 경제구조에 모순이 심화되면 그 영향이 상부구조에 미쳐 정치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수령제 시스템이 견고하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해도 정치는 안정적이라는 논리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의 양으로 보면 가장 많은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동북아와 지구적 정치환경 및 중국, 미국,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체제 지속과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대립적 인식에 따른 논쟁들이다.

넷째, 자원동원 이론과 정치적 기회구조 이론에 대한 반론 및 보완으로 1980년대부터 사회운동 분야에서 발전한 프레임 이론(frame theory) 또는 프레임링 접근(framing approach)이다. 이 이론은 신념체계를 다룬 문화심리학, 구조주의 인류학, 구성주의 등의 연구 성과가 결합된 것이다. 구조적 불만이 집합행동으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인식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는 신념체계의 변화이며 일종의 사상전환으로, 이를 위해서는 ‘불만의 전략적 프레임링’과 일반인과의 공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프레임링 과정을 통해, 개인들/대중이 자존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을 발전시키고 개인의 존재 의미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어야,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기원을 ‘주요 프레임(master frames)’으로 본다. 이때 프레임은 인식 주체가 과거와 현재 환경에서 목적, 상황, 사건, 경험, 행동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재부호함으로써 세계를 요약하고 단순화하는 해석의 도식이다. 개별 행위자들이 ‘삶의 역사와 과정’에서 배우고 익혀 내면화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정당성

있는 담론과 규범으로 작동하는 인식틀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 이론의 주요 특징과 초점은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을 조직하려는 기업가적 운동가들(movement entrepreneurs)의 현실에 대한 의미와 담론 생산, 특히 활동가와 대중들의 프레임 일치 및 공명을 중시한다.

이때 프레임 일치와 공명을 위한 프레임 전략들, 불의, 정체성, 행위체(agency), 정치적 기회구조와 문화적 역동성의 결합, 행동의 제도적 유형뿐 아니라 비제도적 유형들이 중요하다. 그 주요 유형들은 세계와 사건을 해석하는 의미구조, 불만의 전략적 프레임, 상징 담론, 미시적 동원 과정 등이다. 프레임 접근은 저항과 운동의 핵심적 결과물을 행위자들의 의식과 행위 양상 변화를 통한 새로운 프레임 창출로 본다.

북한 연구에서 이 이론은 주로 문화적 층위의 북한변화 여부 논리에 바탕이 된다. 북한변화의 주요 초점과 논거는 북한 시스템 행위자들의 의식과 행위 및 그 ‘준거가 되는 인식틀(준거틀)’의 변화를 다룬 연구들, 시장화 과정에서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과 교류 확산 등을 포함한 정보화 진전을 통해 체제 전환 여부를 구상하는 연구들이 이 프레임 접근에 기초해 있다. 특히 북한 사회와 주민들 사이에 한류의 확산이 북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는 프레임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북한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 이론의 역사적 맥락에서 집합행위론, 자원동원론, 정치적 기회구조론, 프레임 이론의 주요 논리를 살펴보고, 각 이론들을 직간접적으로 북한변화 여부의 주요 주제 및 논거로 활용한 주요 연구물들을 다룬다. 선행연구들이 직접적으로 각각의 이론 및 그 분석틀에 따라 논리를 전개하지 않았을지라도, 간접적으로 그 배경으로 작용하

I
II
III
IV
V

였거나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요 북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다.

2. 집합행위론에 기반한 북한변화

고전적 집합행위론에 따른 북한변화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갈등 시각에 기초해 있다. 1990년대 관련한 대표적 선행연구는 초기 탈북민 증언을 중심으로 한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작동되던 시기 간부들의 독점과 불평등성,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의 적대감, 계층 불평등에 따른 갈등 등을 다룬 연구,⁸⁶ 북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다룬 김병로와 김성철의 연구⁸⁷가 있다. 이 연구들은 1990년대 북한이 경제난으로 취약해진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기득권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동요계층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억압을 강화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적 차별구조를 심화시켰으며, 대중적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최근까지 사회학 출신의 북한 연구자들은 고전적 집합행위론에 따라 북한변화 여부를 진단한다. 대표적으로 이우영과 조한범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사회적 층위의 변화 관련해 이우영은 다음과 같이 북한 사회변화의 특성과 원인을 진단하고 김정은 체제의 과제 및 변화를 전망한다.

시장화의 확산과 국가부분의 약화라는 체제전환은 북한에서도 점차 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추세는 뒤로 돌리기

⁸⁶ 서재진,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⁸⁷ 김병로·김성철, 『북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어렵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이나 일상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바로 체제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압력의 정도를 조금씩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압력이 더욱 높아지면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요인은 단순히 변화의 조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집단과 결부되어 구체적인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갈등을 북한 당국이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면 점진적인 변화로 귀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어 급격한 체제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⁸⁸

한편 조한범·황선영은 골드스톤(Jack A. Goldstone)의 논의에 기초해 마르크스(Karl Marx)로 대표되는 18세기 고전적 혁명이론부터 1990년대 중반 스카치폴(Theoda Skocpol)까지 3세대에 걸친 주요 혁명이론을 검토한 후, 이들 혁명이론이 사회주의 체제 해체와 재스민 혁명 등을 예측해 내지 못했다는 평가에 기초해, 다음과 같이 북한 사회의 위기구조를 진단하고 사회변동을 전망한다.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구조는 국가와 시장 간 갈등, 간부와 주민 간 갈등, 엘리트 간 갈등, 그리고 빈부 갈등으로 대변될 수 있다. ... 현재 북한에서 체계적인 저항 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니나, 다양한 갈등 요소들의 증가 및 불만이 축적됨에 따라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동구권 국가들은 통제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대중적 불만과 저항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붕괴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경제위기의 심화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대중적 불만이 특정한 계기를 통해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⁹

⁸⁸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통일연구원, 2012), p. 69.

⁸⁹ 조한범·황선영, 『북한 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xiv ~ xv.

I
II
III
IV
V

두 연구의 공통점은 북한변화 여부를 ‘사회적 갈등’의 양상과 대중적 ‘불만’이란 고전적 집합행위 이론의 분석틀에 기초해 분석하거나 그 유용성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긴장’ 또는 ‘붕괴’ 이론들로도 알려진 집합행위 이론은 “집합행동은 정치적 과정 내의 세력이나 표준적 부문이 존재하는가 여부 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불만이 깊어지는 사회적 혼란의 시기 동안 발생한다”는 명제로 압축된다.⁹⁰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집합행동 관련 고전적 집합행위론은, 1960~1970년대 활동가(activists)들이 학자로서 성장하면서 그들 자신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전까지인, 1950~1960년대 3가지 이론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대중사회 이론(mass society theory), 집합행위(collective behavior), 그리고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 이론이다. 이 세 이론은 대중 수준에서 일탈적이며 비이성적 행동의 사례들과 사회적 긴장을 유도하는 개인적 불만의 증대, 대내외 갈등과정에서 초래되는 박탈감 등 심리적 감정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동원을 설명한다.⁹¹ 이 중 1960년대까지 가장 우세했던 논리가 집합행위 이론으로, 1970년대 이전까지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 관련 모든 고전적 이론의 변수들을 대표한다.

집합행위 이론의 변수들이 뿌리 놓여있는 뒤르켄주의자들(Durkheimian)의 사고방식에서, 사회갈등은 행위를 규제하는 공동의 가치 및 도덕 기준이 붕괴한 아노미와 사회적 분열의 결과이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 노동분화, 사회적 정체성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스트레스 등에 따

⁹⁰- Suzanne Staggenborg, *Social Movem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 12~13.

⁹¹- Paris Aslanidis, “Critical Review of Social Movement Literature,” *www.academia.edu* (2012), pp. 2~3.

른 긴장으로 발생한다. 즉, 비정상적인 집합행위(abnormal collective behavior)는 사회적 붕괴(social breakdown)의 결과라는 주장이다.⁹²

이 이론은 사람들이 스스로 과소평가된다고 느끼는 ‘주변화’와 ‘소외’의 감정 때문에 사회운동에 참여한다고 간주한다. 정치적 통합과 참여의 제도화된 통로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이들이 그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집합행동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아렌트(Hannah Arendt)의 전체주의 연구와 콘하우저(William Kornhauser)의 대중사회 정치 연구와 연결된 이 명제의 함의는 저항이 단지 주변화되고 사회적으로 원자화된 개인들에게 해당하는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활동이라고 인식한다.⁹³

군중심리(crowd mentality)와 일련의 특별하거나 제도 외적 현상(extraintitutional phenomena)으로 보여지는 집합행위는 자발적이며 비조직적이고 전염성이 있는 감정적 반응들, 열광, 집단적 동요, 병적 흥분, 루머, 광기, 폭동과 여타 불시에 떠오르는 비구조적인 집합적 태도들이라는 것이다. 그 지적 전통은 사회심리 분석가들인 프로이드(Sigmund Freud)와 뒤르켐(Emile Durkheim)으로부터 유래한다. 사회심리적 해석은 집합행동 또는 동원을 사회적 통제 메카니즘의 약화와 전형적 통제권력의 상실로 인한 사회붕괴의 가시적 표현으로 인식한다.⁹⁴

⁹² Jonathan Jackson and Jason Sunshine,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a Neo-Durkheimian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7, No. 2 (2007).

⁹³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1951); William Kornhauser, *The Politics of Mass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59).

⁹⁴ David A. Snow and Pamela E. Oliver, “Social Movements and Collective Behavior,” Karen S. Cook, Gary Alan Fine, and James S. House (eds.),

이 이론의 대표적 학자는 터너(Ralph H. Turner), 킬리안(Lewis M. Killian), 스멜서(Neil J. Smelser)이다.⁹⁵ 특히 정치적 기회구조와 프레임 분석에 영향을 미쳐 현대 사회학계에서 주목된 학자는 시카고 학파의 스멜서이다. 스멜서는 저항은 사회적 구조에 갑작스런 변화에 반응하는 ‘원자화된 개인들’의 일부에서 발생하는 비이성적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기능주의 분석들에 따라 집합행동의 4가지 중요 결정요소로, 구조적 유발성(structural conduciveness), 구조적 긴장(structural strain), 일반화된 신념의 성장과 확산(growth and spread of a generalized belief), 촉발요인들(precipitating factors)을 제시한다.⁹⁶ 이후 스멜서의 ‘구조적 유발성’ 아이디어는 ‘정치적 기회’ 개념에, ‘구조적 긴장’은 도의적이고 법률적인 부정(不正)을 의미하는 ‘불공평’ 개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현대 집합행동 이론에 이 아이디어를 결합한 뷔클러(Steven M. Buechler)는 붕괴(breakdown)와 기회(opportunity) 간 중첩성을 주목했다.⁹⁷

한편 ‘상대적 박탈’ 개념을 통해 집합행동의 인식 지평을 확장시켜 현대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 분석의 기초를 다진 거(Ted Robert Gurr)는 1970년 출간한 『왜 인간은 반역하는가?(Why Men Rebel?)』를 통해, 정치적 저항과 반역의 일반적 변수 규명을 시도하면서 나쁜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1995), pp. 571~599.

⁹⁵ Ralph H. Turner and Lewis M. Killian, *Collective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57); Neil J. Smelser,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New York: The Free Press, 1962).

⁹⁶ Neil J. Smelser, *Ibid.*, pp. 15~16.

⁹⁷ Steven M. Buechler, “The Strange Career of Strain and Breakdown Theories of Collective Action,” David A. Snow, Sarah A. Soule, and Hanspeter Kriesi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 (Oxford: Blackwell, 2004), pp. 47~82.

정부와 비대중적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심리(minds)뿐 아니라 그들이 사는 사회, 그들의 신념과 문화적 전통, 그리고 그들이 반대하는 정부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이후 스카치폴의 ‘사회와 정치적 구조’ 이론,⁹⁸ 톨리(Charles Tilly)의 정치적 동원 이론,⁹⁹ 타로우(Sidney Tarrow)의 대중 사회운동 이론,¹⁰⁰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론 등에 반영되었다.

‘Why Men Rebel’ 모델의 핵심 주장은 일반적으로 저항과 반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보편적 요인을 분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첫째, 대중적 불만(상대적 박탈), 둘째, 정치적 행동의 정당성과 효용성(justifiability and utility)에 대한 사람들의 정당성 인정(justification) 또는 신뢰이다. 셋째,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력(그들이 조직화되는 방법들)과 그들의 분노를 돌리거나 누를 수 있는 정부의 통제력 간 균형이다.¹⁰¹

거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해석하고자 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영향을 받았다. 1856년 출간된 저서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The Old Regime and the French Revolution*)』을 통해 토크빌은 절대적인 빈곤, 심각한 박탈, 절망, 정치적 무력감, 체념 등이 팽배한 환경에서는 혁명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¹⁰² 토크빌의

⁹⁸- Theda Skocpol, *Social Revolutions in the Modern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⁹⁹- Charles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1978).

¹⁰⁰- Sidney Tarrow,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¹⁰¹- Ted Robert Gurr, *Why Men Rebel: Fortieth Anniversary Edition* (Colorado: Paradigm Publishers, 2011), p. ix.

¹⁰²- Alexis de Tocqueville, translated by Stuart Gilbert, *The Old Regime and the French Revolution* (New York: Anchor Books, 1955).

영향을 받은 것은 집합행동을 위해서는 실제하는 객관적 환경 그 자체보다 행위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또는 위치에 대해 가지는 인지가 더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집단적 저항 행위를 개인들/집단이 타인 또는 공동체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기대, 즉 가치기대와 현실의 대우 간에 차이가 초래하는 상대적 박탈의 결과라고 해석한다.

이는 구조적 박탈상황을 중시하면서 ‘욕구불만-공격 패러다임(frustration-aggression paradigm)’을 구축한 것이다. 그의 노력은 거시수준의 분석으로부터 미시수준의 분석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쳤고 중추적 설명변수로서 ‘정치적 폭력’을 향한 개인적 인센티브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불만 그 자체가 일반적 사회변화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절하게 기대되는 또는 갈구되는 삶의 질(well-being) 수준과 실제 경험 수준 간 불일치 증대가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 박탈 이론은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다는, 오히려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집합행동이 현저히 드러남을 논증한다.¹⁰³

거와 그의 후계자는 사회적 긴장에 이론적 설명력을 향상시키고, 불만과 행동의 사회 심리적·구조적 메카니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계량연구가들과 구성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그 이론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박탈에 초점을 맞춘 통계지표와 공공에 의해 표현된 좌절감 사이에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자들과 1968년 유럽 학생운동 세력인 68세대로 대표되는 구성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다. 먼저 계량학계에서는 박탈과 저항 간에 직접적 인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구성주의자들은 좌

¹⁰³- Ted Robert Gurr, *Why Men Rebel*.

절 또는 욕구불만은, 1960~1970년대 유럽 학생운동 흐름인 탈물질주의 또는 구성주의 운동에서 보이듯, 상대적 박탈 없이도 발전할 수 있다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¹⁰⁴

이러한 비판과 한계에도 상대적 박탈 이론은 파시즘과 나치즘과 같은 역사적 균중행위를 해석하는 데 대중의 비이성 또는 비합리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기존의 집합행위 이론의 분석틀을 부수는 시도이자 집합행동의 합리성을 논리화하려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고전적 집합행위 이론이 운동의 “행위체 역할(the role of agency)”을 무시한 것에 비해, 상대적 박탈 개념의 도입은 운동의 전략과 조직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체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다.¹⁰⁵

고전적 집합행위 이론은 북한의 경제난과 정치적 억압이 북한 사회에 갈등과 불만을 증대시켜 결국 집단적인 저항을 초래하며 그 결과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북한 붕괴론 또는 위기론, 급변사태론, 필연적 변화론 등이 암묵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논리이다. 앞선 북한 사회학자들의 논리 외에 구조적 모순과 결합된 집합적 행위 가능성을 진단한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수준 평가와 내구력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1996)¹⁰⁶; 서재진,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

¹⁰⁴-Paris Aslanidis, “Critical Review of Social Movement Literature,” pp. 3~4.

¹⁰⁵-Doug McAdam,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 10.

¹⁰⁶-이 연구는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전환과정에서 상당부분 타당성이 입증된 브레진스키(Z. Brzezinski 1989)의 ‘사회주의 체제위기 지표’를 수정한 것이다. 이 연구는 사회주의국가를 대상으로 체제 위기지표 10개 항목으로 사회주의이념의 대중적 호소력·미래에 대한 비관정도·생활수준·공산당의 영향력·종교활동의 증대·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이념대립·사적소유 증대·정치적 반대 증대·공개적인 정치적 다원화 요구·인권문제에 대한 수세적 대처를 설정하여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이행을 전망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 지표를 다소 수정하여, 이념·엘리트·경제·통제·대외관계 5개 분야 15개 항목으로 RINU 지표를 만들어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수준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결과 북한체제의 위기지수는 임계치 2.5 이상이라고 분석되었고, 북

I
II
III
IV
V

구력』(서울: 통일연구원, 2007); 박관용 외,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7); 안드레이 란코브, 『북한 위크아웃』(서울: 시대정신, 2009)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고전적 집합행동 이론의 다양화 및 진화와 함께 국제 사회학계를 중심으로 그 논리와 해석들이 발전함에 따라, 북한 연구 분야도 새로운 이론들을 다양한 통로로 받아들이고 연구에 적용하였다. 이 연구들은 일탈, 아노미, 범죄 등 광기와 같은 비이성적 현상 묘사를 넘어서, 합리성과 구조적 시각을 결합하여 사회적 분열, 계층구조 변화, 집단균열, 대중사회, 상대적 박탈, 주변화 등을 주목하였다. 탈북민 증가와 북한 사회연구 및 학제 간 이론·방법론의 발전과 함께 2000년대 말 이후 주로 사회적 층위의 북한변화를 주목하며, 북한의 비사회주의 현상 증대, 체제불만, 대중사회 변화 등을 주제로 사회적 분열과 불만 고조, 일탈현상 증대, 상대적 박탈감 증대, 계층분화에 따른 소외 등에 착목한 북한변화 논리가 전개되었다.

먼저 북한 당국이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비사회주의 현상’을 소재로 대중사회 변화, 체제불만, 불만 고조, 일탈현상 증대 등을 다룬 대표적 연구는 최대석·박영자·박희진,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실태 및 주민의식 변화』(통일부정책용역보고서, 2010)이다. 이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정권의 대주민 ‘비사회주의 검열’¹⁰⁷이 두드러

한 당국이 이 위기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2001~2008년 사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전환의 위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¹⁰⁷ 북한에서 비사회주의의 검열그루빠(이하 비사그루빠)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초이다. 사회주의권 체제전환 및 탈냉전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개혁개방 과정을 목도하며 ‘자유주의’, ‘자본주의’, ‘수정주의’ 의식 및 행위 등이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사그루빠를 조직하여, ‘자유주의 황색바람’에 의한 ‘사회주의 배신행위’가 세력화되지 않도록 정치 검열 및 사상 선전/조직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발전된 시장 활동과 시장 진화 경로를 타고 들어오는 물질적 자유주의적

진 것에 착목하여, 그 주요 요인을 배급제 붕괴와 시장화가 초래한 비사회주의의 현상 및 확산이라고 진단한다. 이 연구는 북한정권이 규정하고 있는 비사회주의의 내용을 6가지로 범주화했다. 첫째, 정권의 사상적 규범·통제에 반하여 집단주의를 약화시키는 행위, 둘째, 시장관리소의 제한규정을 지키지 않는 무질서한 사경제행위, 셋째, 수령·지도자 등 김일성조국·김일성민족의 정당성과 정책을 비판하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반사회주의의 행위, 넷째, 매춘·도박·마약·살인·절도·상해 등과 연루되어 인민의 정신세계와 신체를 파괴하는 행위, 다섯째, 허가하지 않는 외부전파나 남한 영상매체 등을 보고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유포하는 행위, 여섯째, 조국을 배신하고 도강하는 행위 등이다. 이 연구는 그 실태를 살펴보고, 비사회주의의 현상 확대가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인 반사회주의의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주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집단주의 북한체제의 사회균열이 야기되었다고 분석한다. 한편, 북한 현장조사를 통해 북한의 사회와 주민생활 변화를 연구하는 탈북민 자유기고가는 집합행위 시각에서 2000년대 이후 북한 사회 및 주민의식 변화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9가지로 평가한다.¹⁰⁸ 첫째, 주민 사

외부정부 및 생활양식, 그리고 국가의 공적 부조의 실패와 계획경제 체제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 확산과 함께 비사그루빠의 활동이 강화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비사그루빠는 국경연선지역의 시·군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비사그루빠, 국가 보위부·안전기관 등의 비사그루빠, 중앙당 직속의 비사그루빠, 사회단체 대행의 비사그루빠, 각종 기관 연합 비사그루빠, 지역교차 비사그루빠(한 지역공동체 내 암묵적 목인을 하는 비사행위를 밝히기 위해, 군별로 간부들이 다른 군의 간부나 주민을 검열하는 상호교차 그루빠) 등 사안, 정세, 검열주체, 연합검열 주체 등에 따라 다양하게 활동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때 비사그루빠에 의해 통제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북한 사회주의의 공식규범과 가치관에 어긋나는 행위양식뿐만 아니라, ‘황색바람’으로 지칭되는 자본주의적 의식과 문화접촉까지이다. 최대석·박영자·박희진,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실태 및 주민의식 변화』 (통일부정책용역보고서, 2010).

¹⁰⁸ 안중수, “북한 시장화와 주민생활에서의 변화,” 『2010년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동북아미시사학회연구소, 2010.8.12).

I
II
III
IV
V

회의식 획일화 붕괴와 그를 대신하는 정보 및 지식 다양화 확산, 둘째, 대안적 통치방식으로 인식되는 북한정권의 비사회주의 검열 기준이 권력가와 돈주 등 상류층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이중성에 대한 주민들의 노골적 불만·비판, 셋째, 서관히, 박봉주, 박남기, 혜산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비사회주의의 현상 처벌에 대한 주민 불만·비판, 넷째, 북한정권에 도전한 것으로 인식되는 프룬제, 키예브 사건처리에 대한 불신이다. 다섯째, 고난의 행군 후 선군정부를 수립한 것에 대해 정권이 주민과 사회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 여섯째, 핵과 미사일 등 정치군사적 과시형 예산낭비에 대한 북한 주민 비판의식, 일곱째, 은행 등 국가경제 권위제도에 대한 주민의 신용 추락, 여덟째, 선군정치와 인민대중 중심 정치를 김정일 정권이 말하지만, 실제 이 두 정치방향이 대조적이라는 비판, 아홉째, 김정일 정권이 말하는 북한이 “세상에 부럼 없는 나라”라는 의식의 붕괴 등이다.

다음으로 북한 사회의 시장화 및 자생적 생존질서 발전으로 인한, 북한의 공식적 제도와 규범을 벗어난 주민들의 일탈을 넘어선 다양한 창발 행위, 계층 분화와 주변화를 다룬 연구들이다. 탈북민 증대 및 교류확대 등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가 다양한 통로로 확인되고, 북한연구 학계에도 최신 이론과 방법론 도입 및 적용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전에 비해 질적으로 발전된 연구성과물들이 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분의 시장화와 경제적 계층분화,” 『현대북한연구』, 11권 2호 (2008);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노동일상의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3호 (2009);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홍민·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파주: 한올아카데미, 2013) 이다.

이 연구들 또한 사회적 층위에서 북한의 갈등구조와 변화, 특히 북한의 시장화 전개 및 진화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삶의 양상과 집단들, 기존 북한 당국의 핵심-동요-적대 계층이라는 신분적 계층 갈등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고전적 집합행위론의 갈등과 불만 고조에 따른 저항이란 단선적인 인식을 벗어나서 갈등 및 불만의 심리와 행위의 다양성을 주목한다. 즉, 집합행위 이론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심리를 중시하되 이를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보통사람들, 사회의 집단별 일상생활의 변화, 의식과 삶의 다양성, 도시와 농촌 등 공간, 노동과 계층, 젠더 등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생존기술과 저항의 다양성을 중시했다.

대표적으로 발전된 집합행위론 시각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주변화와 일상화된 일탈 노동을 주목한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연구이다. 이 연구물은 “북한 노동자들의 주변적 노동일상과 계층분화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 2003년 종합시장제 실시 이후, 북한 노동세계의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주변노동’과 ‘노동시장’을 주요 연구범위로 하여 일상의 시각과 고프만의 ‘상호작용하는 일상생활의 상황과 구조(frames)’ 분석 방법론에 기초하여 북한 노동일상의 상황과 구조를 규명한 것”이다.¹⁰⁹

2003년 이후 탈북민들에 대한 심층면접 텍스트 분석과 문헌분석에 기반한 이 연구는 2003년 이후 북한 노동일상의 상황을 드러내 주는 주변노동인 ‘불법적 사회적 묵인노동’을 다양한 일당제 노동과 대리동

¹⁰⁹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3호 (한국정치학회, 2009), p. 149.

원·소작·품삯노동, 자영업·방문장사·보따리 밀수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매춘·도박·마약 등 ‘불법적 사회적 일탈노동’ 상황들을, 그리고 주변노동 상황을 통해서 본 노동일상의 구조를 다루었다. 또한 북한 노동시장 발전과 노동계층 분화 상황을 살펴본 후, 노동시장과 계층분화 상황을 통해 본 노동일상의 구조를 다루었다.¹¹⁰

다음으로 김수암 외의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이다. 이 연구는 ‘삶의 질’에 대한 국제적 이론과 논의를 검토하면서 북한 현실에 기반하여 욕구이론·인간안보·유로모듈의 주·객관적 지표 중 생존욕구·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중심으로 접근한 것이다. 먼저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를 의식주와 교육 및 건강으로 설정하고, 주관적 지표는 북한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전략은 ‘돈에 대한 집착’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권력과의 공생관계 형성으로 집약되고, 이 물질적 이해관계에 얽힌 네트워크들이 교육 및 의료 등 객관적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¹¹¹ 이 연구는 북한 주민들의 불평등 상황 인식을 면밀하게 다룬 것으로 집합행위 이론과 연계된 대표적 성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¹¹⁰ 위의 글, pp. 149~171.

¹¹¹ 김수암·김국신·김영운·임순희·박영자·정은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vii~viii.

3. 자원동원론에 기반한 북한변화

자원동원론적 인식에 입각한다고 볼 수 있는 북한변화 연구는 북한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의 GDP 등 거시경제 지표, 탈북민 설문조사·면접 등 정량적·정성적 조사를 근거로, 북한의 시장화 및 비공식 경제를 중심으로 최근 북한변화를 진단한 대표적 연구는 김병연, 양문수, 임강택 등 경제학자들의 성과물이다. 주요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화는 기존의 사회주의 질서 체계에 충격을 가하는 동시에 이를 동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 북한 비공식 경제의 규모는 사회주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매우 크다. ... 응답자의 76%가 공식적·비공식적 시장활동에 참여했다고 답하였다. 시장활동 등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소득의 60~80%에 달했으며, 식료품 지출에서 배급, 국영 상점 지출을 제외한 시장에서의 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84%에 달하였다. ... (뇌물) 북한 GDP의 6~7%에 해당하며, 이 수준은 부패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소련 경제의 붕괴 직전인 1980년대 말에 비해서도 3~4배 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뇌물수수능은 최고권력자와 시장을 단속하는 관료 사이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기업과 기관의 수입 중 상당 부분이 직접 간접적인 시장활동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은 북한 정부가 시장을 철폐한다면 공식 계획경제에도 상당히 큰 충격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¹¹²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근본 틀을 바꾸었다. 그리고 막강한 국가의 힘도 시장을 철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장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생존과 생계의 원천이며 관료들에게는 공식 수입을 크게 능가하는 중요한 수입의 장이기 때문이다.

¹¹²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pp. 140~143.

I
II
III
IV
V

더 나아가 공식계획 그 자체가 시장활동에 상당한 정도 의존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철폐는 바로 공식 기관이나 기업소의 운영난, 관료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은 질적으로는 자체 동력이 부족한 불완전한 시장화이다. … 그리고 자원동원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북한의 시장이 국내 생산량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은 전통적 권력인 국가에 맞설 수 있는 신흥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국가권력의 일정부분의 이해관계가 시장의 그것과 일치됨으로써 이전에 막강했던 국가의 힘은 전과 같지 않은 상태이다.¹¹³

북한에서 시장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영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시장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시장의 역할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러한 시장의 역할은 기업과 개인으로 구성된 경제주체들에게 각기 다른 형태와 정도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 시장을 활용하는 기업 활동이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시장화 영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¹¹⁴

¹¹³-위의 책, pp. 144~145.

¹¹⁴-임강택,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 ix. 한편 그는 북한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북한 국영기업의 시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혼재되어 있다. 첫째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시장화’가 진행되었다는 견해로, 외형상으로는 국영기업의 틀을 유지하고 있을 뿐, 기업활동의 내용은 대부분 비계획적인 경제활동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기업들의 제한적인 시장화’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북한의 계획체제가 와해된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주요 국영기업들은 여전히 국가의 계획관리 운용시스템의 틀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사실이고 다른 쪽은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현상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최근의 상황은 기업들의 시장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책, p. xi.

경제적 층위에서 북한의 변화를 연구한 경제학자 인식의 공통점은 ‘공식경제에 대립되는 비공식경제 개념’에 따라 북한 경제에서 공식과 비공식의 규모, 북한에서 국가와 시장의 대립, 사회주의국가에서 비공식 경제가 확대되면 공식경제를 잠식하여 결국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설(비공식화 가설)이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화 가설(informalization hypothesis)은 러시아와 동유럽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연구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논리이다.¹¹⁵ 이러한 경제학계의 인식들은 객관적 데이터가 부족한 북한연구 현실에서, 학자들에 따른 비공식경제 부문의 비율 진단이 체제 붕괴 여부 진단으로 이어지곤 한다. 이 논리는 저항과 운동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자원동원론에 기반한 것이다.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68혁명으로 대표된 새로운 사회운동들이 창발될 때, 그간 집합행위 이론의 암묵적 전제인 ‘비조직화된 대중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서 사회운동 또는 동원’이라는 시각이 오만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올슨의 집합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통찰이 대안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떠올랐다. 당시 자원동원 이론을 구축한 대표적 학자는 맥카시(John D. McCarthy)와 잘드(Mayer N. Zald)이다. 이들은 집합행동의 불규칙성이란 비판을 ‘저항의 합리성’이란 개념으로 반비판하였다. 즉, 평범한 합리적 개인들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 조직화된 활동으로서 저항 행위를 재개념화하는 자원동원 이론을 구축했다.¹¹⁶

¹¹⁵ 한편 소련의 경제를 연구한 김병연은 실증분석 결과 소련 붕괴를 설명하는 데 ‘비공식화 가설’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이유로 비공식 부문의 크기가 중앙계획을 붕괴시킬 만큼 크지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p. viii.

¹¹⁶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The Trend of Social Movements in*

I
II
III
IV
V

그리고 경제학자 올슨(Mancur Olson)의 무임승차자 문제와 합리적 개인의 행위이론이 사회운동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과 비즈니스 압력단체 연구로부터 도출되어, 수많은 인적 연합 내에 인센티브와 강제 규정들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낸 것이다. 올슨의 분석은 이익단체의 집합행동에 대한 것이고 그가 사회운동에 특정하게 관심을 두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운동 이론가들에 의한 그의 논리 적용은 고전적 집합행위 시각으로부터의 결별에 기여하였다. 즉, 흐름을 쫓아가는 비이성적 집단의 행동이 아니라, 참여의 비용과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합리적 개인으로서 집합행동의 행위자들을 상징하게 된 것이다.¹¹⁷

사회운동의 이 이론적 진보는 새로운 세대 사회학자들에 의해 내면화되었고, 사회운동 이론화에 새로운 길을 연 1960년대 말 행동주의자(68세대)들의 생생한 경험과 연계되었다. 집합행동의 합리적 측면, 자원의 유용성과 동원, 그리고 조직과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시되며, 고전적 집합행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자원동원 학파가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심리적 역할과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분석이 쇠퇴하고, 성공적인 동원의 필요조건으로 간주된 거시적 중범위 요인(제도, 네트워크, 행위체 등)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자원동원 이론은 현실 경험에서는 불만증대와 사회운동의 발생 간 상관관계 및 직접적 인과성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예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요에 맞춘 재화 제공을 약속하고, 비용과 이익의

America: Professionaliz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Corporation, 1973);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 6 (1977), pp. 1212~1241.

¹¹⁷-Paris Aslanidis, "Critical Review of Social Movement Literature," p. 5.

신중하고 전략적인 계산을 통해 그들의 전술을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운동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자원동원 이론은 저항이 사회적 심리적 긴장에 대한 자동적 반응이 아니라, 저항과 사회운동 확산을 위해 자원의 성공적 할당을 촉진할 수 있는 조직적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¹¹⁸ 그러나 자원동원 이론이 불만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자원동원 이론가들은 불만은 도처에 있으나 이는 저항과 사회운동의 2차적 요소라고 진단한다. 구조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이 있고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불만의 표준적인 지지층이 생산된다는 논리이다.¹¹⁹

자원동원 이론식 발상을 직간접적으로 전제한 북한변화 연구는 북한의 시장경제, 비공식 경제, 시장화를 주제로 전개되었다. 즉, 북한에 시장경제가 확산되면 북한지역 행위자들의 합리성이 증대되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는 정치적 저항 및 사회운동의 자원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는 비공식 경제를 개념으로 한 북한의 시장화와 시장경제 관련 경제학자 연구들의 주요 논리이다. 시장화로 대표되는 북한의 경제적 층위 변화에 주요 초점을 맞추어, 시장경제가 확장되면 북한 사회 내 개인뿐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물질적 자율성과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등이 증가하는데, 이것들이 북한체제 전환의 자원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2000년대 초 이 논리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¹¹⁸-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pp. 1212~1241.

¹¹⁹- Craig J. Jenkins,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the Study of Social Move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9 (1983), pp. 527~553.

<종합시장제도> 등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 변화를 중시하는 학자들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실리주의 정책에 따라 ‘중국형 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협력 및 교류협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바탕이 되었다.¹²⁰ 그리고 2000년대 말부터 북한의 시장화 또는 비공식 경제를 주제로 한 시장경제 규모 추론, 질적 변화의 정도, 가계와 시장, 국가와 시장 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경제학적인 연구가 발전하면서, 북한의 비공식 경제부문과 시장화 등이 체제 변화를 추동하는 자원으로서의 특성이 부각되며 그 양적 변화 또는 질적 변화의 진단에 기초한 대북정책 또는 북한 경제의 전망이 이루어졌다. 대표적 학자는 임강택, 이석, 양문수, 김병연 등이다.¹²¹

앞서 살펴본 김병연과 임강택의 논지 외에 북한 시장화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라는 질적 성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을 살펴보자. 먼저 이석은 탈북민 조사를 통해 북한의 시장규모를 추정할 경우 시장화의 규모가 과다하게 추정된다는, 아직(2009년까지) 북한의 시장 성숙도는 질적인 시장경제로의 경로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다.¹²² 최근 연구로 정형곤·김병연·이석은 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 조치들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결과, “북한 경제가 현재와 같이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모순 속에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시

¹²⁰ 최수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경제 변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행태의 변화』 (서울대 경제학박사학위논문, 2003).

¹²¹ 2009년까지 북한 시장에 대한 북한 경제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잘 정리한 저서로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pp. 4~5.

¹²² 이석, 『북한의 시장: 규모 추정과 구조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장경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그 주요 근거로 김정은 정권에서도 북한의 시장은 “북한 당국의 적극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¹²³

다음으로 북한의 시장화를 계획경제와 배급제 붕괴에 따라 “기업과 가게 등 말단 경제주체들의 자력갱생 차원”¹²⁴으로 접근하다가, 2014년 현재 북한 시장화의 질적 성숙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양문수의 논리를 살펴보자.

이제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혹독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것은 북중경협이 확대와 시장화의 확산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 덕분이라는 것이다. … 종합시장은 다시 합법적인 존재로서의 지위를 회복했고, 시장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기조는 현재(2014년 9월 현재)까지 4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 시장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받으면서 시장화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 북한에서 시장이 없으면 주민들의 생존이 불가능하지만 권력층의 생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이다. 다른 측면도 있다. 이제 와서 시장을 없애려고 한들 과연 없앨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장을 없애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경제위기도 장기화되고 있지만 시장화 역시 ‘장기화’되고 있다. 시장 없는 북한 경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 물론 시장에 대한 정책이 통제 쪽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¹²⁵

¹²³ 정형곤·김병연·이석,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p. 3.

¹²⁴ 양문수, 『북한 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 함의』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p. 269.

¹²⁵ 양문수, “김정은 정권, 시장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 『IFES 현안진단』, No. 1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4).

I
II
III
IV
V

위의 주장들은 연구대상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립되는 견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연구들의 인식 기저에는 북한의 시장화 또는 시장질서가 확대되면 시장의 성숙도가 증대되어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이라는 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직간접적인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는 자원동원 이론의 인식 기반과 동일한 논리 구조이다.

박형중은 이 논리를 북한 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라며 그 공통된 인식과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경제학적 접근들은 북한에서 ‘시장’이라는 것을 기업과 가계 등 말단 경제주체들이 자력갱생차원에서 벌이는 “개인 간 교환의 수많은 사례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장의 개념은 사실상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시장 개념과 다르지 않으며, 시장은 정치체제 및 경제체제의 상이성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동일한 내용과 법칙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관념이 뒷받침되어 있다. 둘째, 이러한 ‘시장’은 중앙계획 또는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 공식경제 또는 계획경제의 영역 바깥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후자와 (일부 상호 연계의 강화 및 공생관계 형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된다. 계획경제 또는 공식 부문은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받지만, 비공식부문 또는 시장은 국가의 통제와 관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같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순수 경제적인) ‘시장법칙’이 관철되는 영역으로 상정되고 있다. 넷째, 시장활동의 주체가 (가계와 기업과 같은) “말단경제 주체”로 상정되어 있고, 시장활동이란 이들이 벌이는 생계형 유통 및 생산활동을 의미한다. 다섯째, 이상의 명제들이 시사하고 있듯이, 북한 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는 시장을 대체로 북한 사회 내의 권력과 권력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인식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설정에서 ‘정부’와 ‘시장’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며, 관계가 있을 때는 상호 외생변수로서 관계를 형성한다. 이 용어는 예를 들어 북한이나 한국의 시장연구에 구별 없이 사용될 수 있다.¹²⁶

이러 북한 시장에 대한 총체적 해석을 위한 “정치학적 접근”을 제기한다.¹²⁷ 먼저 박형중은 “시장의 구조와 작동은 권력과 권력관계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은 정치적 단위”라며, 북한 시장연구에서 경제학적 접근의 분석과 비교되는 정치학적 접근 연구의 주요 논리와 명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첫째, 시장화의 주역은 주요 정권기관, 둘째, 북한 시장의 위계적 독과점적 구조, 셋째, 시장 구조의 위계성과 구조화된 약탈, 넷째, 북한 경제 이중구조론(공식/비공식)에 대한 회의, 다섯째, 북한정권이 안보에 기여하도록 시장 확대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조절, 여섯째, 개인독재의 정치구조와 경제제도 및 시장 특성, 즉, “정치권력 구조에서 권력이 개인독재자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는 것과 하부 권력체계가 ‘유일적’ 위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경제 및 시장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¹²⁸

이 논리에 따르면, 북한의 지도자와 정권기관은 자신들의 절대적인 권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구조, 특히 시장 확대를 정권 유지 및 특권층에 기여하도록 재구성했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은 결국 독재정치에 맞물릴 수 있도록 위계적으로 구조화되고, 시장 확대 과정에서 이를 교란할 수 있는 경향이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끊임없는 정치적 간섭

¹²⁶-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한국정치학회, 2012), p. 212.

¹²⁷-그가 경제학적 접근과 구별되는 정치학적 접근을 소개하기 위해 활용한 선행연구는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통일연구원, 2011); 최봉대, “북한의 시장활성화와 시장세력 형성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한반도 포커스』, 제14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홍민, “북한 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수령경제와 시장세력을 중심으로,” 『KDI 북한 경제리뷰』, 2002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2)이다.

¹²⁸-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 pp. 213~220.

을 통해 시장구조는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재편된다. 즉, 북한의 시장은 북한체제의 구조를 반영하여 작동하기에, 권력 밖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결과가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되지 않으며, 무기 발전이나 통제기구 비용 등 체제유지를 위한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특권층의 특혜구조 지속을 위한 충성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정치적 기회구조론에 따른 북한변화

북한연구학계에서 북한변화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많은 선행연구가 있는 것이 정치과정과 정치적 기회구조 시각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는 정치학계의 논의이다. 북한변화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최근 대표적 선행연구는 2013년 12월 장성택 사형을 소재로 한 논의이다. 그 원인과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리더십 문제와 이권 및 조직을 둘러싼 지배엘리트 계급 갈등론이 2013년 말에서 2014년 북한학계에 주요 화두가 되었다.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세력갈등론’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박형중이고, 장성택이 애초 북한정치체제에서 큰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기에 오히려 김정은 리더십은 강화되었다고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정성장이다. 이들은 정치적 세력 갈등의 양상과 향후 정치전망에 대해 다소 상이한 입장을 제기한다.

먼저 정성장의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성택 숙청이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심지어 이를 ‘급변사태의 신호탄’으로까지 해석했다. 이 같은 평가는 장성택이 북한 지도부에서 차

지하고 있던 위상에 대한 과대평가 및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에 대한 과소평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김정은은 2009년 2월부터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의 김정각 제1부국장과 김원홍 조직부국장을 통해 군부 엘리트들을 장악해왔고, 동년 4월부터는 직접 국가안전보위부장직을 맡아 당과 국가의 파워 엘리트들을 감시 통제해왔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심 파워 엘리트 중 장성택 추종 세력은 외부에서 추정하는 것처럼 많지 않고, 엘리트들에 대한 김정은의 장악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장성택 숙청 이후 당에서는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조연준, 김경옥 제1부부장들, 군대에서는 최룡해 총정치국장, 공안기관에서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내각에서는 박봉주 총리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체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김정일 사망 직후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 같은 예상과는 반대로 김정은은 대내적으로 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확고하게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 장성택 숙청은 김정일 사망보다는 훨씬 국내정치적 영향이 적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로인해 김정은의 개인절대 독재권력에 곧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¹²⁹

다음으로 박형중은 2013~2014년 초까지 한국에서 장성택 숙청 관련해서 ‘이권 갈등론’과 ‘권력 갈등론(정치적 권력 투쟁론)’이 대립하는데, 이권 갈등론은 권력 갈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권력 갈등론은 이권 갈등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다며, 장성택 숙청의 배경은 세습과정과 맞물린 “수령독재에서 이권 갈등과 권력 갈등이 복합적으로 전개”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즉, “세습 과정은 새로운 수령을 중심으로 통치연합을 재구성하는 과정, 다시 말해 권력과 이권을 재편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이 과정에 들어가면 평시보다 권력 및 이권 갈등이 현저히

¹²⁹ 정성장,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국방연구』, 제57권 제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pp. 1, 22.



증가한다. 김정은으로의 세습 과정에서 권력 및 이권 갈등의 핵심 축은 두 가지였다. 그 하나는 권력 세습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 세력이 또는 후견 세력이 되는가였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그동안 팽창한 군부의 무역활동을 억제하고 수령경제를 강화시키는가였다. 장성택은 이 두 가지 사안과 관련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서 득세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역할 때문에 숙청되었다”는 논리이다.¹³⁰ 그의 핵심 논거와 전망 예측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권력 세습 과정에서 증폭하는 권력 및 이권과 관련된 갈등을 관리하는 데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선택이 달랐다. 김정일은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장성택을 앞세워 기존 ‘선군시대’에 득세했던 세력, 다시 말해 군부와 조직지도부를 견제하면서 후계자에게 길을 터주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장성택이 행정부의 권한과 이권이 현저히 팽창하는 가운데 조직지도부와 군부가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았던 것을 통해 나타났다. 그런데 장성택의 확대된 권력은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김정은은 그간 장성택의 세력팽창 과정에서 야기된 장성택 대 조직지도부 및 군부와의 갈등 관계를 활용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장성택을 제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은은 결과적으로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포함하는 과거 고영희-이제강 계열에 가장 크게 의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¹³¹

장성택 숙청 이후 그가 관장하던 권력 기구와 경제 이권은 김정은, 조직지도부와 군부 사이에 재분배된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¹³⁰-박형중 외, “수령독재 하에서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 그리고 장성택 숙청,”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14), p. 2.

¹³¹-그는 고영희-이제강 계열을 장성택 숙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황병서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대표적 인물로 지목하고, 특히 황병서가 2014년 3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4월 26일에는 차수 및 당중앙군사위 위원으로 급속하게 승진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최용해 총정치국장의 지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추론한다. 위의 글, p. 22.

숙청의 가장 큰 정치적 수혜자는 조직지도부일 것이다. 행정부는 해체되어 조직지도부에 흡수당했으며, 조직지도부 계열 인물이 수령 산하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했다. 권력 세습 과정에서 군부는 견제당하고 상당한 수준의 인적 재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김정은 치하의 새롭게 형성된 군부 지도부는 대체로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장성택 숙청의 가장 큰 경제적 수혜자는 군부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그간 장성택 주도로 추진되어오던 군부의 무역을 제한하고 외화벌이를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던 정책이 적어도 당분간은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간 장성택에게 빼앗겼던 경제 이권을 대부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현실에서 노동력과 조직력, 그리고 자금을 겸비한 군부는 김정은에게도 경제적으로도 불가결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김정일의 정책은 군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장성택의 경제력을 키워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장성택의 경제적 ‘소왕국’이 붕괴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경제적으로 더욱 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¹³²

대표적인 두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변화 여부와 관련해서 가장 뜨겁게 그리고 반복해서 논쟁되는 중심 주제는 지배엘리트 갈등, 리더십, 국제정치 환경을 포함한 권력구조 등 북한변화에 대한 정치적 층위의 변화이다. 이러한 분석들은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기회구조 시각에서의 접근에 기초한다. 애초 이 논의는 정치사회학 분야의 사회운동 시각에서 발전하였는데 사회운동의 발전 또는 변화의 추동력을 의미하는 ‘정치적 기회’ 또는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이론은 1970년대 우세했던 집단운동에서의 자원동원 시각으로부터 진화하였으나 1980년대 초 독창적인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그 핵심

¹³²- 위의 글, pp. 22~23.

I
II
III
IV
V

개념은 행위 주체들의 “성공 기회들(chances of success)”이다. 즉, 정치적 기회구조는 성공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도 개념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상호 인과적인 관계성과 해석을 내포한다. 최근 정치적 기회구조 이론은 집합행동 이론을 수렴하면서 주체적 변화를 해석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 활용된다.¹³³

대표적으로 1978년 『동원으로부터 혁명으로(*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라는 톨리(Charles Tilly)의 저작은 자원동원의 중요한 설계일 뿐만 아니라 정치과정 모델의 아버지로 평가된다. 정치적 기회구조 이론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고전적 자원동원 이론으로 인용되기도 하는 이 저서는 이익, 조직, 동원, 기회(interests, organization, mobilization, and opportunity)라는 네 가지 변수의 조합을 통해 집합행동 이론 발전에 기여했다. 이후 정치과정으로 통합된 그의 ‘정체 모델(polity model)’은 정체 진입을 규제하는 정치적 기회구조 개념을 통해 사회운동과 제도적 행위자들 간 정치적 연합과 연계에 관심을 두었다.¹³⁴

정치적 기회구조 이론에 따르면, 만일 현실의 구조와 시스템에 내외부의 도전에 공격받기 쉬운 상황이나 환경이 전개된다면, 정치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기존의 위계적 시스템 상·하위에 있던 사람 또는 집단들에게 성공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사회적 구조 변동이 가능하다는 명제에 기초한다. 또한 그 역의 명제도 성립한다. 즉, 현실 구조가 도전에 공격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기존의 시스템을

¹³³-Karl-Dieter Opp, *Theories of Political Protest and Social Movement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Critique, and Synthesis* (Abingdon, UK and New York: Routledge, 2009), p. 161.

¹³⁴-Charles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1978).

구성하는 위계구조에 변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때 정치사회적 성공의 기회는 창출되기 어렵다.¹³⁵

이 이론은 “사회운동들은 잠재적 집합행위자들이 상황이 우호적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발생할 개연성이 가장 높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면서 정치적 기회의 우호적인 구조들에 초점을 맞춘다. 대표적 학자는 맥아담(Doug McAdam)이며 주요 이슈는 억압의 영향력 쇠퇴, 정치엘리트의 지배권력이 내부의 분열에 의해 침식될 때, 정치과정에서 제도적 참여에 접근 확대 등이다. 정치과정 분석의 전통과 연결된 정치적 기회구조는 자원동원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나타났다. 자원에 대한 과대한 역할, 동원에서 엘리트 권력 선호에 따른 편향, 특히 불만·자원·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확장된 맥락에서의 정치적 요인들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간과 등이다.¹³⁶

정치과정은 동원과 정치에 대한 고전적 집합행위 이론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사회운동을 정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제도 유형과 더 밀접하게 뒤얽힌 정치의 또 다른 형식, 또 다른 표현으로서 동원/사회운동을 인식해야 함을 제기한다. 즉, 운동은 비합리적 폭동이 아니며 자원의 기업가적 계산의 결과도 아니라며, ‘운동을 대중과 정치제도 간에 고리를 제공하는 또 다른 정치’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맥아담은 정치적 기회가 단지 사회운동의 발생과 발전에 유용한 수많은 자원들 중 하나라는 주장에 대항할 것을 경고했다.¹³⁷

¹³⁵-Sidney Tarrow,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Second Edition.*

¹³⁶-Suzanne Staggenborg, *Social Movements*, p. 19.

¹³⁷-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26.

정치적 기회구조론은 제도화된 정치시스템의 특성을 주목하는 정치적 기회구조가, 운동행위자들이 그들의 동맹자들과 반대자들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투쟁변수들 중 가장 설명력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주장한다. 그 함축적 인과성이 기존 정치시스템 으로부터 동원에 확장된 기회들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맥 아담은 정치적 기회구조에 자원과 조직적 고려를 통합하여 ‘정치과정 모델’이라 명명하면서, 기회가 집합행동/운동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가 “인지적 해방(cognitive liberation)”이라고 명명한, 기존 정치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는 도전자들(challengers) 사이에 의식 전환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정치과정론자들이 동의하는 바에서 기회의 결정적 유형 또는 분석범주는 정치시스템에서 정치엘리트 간 분열, 엘리트 동맹의 존재, 국가억압 능력의 쇠퇴, 그리고 열린 공간들이다.¹³⁸

북한변화의 주요 초점으로 가장 논쟁이 활발한 정치적 층위의 변화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기회구조론적 발상에 입각하여 북한변화와 불변, 체제 붕괴와 지속의 주요 논거를 제기한다. 지배엘리트의 갈등, 자원배분 및 이익을 둘러싼 동맹과 갈등, 리더십 변화, 당·군·내각 등 세력 역학 및 제도 변화, 20세기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세계적 정치구조·질서 변화에 따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중국의 대북정책, 6자회담을 포함한 동북아 정치환경, 한국의 대북정책 등을 주요 논거로 한다.

¹³⁸-Doug McAdam, “Conceptual Origins, Current Problems, Future Directions,”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 23~40.

특히 북한연구에서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와 2011년 김정일 사망 전후로 권력승계, 엘리트 갈등, 배급제 불안 및 구조적 경제난 심화에 따른 정치적 불안, 국제적 정치환경에 따른 북한체제의 변화 여부를 진단하는 논리들이 이 이론에 기초해 있다. 이 인식들에 따른 북한 정치 변화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방향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첫째, 독재 정치 내 리더십과 엘리트 구조의 불안정성을 주목한 것이다. 북한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세습과정에서 수령제 시스템의 작동 여부 문제, 정치적 정당성 확보 문제, 이권 및 권력 투쟁과 정책 갈등 등으로 인한 지도부 내 분열 여부 등이 주요 논쟁 주제가 되었다.

둘째, ‘경제제도가 붕괴하면 정치제도도 붕괴한다 vs 북한의 수령제 시스템은 경제시스템과의 독립성을 가지고 작동하기에 체제 내구성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는 식의 논쟁구도이다.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하부 구조인 경제구조에 모순이 심화되면 그 영향이 상부구조에 미쳐 정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와 수령제 시스템의 견고함으로 경제가 불안정해도 정치는 안정적이라는 논리의 대립이다.

셋째, 선행연구의 양으로 보면 가장 많은 국제정치 시각에서 분석한 동북아와 지구적 정치환경 및 중국, 미국,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체제 지속과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대립적 인식에 따른 논쟁들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른 연구들 중에서 2000년대 초까지 북한체제 변화와 관련되어 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주장 및 변화와 지속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주요 북한 정치학자들을 살펴보자. 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대표적 학자는 정성장, 이대근, 정영태 등이다.¹³⁹ 정

¹³⁹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 관계,” 『국가전략』, 제7권 3호 (세종연구소, 2001); 최진욱, “북한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제4권

I
II
III
IV
V

치경제적 시각에서 북한체제의 변화와 지속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박형중, 박순성, 김연철 등이다.¹⁴⁰

북한체제에서 당 우위 담론은 지속하고 있지만 북한의 현실정치에서 당 시스템은 이완되었고 당의 위상 또한 약화된 반면, 국방위원회와 내각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진단하며 ‘군·정(軍·政)의 위상강화’를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김근식과 김갑식이다.¹⁴¹ 한편 이종석은 1997년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 및 군의 위상 강화를 주장하였으나, 2000년 연구들에서는 당우위의 지속성을 제기하며 ‘북한체제 불변론’으로 입장에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다.¹⁴²

2000년대 중반에는 북한체제가 생존 위기를 넘긴 상태에서 그 내구

2호 (북한미시연구소, 2001);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 (북한미시연구소, 2001);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을까』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2); 정영태, 『북한의 국방위원장 통치체제의 특성과 정책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¹⁴⁰ 박형중, 『북한의 변화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1);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2);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 변화』 (파주: 해남, 2004);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2002).

¹⁴¹ 김갑식, “김정일의 선군정치: 당·군 관계의 변화와 지속,” 『현대북한연구』, 제4권 제2호 (북한미시연구소, 2001);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한국정치학회, 2002).

¹⁴² 이종석, “북한의 군사국가화 경향,” 『한국정치학회 1997년 연례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정치학회, 1997); 이종석, “김정일 시대의 조선노동당,” 이종석·백학순,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서울: 세종연구소, 2000);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2000년 발표한 연구물에서 그는 북한체제의 위기 수준 평가를 위해 급변사태 가능지표와 점진적 변화지표 두 가지로 위기지표를 크게 나누고, 낮은 수준의 위기부터 한계수준의 위기(1-4단계)까지를 검토하는 계량적 연구를 하였다. 그는 급변사태 가능지표를 군부상황·정치상황·경제상황·사회상황·대남정보 차단정도 등 5개 분야 6개 지표로 구분하였고, 점진적 변화지표를 정치상황·경제상황·사회상황·체제정통성·대외분야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북한의 점진적 위기진행 지표를 보면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나, 급변사태 가능지표를 보면 식량문제를 제외하고 위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하였다.

력을 평가하는 연구와 체제운영의 구조적 특징을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당시 북한의 체제 유지 내구력을 주장한 대표적 연구물은 전현준 외,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서울: 통일연구원, 2006); 전현준 외,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8)이다.

한편 박영자는 1990년대 이래 북한의 지방 국가기관 운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중앙에 의한 지방 통제가 이완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주목하였다. 그럼에도 지방과 생산현장에서 당기관에 의한 국가기관 통제는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 지방 국가기관 운영의 지속성과 변화를 “수평적 통제의 지속과 수직적 통제의 이완”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사회적 저항이 드러나지 않는 요인을 각종 통제제도의 작동에서 찾았다. 즉, 주민생활 및 사회 통제의 지속이라는 것이다.¹⁴³

그리고 북한체제의 변화성격을 이념형적으로 규명한 박형중은 1980년대 말까지 북한의 정치체제는 전체주의와 극단적 개인독재를 의미하는 스탈린주의의 결합이었는데, 1990년대 이래 “탈-전체주의적 스탈린주의적 폭정으로 변화” 했음을 밝힌다. 그 원인으로 경제난 속에 계획경제 및 배급제 붕괴, 그 여파로 인해 당조직이 담당하던 조직과 사상 통제의 붕괴를 지목한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전체주의적 지배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며, 전체주의에 의해 강화되거나 제한받던 스탈린주의적 측면도 변화 압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탈-전체주의에 따른 지배력의 약화에 대해 북한정권은 공안기구의 강화 그리고 공개처형 증

¹⁴³ 박영자, “북한 지방 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중앙권력의 이중통제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05), pp. 303~323.

I
II
III
IV
V

가와 같은 본보기적 국가폭력 행사의 강화로 대응했다. 탈-전체주의적 폭정이 등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심각한 국가 실패 현상 가운데서도 강력한 억압기구를 유지한 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논리이다.¹⁴⁴

2000년대 말부터 다시 북한변화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2002~2003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종합시장제 등으로 대표되는 김정은 정권의 부분개혁 정책이, 정책적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2005년 이후 후퇴하여 통제 및 처벌 강화의 보수적 정책이 재구성되고, 그 효과 및 파장이 북한 지역 및 사회 전체적으로 드러나며 중앙권력이 각 지역의 외화벌이 기지를 통폐합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것이었다.

특히 정치과정론 시각에 따른 논의는 2008년 김정일 병세 악화 이후 김정은 정권의 집권 3년차인 2014년 현재까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 북한체제에 대한 탈사회주의 체제, 탈권위주의 체제, 가산제 독재체제 등의 개념화와 함께, 저발전 독재정권의 다양한 유형을 북한과 비교하며 북한체제의 변화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발전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 북한에 시장화로 인한 체제 성격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및 저발전 독재정권의 자본주의 경제운영과의 비교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안보 및 국제정치를 연구했던 해외학자들의 북한문제 연구 성과들이 쌓이면서, ‘북한변화 vs 불변’ 논쟁이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 수준에서도 이루어졌다. 특히 북핵 문제가 곧 김씨 가문의 정권세습과 깊은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¹⁴⁴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치체제 변화: 전체주의 겸 술탄주의로부터 탈전체주의적 술탄주의 폭정으로,” 『정책연구』, 통권 168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p. 104.

3대 세습과 관련하여 김일성 직계에 의한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vs 불변’, ‘붕괴 vs 지속’, ‘안정 vs 불안정’ 논쟁이 점화되었다. 특히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김일성 민족’의 지속여부에 관심이 많은 미국을 중심으로 ‘변화 vs 불변’ 논쟁이 있었다.

대표적 북한변화론자는 놀란드(Marcus Noland), 리트와크(Robert S. Litwak), 만소로프(Alexandre Y. Mansourov), 맥이천(Patrick McEachern) 등이다. 이들은 북한의 경제위기와 시장경제 흐름, 사회적 저항을 초래한 통제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독재정치의 구조적 취약성을 주목했다.¹⁴⁵ 대표적으로 놀란드는 사회적 저항을 초래한 통제구조의 취약성과 시민사회의 자율성 증대를,¹⁴⁶ 만소로프는 “독재정치는 사적 충성과 소유권 계승의 라인들을 따라 균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권력승계 투쟁들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했다.¹⁴⁷ 맥이천은 김정일 정권 시대 북한을 이념적이며 전체주의적인 통제구조가 약해진 탈전체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을 당, 군, 내각 등 정치행위자들 간의 이권과 권력 투쟁 시각에서 관료정치 및 분할정치(segmentary politics)로 해석한다.¹⁴⁸

¹⁴⁵-Marcus Noland,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4); Robert S. Litwak, *Regime Change: U.S. Strategy through the Prism of 9/11*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7); Alexandre Y. Mansourov, “Emergence of the Second Republic: The Kim Regime Adapts to the Challenges of Modernity,” Young Whan Kihl and Hong Nack Kim (eds.), *North Korea: The Politics of Regime Survival* (Armonk, N.Y.: M. E. Sharpe, 2007)

¹⁴⁶-Marcus Noland, “North Korea: The Tyranny of Deprivation,” Robert I. Rotberg (ed.), *Worst of the Worst: Dealing with Repressive and Rouge Nations* (Washington, D.C.: World Peace Foundation/Brookings Institution, 2007), p. 102.

¹⁴⁷-Alexandre Y. Mansourov, “Emergence of the Second Republic: The Kim Regime Adapts to the Challenges of Modernity,” p. 51.

대표적인 불변론자로 분류할 수 있는 학자들은 킬(Young Whan Kihl), 브라운리(Jason Brownlee), 바이만과 린드(Daniel Byman and Jennifer Lind)이다. 이들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권력세습 과정에서 김정일의 생존경험과 독재의 지배제도들을 강조하며 북한체제의 지속성을 주장하였다.¹⁴⁹ 그들은 그 체제의 내구성이 오랜 지배와 강제 제도들(persistent ruling and coercive institutions), “인민 봉기와 내부 쿠데타 둘 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권위주의 도구들 (a variety of authoritarian tools to protect itself both from popular revolt and from internal coups)”에 의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¹⁵⁰ 북한연구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국제학계의 논점은 1998년 이전 한국 북한연구학계의 논쟁구도와 유사한 ‘변화 vs 불변’ 또는 ‘붕괴 vs 지속’이라는 대립적 구도를 보여주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북한학계를 중심으로 2008년 김정일의 와병 이후 체제 내구력과 지속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다가,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 이후 체제 지속성과 불안정성 관련 논의가 다시 쟁점이 되었다. 북한체제 내부 상황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력이 해외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북한연구자들은, 지속과 변화라는 두 측면의 요인을 구별하며 무게중심에 따라 김정은

¹⁴⁸-Patrick McEachern, *Inside the Red Box: North Korea's Post-Totalitarian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¹⁴⁹-Young Whan Kihl, “Staying Power of the Socialist Hermit Kingdom,” Young Whan Kihl and Hong Nack Kim (eds.), *North Korea: The Politics of Regime Survival* (Armonk, N.Y.: M. E. Sharpe, 2007);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 59, No. 4 (2007); Daniel Byman and Jennifer Lind, “Pyongyang’s Survival Strategy: Tool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2010).

¹⁵⁰-Daniel Byman and Jennifer Lind, *Ibid.*, p. 44.

체제의 안정과 불안정 두 측면을 모두 전망하였다.¹⁵¹

그러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북한 정세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에 추대되는 전후 전개 과정을 진단한 후, 북한 연구자와 전문가 대부분의 판단은 김정은 체제의 공식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소 집권 3년을 기점으로 한 체제 진단에 기초해, 지속론과 변화론으로 상이한 전망이 대립되기도 하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식으로 동시에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⁵²

대체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요인으론 내구력 있는 수령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등 이데올로기 학습효과, 김정일이 제도화해 놓은 세습권력의 선행 역사, 김정은 체제를 대신할 대안 부재 등이 논거로 제기된다. 반면, 불안정 요인은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 권력엘리트 세력 간 이해와 정책적 갈등 가능성, 북한 사회와 주민의 변화, 자체로

¹⁵¹- 대표적 안정론자는 정성장이며 불안정론자는 백승주였다. 정성장,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후계문제 및 권력체계 변동,” 『정세와 정책』, 179호 (세종연구소, 2011); 백승주, “김정은은 권력승계 2년차, 3대 관전 포인트,” 『신동아』, 626호 (동아일보사, 2011).

¹⁵²- 이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박영자, “독재정치 이론으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국방정책연구』, 제28권 4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통일정책연구』, 21권 1호 (통일연구원, 2012); 백승주, “김정은 체제와 대남정책: 전망과 대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화문제연구소 공동세미나 자료집』 (2012.4.20); 이기동,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유일지배체제’ 균열 가능성 검토: 권력엘리트 간의 수평적 균열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2.4.23); 박형중, “북한 권력구조와 정책 방향 전망,” 『통일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통일연구원, 2012.1.18); 이정철, “조선로동당 3차 당대표자회의와 김정일 후계체제,” 『유라시아연구』, 8권 1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1); 정영태, “김정은 세습후계체제의 특성과 대내외 정책 전망,” 『전략연구』, 18권 2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한기범, “권력승계 시기 북한의 지배구조와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정책연구』, 19권 2호 (통일연구원, 2010) 등이다. 한편 김갑식은 김정은 체제 향후 3~4년 상황에 대해, “김정은 정권 안정화 진입론’과 ‘권력투쟁 발생 필연론’이 각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p. 3.

I
II
III
IV
V

해결할 수 없는 경제위기, 국제적 압력 등이 주요 논거로 제기되었다.

이 시기 북한 권력엘리트들 매개로 한 정치적 기회와 위협 관련 논쟁에서, 북한체제의 통제기구와 충성의 경쟁제도 안정성에 주요 근거로 작용한 대표적 주장은 현성일¹⁵³의 논리이며, 권력엘리트들의 이권 갈등과 수령독재에 대한 관료들의 자율성 확대 주장은 한기범¹⁵⁴과 박형중¹⁵⁵의 논리였다. 특히 그간 북한변화 연구들이 “정치신념적 경향성의 그늘 하에서 현존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된 역사를 짚어 보며, “정치신념적 경향성을 극복해 내고, (북한) ‘변화’ 연구를 학문적 분석과 논쟁의 영역으로 복귀”시키는 과제를 제시한 박형중은 1990년대 이후 2009년까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시도했다.¹⁵⁶

주요 내용은 전체주의로부터 폭정으로의 변화, 권력기관별 역할 및 위세 변화, 경제적 잉여분배와 조정기제 다양화, 사회적 분화와 균열 등이다. 그리고 북한정권과 사회 모두가 변화선상에 있고, 사회의 변화 및 진화 양상에 따라 정권의 통치양식도 그에 맞추어 적응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북한 일면적 안정론 또는 일면적 붕괴론을 벗어나 “북한 내에 존재하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권 대 사회가 어떠한 동태적인 갈등과 타협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포착하게 해줄” 정치, 경제, 사회 및 그 관계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고 제기한다.¹⁵⁷

153-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154-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55-박형중 외,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156-위의 책, p. 10.

157-위의 책, pp. 10~11.

이 문제의식은 김정은 정권의 향후 전망 예측과 대북정책 도출에도 활용되었다. 대표적으로 박형중은 북한이 2009년 이후 권력세습 위기, 2차 핵실험 후 대외관계 위기, 내부통치 위기 또는 ‘정권 vs 사회’ 간 긴장 강화라는 세 가지 대내외 생존여건 악화 상황에 있다며, 이 상황에서 북한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두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분석을 시도한다. 한편으론,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북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변화 추동인자 및 동력을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향후 5년간 북한체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향후 북한문제는 핵문제 관련 전략적 재타결 여부와 북한정권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개혁 또는 반개혁 정책/노선을 실시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진단한다.¹⁵⁸

또 다르게 주목할 연구로 경제위기 속에서도 북한체제 유지의 보루라고 평가되는 북한군의 변화 실태를 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을 병행하여 치밀하게 분석한 이교덕 외(2011)의 『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국가의 억압능력 쇠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북한군의 기강해이 실태를 분석하였다.¹⁵⁹ 먼저 북한군을 대상으로 북한 당국이 2000년 이후 발간한 정신교육용 ‘학습제강’과 ‘선동자료’ 등 북한 당국의 비밀자료와 ‘군인생활’ 등 공식발간물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북한 군인들의 기강해이 유형을 김정일의 지시 이행 태만,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 대민피해, 부대 내 음주, 구타, 탈영, 기밀누설, 서구풍조 및 남한문화 만연 총 8개로 구분하여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¹⁵⁸- 박형중 외,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향후 5년(2012~2016)간의 정세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¹⁵⁹- 이교덕·정규섭·이기동, 『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1).

I
II
III
IV
V

그리고 탈북군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를 통해 각 유형에 대해 매우 많았다/높았다(5점), 대체로 많았다(4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적었다(2점), 거의 없었다(1점)라는 5점 척도로 그 실태에 대한 기초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 결과(평균치),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4.00),¹⁶⁰ 군수물자 착복과 유용(3.30), 대민피해(3.28), 부대 내 음주(3.16), 구타(2.80), 탈영(2.73), 기밀누설(2.17), 서구풍조 및 남한 문화 만연(2.31)로 군인들 사이에 일탈행위가 광범위하고 불만이 매우 높지만,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대의 사기 및 사상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직 아니라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에 대한 질적 분석과 사회연결망 프로그래밍으로 김정은 체제 권력엘리트의 특성과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이다.¹⁶¹ 권력엘리트들의 단합/분열이 김정은 체제의 착근/안착 여부, 그 안정성에 있어서 핵심 변수임을 주목한 이 연구는 북한 권력엘리트의 갈등 분석에 유용한 정책경향모델, 관료정치모델, 파벌주의-권력모델, 후원자-추정자 관계모델 등의 유용성에 기반하여,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 특징과 구조, 상호네트워크 등을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03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를 네 시기로 구분하여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 지지도 수행을 통해 형성되는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엘리트들의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의 변화 추이를 종합하며, 김정은 시대 엘리트 간 응집력이 김정일시대보다 커졌으며, 그 구심점에는

¹⁶⁰-이를 기준으로 김정일의 지시 이행 태만 정도를 역측정하였다.

¹⁶¹-이교덕·임순희·조정아·송정호,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최고지도자 1인뿐만이 아니라 장성택, 최룡해와 같은 특정 엘리트들의 연합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높은 위세중심성을 나타낸 엘리트들의 시기별 변화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으로 엘리트들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특히 군부와 새롭게 부상하는 엘리트 집단으로 40~50대 핵심 보안기관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세대 변화 추이를 밝혔다.

한편 타로우와 메이어의 연구성과¹⁶²에 기반해 본격적인 정치적 기회구조 시각에서 최근 북한변화를 분석한 연구로 박영자의 김정은 정권의 파워엘리트 관계 구조와 그 변동가능성·불안정요인·안정요인을 진단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독재제도·소수 지배연합·관료 관계망과 권력-부 공생의 부패가 체계화되어 최소한 230여 만 평양주민 규모의 지지집단을 유지하며 정권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가산제 독재정치(patrimonial dictatorship)’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독재체제의 합리적 행위자 이론에 기반하여 김정은 체제의 엘리트 균열 양상을 지역단위 중하층 엘리트들과 내각 엘리트,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40대 이하 엘리트들 사이에서 드러난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지배연합 내부의 파워엘리트들의 네트워크 변동가능성과 정치적 기회구조를 창출할 균열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낮다고 평가한다.¹⁶³

또한 이를 발전시킨 연구에서 지배연합의 안정성 요인으로는 권력 엘리트들의 강한 네트워크와 혈연을 기반으로 한 세습권력으로 수령

¹⁶²-David S. Meyer, "Protest and Political Opportunit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0 (August 2004); Sydney Tarrow,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Collective Action and Politics*.

¹⁶³-박영자, "독재정치 이론으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국방정책연구』, 제28권 4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

I
II
III
IV
V

과 권력엘리트가 운명공동체로 엮여 있다는 점, 불안정 요인으로는 지배연합 네트워크 구조에서 아직 김정은의 수령독재 중심성이 확고하지 않다는 점, ‘짧은 수령의 실험과 관료의 불안’으로 인한 갈등을 지목한다.¹⁶⁴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 관련 상당수 국제정치학자들의 논리로 북한 변화 여부를 ‘국제정치적 환경’ 요인을 논거로 주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미국, 한국 등이 북한체제의 붕괴로 인한 국가 안보 문제 및 경제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그러저럭 견딜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논리들이다. 2000년대 중반 국제적인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을 전개했던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와 국내에서는 유호열(2007), 백승주(2007) 등이 대표적 논자이다. 당시 에버스타트는 대규모 기아와 경제위기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변하지 않고 지속하는 이유를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라고 비판했다.¹⁶⁵ 2005년 이후 동일한 논리의 비판들이 국내에서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며 전개되었다.¹⁶⁶

이명박 정부 집권 말기부터 2014년 현재까지는 동일한 인식구조에 따른 전혀 다른 비판이 전개된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의 10여 년에 걸친 대북제재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과 평가

¹⁶⁴ 박영자, “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 『국방연구』, 2013년 여름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3).

¹⁶⁵ Nicholas Eberstadt, “The Persistence of North Korea: What Has Been Keeping Pyongyang Afloat?,” *Policy Review*, Vol. 127 (October/November, 2004).

¹⁶⁶ 백승주, “북한 급변사태시 군사 차원 대비 방향,”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편,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유호열,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북한 급변사태,”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편,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이다. 국제사회가 실효성 없는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더욱 변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더불어 6자회담과 중국의 북한변화 관련 의지, 이익, 동원, 기회 능력 등이 논쟁되었다. 무엇보다 북한체제가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로 중국의 존재를 지목한다. 대표적으로 이종석의 논리를 살펴보자.

미국은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해 제재를 주도하고 있지만, 이를 비롯하거나 하듯 북한 경제는 오히려 완만하게나마 나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제재기간 동안 더 강화되고 그들의 핵 보유 의지도 더 커졌다. ... 북한 경제의 생명줄이 되고 있는 북-중 교역은 지난 4년 간 244% 증가해 2013년에는 65억 달러를 넘어섰다. 대북제재 전인 2008년 북한의 대외교역 총액의 거의 1.2 배에 달하는 규모다. 북한의 실질적인 1인당 국민소득을 600달러 정도로 추정하면 북한 국민총소득(GNI)의 45% 이상이 북-중 간 공식 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래에 대한 이해가 서방과 다르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북-중 경제관계의 확대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¹⁶⁷

한편, 정치적 기회구조 시각에서 북한변화를 진단한 황장엽은 북한에서 독재정권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였을 때 선봉에 설 수 있는 집단으로 “군대의 하층 병사들과 제대군인들”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들 역시 세뇌교육과 강제로 하여 속아 살고 있지만 기는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여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막강한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김정일과의 동맹관계를 끊기만 하면 이들의 쫓기를 막을 힘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⁶⁸

¹⁶⁷-이종석, “한·미의 대북정책, 안녕한가?,” 『중앙일보』, 2014년 9월 30일, 35면.

정치적 기회구조 이론은 전 시대를 풍미한 자원동원 이론의 (자원) 결정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하였으며, 행위자와 구조를 결합시키며 발전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정치과정 이론가들은 그들의 모델에 문화적 다이내믹스(cultural dynamics)를 결합하며 프레임 이론을 발전시켰다.¹⁶⁹ 그러나 더 이전으로 거슬러가면 사회운동에 프레임 접근은 자원동원 또는 정치과정 이론이 그 분야에 헤게모니를 발휘하던 1980년대 초중반부터 관심이 증대되었다. 프레임 접근은 의미구조, 불만의 전략적 프레임, 상징적 담론, 미시동원 과정 (strategic framing of grievances, symbolic discourse, and micro-mobilization processe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은 정치과정 방법론의 표준적인 도구상자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최근 정치과정 모델 학계는 정치적 기회구조 이론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에 자원동원과 프레임 이론을 배치하는, 세 가지 이론적 모델들의 느슨한 조합으로 구성된 종합적 분석을 선호한다.¹⁷⁰

한편 정치적 기회구조 분석가들 사이에 이론을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운동활동을 촉진하는 어떤 환경적 요인이 정치적 기회로 개념화되기 쉬워”서 기회가 제대로 해석되기 보다는 개념이 과장되어 혼돈을 유도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¹⁷¹ 더 나아가서 행위자 및 행위체를

¹⁶⁸-황장엽, 『북한민주화와 민주주의 전략』 (서울: 시대정신, 2008), p. 36.

¹⁶⁹-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¹⁷⁰-Ruud Koopmans,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Some Splitting to Balance the Lumping,” *Sociological Forum*, Vol. 14, No. 1 (1999), pp. 93~105.

¹⁷¹-Doug McAdam, “Conceptual Origins, Current Problems, Future Directions,”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간과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경험적으로 볼 때, 기회라는 요소를 너무 중시하는데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불만과 자원들이 기회의 역할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행위자를 포괄하는 행위체(agency)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오늘날 정치과정 이론에서 보는 최고의 방법은 불만과 기회의 닫힌 창 또는 열린 창을 정의하는 더 큰 맥락에 따라, 어떻게 동원의 특성과 수준이 영향을 받는가 여부라며, 행위체를 구조의 맥락에서 이해할 것을 제기한다.¹⁷²

전체적으로 정치적 기회구조는 ‘정치적 지형’이나 ‘정치판을 둘러싼 환경’으로도 정의할 수 있으며, 정치변동의 행위자 대 구조 논쟁에서 행위자들의 행동을 정치적 기회들의 구조라는 맥락에서 분석하여 행위자와 구조를 결합시킨 이론이다. 그러므로 변동이론에서 ‘행위자 vs 구조’라는 전통적인 대립 시각을 벗어나 이 둘을 수렴시킨 이론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¹⁷³ 또한 운동행위자들의 비용-편익 셈법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정치과정 이론이 동원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게 하였으며, 합리적 선택이론이 그 이론의 배경으로 적용하도록 했고, 자원으로서 기회와 기회로서 자원 개념을 결합시켰다.¹⁷⁴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25.

¹⁷²-David S. Meyer, "Protest and Political Opportunit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0 (August 2004).

¹⁷³-*Ibid.*, pp. 125~145.

¹⁷⁴-Karl-Dieter Opp, *Theories of Political Protest and Social Movement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Critique, and Synthesis*, pp. 177~178.

5. 프레임 이론에 따른 북한변화

2000년대 이후 탈북민의 급격한 증대와 이들을 통한 북한변화의 미시적 영역, 즉 개인들의 경험세계에 대한 심층조사가 발전함에 따라 의식과 문화적 층위에서의 변화 분석이 시도되었다. 시장화와 정보화 등으로 인한 북한 행위자들의 의식과 행위 변화,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들의 변화에 대한 논의들이다.

북한 주민의 문화적 변화와 관련하여 정보화 특히 한류의 역할을 강조한 대표적 선행연구자는 강동완·박정란이다. 이들은 남한 매체의 북한 유통 및 확산 경로를 탈북민 대상으로 추적하여, 북한지역에 광범위하게 한류가 퍼져있고 이 문화적 흐름이 북한 주민의 탈북 및 친남세력 확장, 남북 주민의 친화성 증대,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류 북한을 흔들다』에서는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내 유통구조, 북한 주민의 사상 이완에 미치는 영향과 남한 따라하기의 증대, 남한에 대한 환상 증대와 탈북에 미친 영향 등을 다루며 남한 영상매체 확산과 문화적 접촉으로 인한 변화를 제기한다.¹⁷⁵ 이어 『한류 통일의 바람: 한류 북한을 흔들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한류로 인한 대중화와 행동결집의 한계, 북한 선전과 남한 영상물의 기폭효과, 남한 영상매체의 시청 소감을 공유하는 북한 주민, 상상으로부터 남한 현실을 꿈꾸며 탈북하는 북한 주민 등을 소개하며, 한류가 “현재진행의 통일이야기”라고 주장한다.¹⁷⁶

¹⁷⁵ 강동완·박정란, 『한류 북한을 흔들다: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 (서울: 늘봄플러스, 2011).

¹⁷⁶ 강동완·박정란, 『한류 통일의 바람: 한류 북한을 흔들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명인문화사, 2012).

다음으로 2000년대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함께 변화한 북한 시스템 및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의식 변화 과정을 북한 주민의 민족의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박영자의 연구물이다. 이 연구는 북한 공식문헌에 대한 담론분석과 탈북민 심층면접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결합한 것이다. 북한 사회에 식량난과 시장발전, 다양한 자본주의적 정보순환을 통해 물질주의·개인주의적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탈집단화와 국가주의 약화가 드러나고, 생존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통제만 강화하는 정권에 대한 충성도·신뢰가 약화되며 불만의식이 높아지는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양상은 “인간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신념의 변화를 내재”한다며, 윤리적으로는 크게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및 가족이기주의로, 현상적 양태로는 탈집단주의·국가주의 약화와 체제이완을 초래하는 정권에 대한 불만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¹⁷⁷

더불어 이에 기반하여 북한 주민의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의 변화를 규명하였다. 주요 논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민족은 언어·풍습·생활양식·문화 등을 공유하는 집단이고, 국가는 경제체제 및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공동체라는 것이다. 언어 및 문화가 통해야 의사소통이 되고 합의가 용이하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였는데,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국가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민족과 국가가 구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민족과 국가의 공통점을 중요시 하는 인식은 전통적인 북한정권의 민족과 국가의 동질이데올로기와 연계되어 있는 생각들이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2000년대 북한 주민의 국가/민족 차이 인식은 정치·경제 체제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기능이 약해진 상황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 …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는 집단주

¹⁷⁷-박영자, “2000년대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민족의식,” 『정책연구』, 통권 17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p. 216.

I
II
III
IV
V

의 북한 사회에 균열이 발생하며, 북한 주민들이 국가와 민족을 분리하기 시작하고, ‘국가는 권력’-‘민족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으며, 신세대로 국경연선지역에 살며 다양한 정보를 흡수하고 장사경험이 많은 이들일수록 전통적인 북한의 혈연적 민족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와 인구이동 사회에서 아직도 핏줄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는 의식도 확대되고 있다.¹⁷⁸

그리고 정체성을 중심 화두로 하여 문화적 층위의 변화를 다룬 조정아 외의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연구이다. 이 연구는 “경제난과 2000년대 이후 시장화, 외부세계와의 접촉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경험과 삶의 공간을 확장시켰고, 이는 이들의 의식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 연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정체성의 특징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주제영역으로 의식변화의 내적 기제 및 개인적·집단적 정체성의 형성과 재구성이라는 개인 주체의 내면적·심리적 영역, 개인의 의식 속에서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대면하는가에 초점을 둔 국가의 통제와 주민의 대응, 사회변화가 가져오는 경험의 확장과 이로 인한 미시 권력과 정체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¹⁷⁹

이들은 최근 북한변화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주제로 떠오르며 관심을 받는 연구들로, 그 기저에는 직간접적으로 프레임 이론 또는 프레임 접근과 연계성이 있다. 현대 심리학과 경제학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프레임 분석은 사회학 분야에서 가장 발달하였다. 특히

¹⁷⁸-위의 글, pp. 225~2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언어와 풍습, 문화와 역사 등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식은 감정적 구조로 여전히 민족개념의 중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되 국가와 민족이 분리되기 어려우며 민족과 국가가 같아야, 하나의 뿌리로서 출발이 같기에 의사소통도 잘되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위의 글, p. 230.

¹⁷⁹-조정아·임순희·노귀남·이희영·홍민·양계민,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심리적·행동학적 탐구과정에서 진화하였다. 구조주의 언어학과 연결된 프레임 분석은 특히 담론분석, 커뮤니케이션, 정치, 언론, 사회운동 등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최근 정치학에서는 ‘정책 의제화’ 연구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

현대 프레임 분석은 1974년 고프만(Erving Goffman)의 연구를 통해 개념화되었다. 변화와 관련해서는 사회운동에 프레이밍 시각(framing approach)이 도입된 1980년대 중반 이후, 스노우(David A. Snow)를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상황 및 환경에 대한 진단, 예측, 동기부여 프레이밍 과정 등으로 발전하였다. 역사적으로 프레임 분석은 미시 사회학 분야를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구체적으로 세 분야의 성과가 수렴된 결과이다.

첫째, 외적 환경과 상황을 반영하는 내면화(internalization) 과정과 외적 작용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려는 개인의 자아, 그리고 외적 작용 및 개인 주체성의 상호 작용을 연구한 시카고대학 출신 미드(George H. Mead)의 사회적 관계를 통한 인간 행위연구의 성과이다.¹⁸⁰

둘째, 독일 현상학(phenomenology) 연구의 대표 학자인 후설과 슈츠(Edmund Husserl and Alfred Schütz)의 연구성과 및 미드의 상호 작용 연구를 진전시킨 1950~1960년대 블루머(Herbert Blumer)로 대표되는 상징적 상호 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의 연구성과이다.¹⁸¹ 프레임 분석의 중요 개념인 ‘상호 작용’은 단선적인 인과론이

¹⁸⁰-George H. Mead,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34).

¹⁸¹-Herbert Blumer,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9); Herbert Blumer, “Symbolic Interaction: An Approach to Human Communication,” Richard W. Budd and

I
II
III
IV
V

아닌 다양한 상황 및 환경들의 상호 호혜적 관계(a reciprocal relation)를 중시하는 것이다.¹⁸²

셋째, 구조주의 연구성과이다. 구조주의에 따르면, 구조(structure)는 “상호의존하고 상호관계에 의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이 결합된 현상들의 전체”이다. 구조들은 체계(system)의 구조이고 체계는 기능 하나 구조 자체는 기능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는 추상된 형식이 아니라 “체계를 의미화하는 내용”이다.¹⁸³ 체계 연구와 구별짓기 위하여 시스템을 작동원리를 표현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구조를 일정한 기준으로 나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구조는 체계의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분석은 변화 분석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구조주의의 대가인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에 따르면, 구조는 체계의 특성을 나타내며 하위 구조로 개념화할 수 있는 다수 요소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따라서 어떤 체제, 체계, 모델에서도 개별적 변화가 아닌 전체적인 변동을 동반한다. 다시 말해 구조들은 상호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일정한 패턴을 공유하면서 변화한다.¹⁸⁴

미시 사회학의 대표적인 두 가지 분석법인 상호행위주의와 구조주의 인류학이 수렴되면서 프레임 분석을 통해 구조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연구방법이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즉, “개인들의 경험에

Brent Ruben (eds.), *Approaches to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Spartan Books, 1972), pp. 401~419.

¹⁸²- Erving Goffman, *Encounters* (New York: Bobbs-Merrill, 1961), p. 35.

¹⁸³- Encyclopaedia Britannica,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2g2259a> (검색일: 2014.6.9).

¹⁸⁴- 그러므로 구조분석은 연구 대상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 또는 행동할 것인가까지를 예측 및 전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힘을 발휘한다. Claude Lévi-Strauss, 김진욱 역, 『구조인류학』 (서울: 종로서적, 1983).

의해 조직화되고 상호 연결된 사회적 실재(social entity)로서의 인식틀(frame)”이 정의되며, 일상의 다양하고 주관적인 특성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려 한 것이다.¹⁸⁵

예를 들어 북한의 핵실험이란 사건에 대해, 개별 인간이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집단은 그에 대한 대북정책으로 상이한 방식을 제기하곤 하는데, 그 다른 대응이 도출되게 되는 과정은 개별 인간과 집단이 그 상황을 인식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감각을 통한 객관적 상황이나 사건은 최소한 인간 사회의 선택과 행동의 현실단계에 이르러서는 결국 주관화되기 때문이다. 그 기저에는 개별 인간들이 놓여 있는 한 사회 내부에 환경의 상이함과 이해관계의 상이함, 그리고 경험 및 관계의 상이함 등이 상호 작용하며 작동된다.

한편 프레임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이 외부로부터의 작용을 받아들이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은 직간접적 경험 및 학습으로부터 형성된 언어로 전환되어 그 결과 이미지가 연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의 작용이 이해되거나 수용되기 때문이다. 즉, 외부적 감각이 관련 언어로 이해되고 그 결과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의 이미지가 연상되면서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을 결정 짓게 되는 것이다.¹⁸⁶

이런 특성 때문에 한 집단 내 사람들이 유사한 생각이나 판단을 하는 집단 문화를 프레임의 집합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사람들의 정치적 저항과 집합행동을 프레임 분석이나 프레이밍 전

¹⁸⁵- George Gonos, "'Situation' versus 'Frame': The 'Interactionist' and 'Structuralist' Analyses of Everyday Lif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2, No. 6 (December 1977), p. 854.

¹⁸⁶- David A. Snow, Rens Vliegthart, and Catherine Corrigan-Brown, "Framing the French Riots," *Social Forces*, Vol. 86, No. 2 (December 2007), pp. 1~32.

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북한변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집합 행동 프레임은 “저항을 촉진함에 중요한 의미들과 아이디어들을 장악하는 방법들”이다.¹⁸⁷ 프레임은 정체성이라고도 표현된다. 따라서 “집단 정체성은 운동에 개인들을 연결하는 데 공유된 경험과 가치”의 감정을 증시한다. 그리고 운동 참여자들에게 그들이 집합행동을 통해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과 집단 행위체(agency)의 감성(sense)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⁸⁸

프레이밍 접근은 68세대들의 신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발전하였다. 신사회운동의 특징은 발전한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반작용 차원에서 전개된 운동이다. 따라서 경제와 물리적 안보를 강조하는 물질주의적 가치들보다 삶의 질과 자기표현에 초점을 맞춘 탈물질주의 가치들을 증시한다.¹⁸⁹ 특히 자원동원과 정치과정 이론의 구조적 편향(structural bias)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대두되었다.

자원동원 이론의 경우 자원이 있다면 동원이 뒤따를 것이라는 내부로부터의 결정주의(determinism) 오류, 정치과정 이론의 경우 기회들이 우호적이라면 집합행동이 발생할 것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오류이다. 이 오류들로부터 자원동원과 정치과정 모델에 사회심리학을 결합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맥아담의 ‘인지적 해방’ 개념 등이 도출된 것이다.

또한 프레이밍 이론은 사회심리학적 통찰로 자원동원 이론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운동에서 사회심리학의 재통합적 요소들의 필요성을 느낀 사회구성주의자들로부터 프레이밍 이론이 발전

¹⁸⁷- Suzanne Staggenborg, *Social Movements*, p. 20.

¹⁸⁸- *Ibid.*, p. 22.

¹⁸⁹- *Ibid.*, p. 104.

하였다. 즉, 프레이밍 이론은 거시와 중범위 시각에 미시 수준에서 작동하는 힘들을 결합시킬 필요를 인식하는 것과 상징적 요소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자들에 의해 발전된 것이다. 자원동원이 운동가의 합리적 전략적 행동을 통해 동원을 설명하는 하향식 접근을 강조했던 반면에, 사회구성주의자들은 거기에 수취자(the receiver) 영역과 운동가의 구성된 메시지가 어떻게 개인들을 행동으로 동원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상향식 접근의 결합에 기여했다.¹⁹⁰

초기 사회심리학 패러다임의 교훈을 흡수한 젊은 세대들이 동원논리에 ‘불만’ 개념을 재결합시켰다. 이때 불만은 행동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구성주의자들은 객관적 현실 중 어떤 것이 유력한 운동 요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현실이 어떻게 사회운동을 야기할 수 있는지, 즉 현실이 어떻게 구성되고 담론화될 때 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시되었다. 이때 사회구성주의자들의 관심은 감정(emotions), 프레이밍, 집단정체성, 문화라는 4가지 영역이었다.¹⁹¹

이 중 독자적인 이론틀로 성장하며 다른 요소를 결합시킨 것이 프레이밍 접근이다. 이 접근은 이론적 기여뿐 아니라 방법론적 도구로서도 기능하였다. 특히 “의미화 작업(meaning-work)”을 통해 관념과 의미를 생산하는 투쟁이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 주변에서 실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들이, 개개인들의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대개 의미를 만들어내는 활동가들(entrepreneurs)

¹⁹⁰-Paris Aslanidis, “Critical Review of Social Movement Literature,” p. 12.

¹⁹¹-*Ibid.*, pp. 12~13.

I
II
III
IV
V

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에 착목한 것이다.¹⁹²

프레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프레임 이론이 미디어 연구, 담론분석, 정치학, 국제관계이론, 정치커뮤니케이션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된 만큼 상당한 개념적 논쟁이 있었다. 사회운동조직과 관련해서는 고프만, 스노우와 벤프드, 그리고 겐슨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프만주의자들의 프레임 분석들에 기반한 겐슨은 사회운동의 전략적 프레임링 작업을 위해, 불의(不義), 정체성, 행위체(injustice, identity, and agency)를 집합행동 프레임의 3대 대안적 구성요소로 제시했다.¹⁹³

첫째 요소로 불의(injustice) 프레임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집합행동 구성에 결정적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이때 중요한 점으로 불만(grievances)이 ‘변화 요구’ 및 부당하다고 간주되는 최근 사건·상황에 대한 ‘도덕적 분노’가 내재되어있는, 사회적 작업을 통해 표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회운동에서 불의 프레임들은 집합행위이론에서 ‘긴장(strain)’과 유사하다. 집합행동이 발생하기 전 사회적으로 비판적 대중이 ‘정의가 아니라는 의식(a sense of injustice)’을 구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¹⁹⁴ 긴장과 불의 둘 다 동원의 필요조건이며, 나아가 긴장은 더 큰 범주에 불공평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불의는 거시수준의 긴장으로부터 성공적 동원을 해석하는 미시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더 유용한 미시수준으로 전환한다.

¹⁹²-David A. Snow and Robert D. Benford, "Master Frames and Cycles of Protest," Aldon Morris and Carol McClurg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 136.

¹⁹³-William A. Gamson, *Talking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¹⁹⁴-Robert D. Benford, "An Insider's Critique of the Social Movement Framing Perspective," *Sociological Inquiry*, Vol. 67, No. 4 (1997), p. 415.

둘째, 짐슨은 정체성을 집단동원에서 “우리의식(we-ness)”으로 정의하였다. 적 또는 상이한 방관자인 그들로부터 자신/우리를 구별하고, 운동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집단 정체성 개념이다. 정체성은 구성원 간에 연대성과 특정 주장을 위한 공동의 투쟁의식을 생산하는 데 결정적이다. 친구와 적 사이에 우리와 그들이라는 경계 묘사는 집단정체성의 결정적 기능이고 그 내포적 영역은 운동의 미래 성공을 위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셋째, 행위체 요소는 스노우와 벤프드의 진단, 예측, 동기부여 프레임링과 유사하다. 불공평과 정체성 그 자체만으로 사회운동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활동가들에 의해 지지자들이나 대중들이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동원의 합리성,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이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운동 행위자들은 집합행동이 그 갈망하는 변화를 실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과 그들의 기여를 중요하게 하는 식으로 그들의 잠재적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때 올슨이 제기한 무임승차자(free-riders)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략적 프레임링을 통해 집단적 효력에 대한 신념을 주입시킴으로써 무임승차자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도록 하여 행동과 참여로 유도하는 것 등이다.

사회운동 연구에서 프레임 이론의 선구자들은 자원동원 및 정치과정 이론으로부터 진화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스노우 등은 “운동 참여에 대한 사회심리학과 자원동원 견해를 연결하는 개념적 연결 다리”로서 프레임 결합을 제안했다.¹⁹⁵ 한편 짐슨과 메이어는 정치적 기회의 폭발적 결말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운동 프레임링 과정

¹⁹⁵-David A. Snow, E. Burke Rochford, Steven K. Worden, and Robert D. Benford,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1, No. 4 (1986), p. 464.

I
II
III
IV
V

(the movement framing process)을 이해했다.¹⁹⁶

이 혼합은 기회가 구성된다는 정치과정론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자들의 이론의 재구성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프레임 이론은 정치과정이나 자원동원 이론보다 더 진화한 사회운동 이론이며, 자원동원 이론의 대안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사회구성주의자들의 논리는 개인 수준에서 선호에 대한 영향력 있는 인식의 메카니즘으로서 집합행동의 합리적 선택 프레임워크에 매우 잘 결합될 수 있다. “집합행동을 정당화하고 촉진하는 세계와 그들 스스로의 공유된 이해 방식에 따른, 각 집단별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노력들”로서 프레이밍 과정이 개념화되기 때문이다.¹⁹⁷

집합행동에서 정체성 역할은 1968년 유럽 신사회운동의 성과물이다. 대표적으로 멜루치(Alberto Melucci)는 동원의 가장 결정적 임무를 맡은 요원들(agents)이 직면하는, “행위자들이 행동의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고 환경을 진단할 수 있는 일반적 인식 구조를 생산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집단 정체성 구성을 제기했다.¹⁹⁸ 이때 구성된 정체성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동원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집단 정체성 구성을 위해, 집단 내의 우리(the ‘we’ of the in-group)와 집단 밖 그

¹⁹⁶-William A. Gamson and David S. Meyer, “Framing Political Opportunity,”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¹⁹⁷-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p. 6.

¹⁹⁸-Alberto Melucci, “Getting Involved: Identity and Mobilization in Social Movements,” Bert Klandermans, Hanspeter Kriesi, and Sidney Tarrow (eds.), *From Structure to Action: Comparing Social Movement Research Across Cultures* (Greenwich, C.T.: JAI Press Inc., 1988), p. 343.

들(a 'they', an out-group)이라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¹⁹⁹

집합행동 프레임을 구성하는 불공평, 정체성, 행위체 요인의 기저에는 문화(cultures)가 있다. 문화는 사회구성주의 학파 전체를 관통하는 보편적 특징이다. 문화 중심성에 대한 가장 대표적 설명은 도구적 장비로서 문화의 이해이다. 각 사회는 기업가적 운동가(movement entrepreneurs)가 집단 정체성과 공명(resonant)하는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 끌어들이어야만 하는 '독특한 문화적 기제(a distinct cultural tool kit)'를 가지고 있다.²⁰⁰

문화적 기제들은 상징, 아이콘, 전통, 설화, 습관, 스타일, 사회적 규범, 영웅적 인물이나 사건들로 그 메시지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가족, 학교, 사회적 규범·신념·가치들을 통해 사회화되기 때문이다. 우리 환경은 그 같은 제도에 의해 모양 지워지고, 그 유무형의 제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소위 정상적 행위 패턴을 익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때문에 "정체성과 같은 집단적 신념은 공공의 담론을 통해 구성되고 변화된다."²⁰¹

그러므로 대중동원을 위한 성공적인 행동의 전략들은 '공명하는 문화적 주제(resonant cultural themes)'들에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운동가들은 우세한 문화의 중재(the mediation of the dominant culture)를 고려하면서, 그들이 목표 인구의 내재화된 규범들에 결합하는

¹⁹⁹-Bert Klandermans, *The Social Psychology of Protest*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7).

²⁰⁰-*Ibid.*

²⁰¹-Bert Klandermans, "The Social Construction of Protest and Multiorganizational Fields," Aldon Morris and Carol McClurg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 93.

방식으로 전략, 슬로건, 레퍼토리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²⁰² 사람들의 심장과 의식을 울릴 수 있는 “공명하는 진실성(a resonant reality)”의 고안이 중요하다.²⁰³

만약 견고하고 객관적인 사실들이 진실의 새로운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에 사용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반드시 요구 되는 것은 아니다. 인식과 이성에 호소하는 것은 단지 게임의 일부일 뿐이다. 사회심리학 메카니즘이 촉발하는 문화적 요인에 대한 호소를 갖추지 않은 객관적 사실만으론 대중을 동원하기 어렵다. 사회운동과 그 행위자들은 수동적 채널이 아니라, “진실성 구성의 수준에서 행위체와 논쟁(agency and contention at the level of reality construction)”에 관여하는 능동적 의미 생산자들이다.²⁰⁴

북한 연구에서 프레임 분석과 관련한 발상은 주로 문화적 층위의 북한변화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의 기저에 깔려있다. 북한변화의 주요 초점과 논거는 시장화와 정보화로 인한 북한 시스템 행위자들의 인식틀 변화, 엘리트 등을 포함한 북한 주민의 의식과 행위 변화 등이다. 대개 북한체제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과 외부와의 교류 확산 등을 포함해, 정보화 진전을 주목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암묵적으로 이 이론적 논리에 기초해 있다. 특히 북한 사회와 주민들 사이에 한류의 확산이 남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유리한 북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는 프레임 시각에서 접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²⁰²- *Ibid.*

²⁰³- David A. Snow and Robert D. Benford, “Master Frames and Cycles of Protest,” Aldon Morris and Carol McClurg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 136.

²⁰⁴- *Ibid.*

그런데 한류와 대북 정보 확산의 중요성 등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프레이밍 시각과 연결되어 있으나, 국제적 사회운동의 경험 및 이론 발전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현상학적 연계성에 머무르고 있다. 보다 진전된 연구로 미시적 불만과 거시적 긴장을 통한 행위자의 합리성을 중시한 정치적 기회구조 이론의 맥락에서 발전한 프레이밍 시각을 견지한 북한변화 연구는 대표적으로 박영자와 조정아 외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집합행동의 가능성을 주목하며 정치적 기회구조와 북한 주민들의 집단적 프레임 변화를 결합한 박영자(2012)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북한체제의 현 단계를 정경유착형 부패와 불평등·빈부격차 심화·시장화 진전·외부정보 유입·비사회주의 현상 만연 등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비공식 제도가 주민들의 생존양식과 맞물려 활발히 작동하는 탈사회주의 체제변동기로 인식하며, 20년 이상의 변화 과정에서 “북한 사회의 주요 행위자 집단은 누구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각 행위자 집단별 삶의 균열 상황은 어떠한가? 각 행위자 집단별 균열 구조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북한 사회의 균열 상황과 구조를 종합할 때,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regime) 전환의 정치적 기회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는 누구인가?”²⁰⁵라는 연구문제를 제기하며, 행위자 모형에 기반하여 고프만의 프레임 분석법과 정치적 기회구조 시각에서 계층·세대·지역 별 각 북한 행위자 집단의 균열 상황을 분석하였다.

균열(cleavage)은 한 사회 또는 하부공동체 구성원들을 주요 정치적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개념에 기반하였고, 총적 분석은 고

²⁰⁵ 박영자,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행위자 모형에 기반한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12), p. 170.

프만의 ‘상호 작용하는 일상의 상황과 프레임’론에 기초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북한 정치사회와 주민 변화의 시각에서 계층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연구는 계층 균열의 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인식들을, 특히 2009년 김정은 후계체제 등장과 화폐개혁 이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북한 사회의 총체적 균열 상황과 균열구조에 따른 프레임 변화 파악을 시도한 이 연구는 세대균열과 지역균열, 그리고 그 관계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 사회학의 전통적 균열 연구 주제인 세대균열 및 근대국가 출현 이후 주목된 계급(계층)·지역 균열의 상황과 인식을 행위주체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는 비교정치의 전통적 체제균열 분석법으로 한 사회의 주요 균열 축인 부의 규모, 권력-지식 위계, 세대, 지역 등이 서로 중첩되는지 또는 교차하는지에 따라 사회갈등의 정도와 체제 안정성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시각을 견지한 것이다.

미시와 거시를 종합하려 한 이 연구는 연구결과 사회운동에 함의가 높은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체제에 지역균열과 계층균열 수준이 높으며, 이 두 균열축이 상호 중첩되어 북한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을 구조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체제균열 분석에 기초할 때, 한 지역 거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상층을 구성하는 반면, 타 지역 거주자들이 하층으로 구성된다면, 지역과 계층 두 개 균열축은 중첩되어 상호 강화역할을 하기에 집단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 둘째, 행위자 집단 내부에서 균열의 정도가 높은 주체로는 1순위 국경 도시 지역민, 2순위 중류층 주민, 3순위 식량난 세대와 시장 세대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북한체제 변동의 정치적 기회 구조를 창출한 가능성이 높은 사회 행위자(agents of social movement)는 국경 도시지역 거주, 중류층의 20~40대 초중반 행위자로 전망할 수 있다”라는 북한 사회 집합행동

경로의 주요 함의를 도출했다.²⁰⁶

다음으로 ‘사회변동의 주관적 체험과 개인 발달의 상호관계성’을 주목한 조정아 외(2013)의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연구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변화 경험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심성체계가 변화하였고, 이것이 다시 북한 사회의 결속력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통치기반인 젊은 세대의 특징이 북한체제 안정성이나 사회변화와 관련한 시사점을 중시하며, 경제난과 시장화가 진행된 시기에 유년기와 성장기를 보낸 북한 청소년들이 특정한 사회·역사적 과정 속에서 ‘세대’로서 어떠한 공통의 세대경험을 하였는지를 신체와 언어, 장소와 사물, 관계와 문화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핵심 논리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세대의 특성은 당장 북한 사회 내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김정은 정권의 정책 방향 결정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북한 사회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북한 청소년들의 세대경험은 당국의 강도 높은 통제정책의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용주의적이고 비정치적이고 개방적인 새로운 세대의 특성은 장기적으로는 개혁·개방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국가담론의 공신력이 저하하고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부분적인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부분적인 개혁·개방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지지에 기반한 부분적인 개혁·개방은 장기적, 총체적 측면에서 오히려 체제를 안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다른 한편으로, 개혁·개방과 이에 따른 시장관계의 확대, 외부문화 유입 증가는 체제의 불안정성을 끊임없

²⁰⁶ 위의 글, p. 200.

이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 한국이나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물질적 측면이나 문화적 스타일에 대한 동경과 모방을 넘어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에 접근하는 계기가 어떤 형태로 주어질 것인가가 이들 새로운 세대가 체제 내에 안주(安住)하느냐 체제로부터 탈주(脫走)하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²⁰⁷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충실하여 거시적 북한 사회변동 추론에 기여한 이 연구는 문화적 층위에서 경험, 인식, 행위, 전망 등 다차원과 다양한 관계의 상호성을 치밀하게 분석한 연구이다.

²⁰⁷ 조정아·조영주·조은희·최은영·홍민,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328~329.



IV. 이론의 적용: 정책 설계와 방향

본 장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일반 이론을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 친화성 증대’를 위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모색한다. “이론들이 일정한 유형의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들(the kinds of factors)에 대한 보편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²⁰⁸ 선행연구들과 관련 일반 이론들이 주는 시사점을 총합하여,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남북한의 친화성을 증대하기 위해, 어떠한 시각에 따라 모델을 설계하고, 세부 정책 방향을 설정할 지를 다룬다. 첫째, 북한의 민주화, 시장경제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일반적 대북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북한의 변화 촉진 및 남북한 친화성 증대를 위한 이론의 적용 시각, 둘째, 정책 설계의 이론적 모델로서 정신적·물질적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합리적 선택 가설의 발전에 기반하여, ‘구조-인지’ 모델을 중심으로 거시와 미시를 연계하는 모델을 다룬다. 셋째, 정책 방향으로서 미시에서 거시로, 거시에서 미시로의 연계 전략을 다룬다.

1. 정책 목표 및 이론의 적용 시각

북한의 변화 촉진 및 남북한 친화성 증대를 위한 정책의 세부 목표로서 북한의 민주화, 시장경제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일반적 합의가 공유된다. 이와 관련되어 그간 북한변화의 다양한 층위에서 관련 연구들이 상당히 진전되었다.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은 현재까지 ‘보수-진보’라는 한국 내부의 정치적 당파에 의해 규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정치신념적 경향성의 그늘 하

²⁰⁸ Karl-Dieter Opp, *Theories of Political Protest and Social Movement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Critique, and Synthesis* (Abingdon, UK and New York), p. 11.

I
II
III
IV
V

에서 현존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당화”하는 편향성이다.²⁰⁹

한편 주민 수준에서 남북 간 친화성 증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남북한 간 이해의 부족이다. ‘이해부족 → 소통부재 → 불신’의 악순환이 남북한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내용도 모른 채 ‘다르다’는 인식을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문제가 분단과 6·25전쟁, 그리고 남북관계사의 상흔(傷痕)인 ‘친북 대(對) 반복’이라는 도그마(dogma)적 대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념적 프레임을 벗어난 북한체제의 분석력 증대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대북 통일 정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여타 학문분야의 발전처럼 정책적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학뿐 아니라 사회학과 경제학, 심리학 등을 총합하는 것과 다양한 복합학문의 이론-방법론에 대한 관심 및 적용 시도가 필요하다. 북한변화의 변수가 다양해졌고 대북 통일 정책 아젠다가 변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연구 중요성이 커졌을 뿐 아니라, 북한변화의 추동력과 남북한 친화성 증대의 목표인 미래양상에 대한 심화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 내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층위의 변화들에 대한 총체적 인식 및 상호 관계성 규명에 기초하여, 남북한 친화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북한(변화) 연구에 실증적 분석력과 논리적 해석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즉, 각 변화 요인들과의 관계 및 상호 작용을 중시하며, 관련 일반 이론의 총합적 적용을 모색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변화에 대한 정치적 또는 신념적 편향들을 최소화하고, 그 변화의 방향들이 북한의 민주화, 시장경제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남북한의 친

²⁰⁹ 박형중 외,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10.

화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북한변화의 흐름에 조응하기 위해서이다. 즉,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을 결합한 북한변화 촉진과 남북친화성 증대를 위한 정책 설계로서 총합적 맵핑(mapping)이 절실하다.

맵핑의 기본적 시각은 첫째, 북한에서 정치변동·사회변동·경제변동·문화변동이 맞물리며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과정을 통한 진화(systematic evolution) 양상을 보이나, 둘째, 북한변화가 선거·권력다원화·시민사회·법적 통치·자유경쟁 등 ‘국제적 기준의 민주화 렌즈’로는 해석하기 어려우며, 셋째, 상당한 기간의 내부변화 및 변화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므로 넷째, 20세기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경로에 기반한 이념형적 경로 분석을 넘어서 정치저항과 사회운동의 미시적 동원 방안 등을 중시하며, 다섯째,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남북한의 친화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총체적 정책 설계이다.

2. 정책 설계의 이론적 모델: 거시와 미시 연계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경험 및 이론이 발전하는 과정에는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을 연결하려는 지속적 노력이 있었다. 즉,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이론이며 무엇이 좋은 이론인가?”에 답하기 위한 시도들이다. 그리고 변화와 갈등구조, 그리고 운동성을 중시하며 ‘정치적 기회’를 다루는 연구들에서 핵심적 연구문제들은, 거시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변화하는 상황의 기회’들이 미시 요인으로 분류되는 개인적 동기(incentiv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중범위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공식-비공식 제도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성공적인 기회 구조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가 등이다.²¹⁰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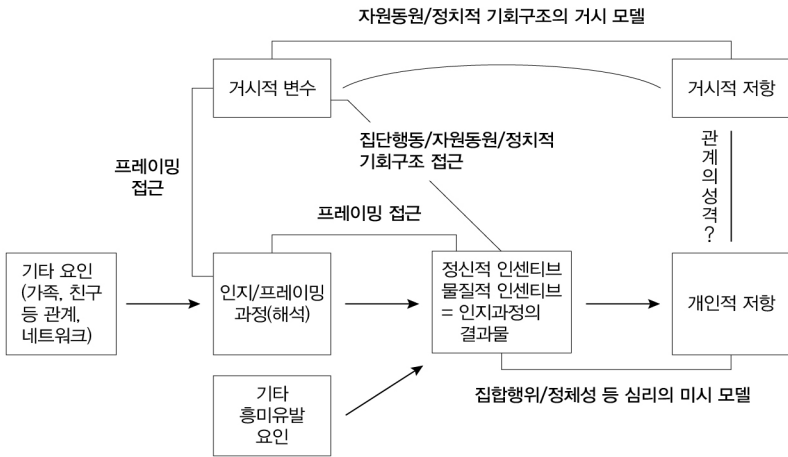
III

IV

V

그러므로 북한변화 촉진과 남북친화성 증대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점은 그간 역사적 경험과 이론적 분석의 발전성과에 기반하여 거시 구조분석과 미시 사회심리 분석, 그리고 중범위 제도 분석을 포괄하면서, 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2장과 제3장에서 다룬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 시각들이 다루는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총합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설계도는 아래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정치저항과 사회운동 이론이 다루는 연구범주 및 해결과제²¹¹



²¹⁰-Karl-Dieter Opp, *Theories of Political Protest and Social Movement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Critique, and Synthesis*, p. 1.

²¹¹-이 그림은 위의 책 335쪽의 그림 11.2. 사회운동 시각들이 다루는 질문들 (Figure 11.2. Questions addressed by the social movement perspectives)을 수정한 것이다.

미시와 거시의 연계를 설계한 옵(Karl-Dieter Opp)은 2000년대까지 존재했던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 이론들을 분석하고, 이들을 총합하는 구조-인지 모델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이론들이 다루는 연구범주를 위의 <그림 IV-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리고 저항과 사회운동 발현의 거시-미시 관계를 해석하는 데 이론적이고 분석적으로 그 상관관계는 널리 인정되지만, 그 인과성, 즉 화살표의 방향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개인적 저항’과 ‘거시적(집단) 저항’ 간 관계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하였다.²¹²

옵은 이 모형에 기초해서 반지구화 운동, 라틴아메리카 특히 브라질의 소작 노동자 운동, 미국 시민권 운동, 마지막으로 1989년 동독 라이프치히의 저항에 초점을 맞춘 공산정권에 대한 동독혁명 등 4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²¹³ 먼저 앞의 세 사례에 이 모형을 적용해 본 결과, 향상된 인센티브의 변화를 위한 활동가들의 노력이 그 “운동의 궤도(the trajectory of the movement)”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하고 새로운 시각들을 확보하게 했다는 점이다. 즉, ‘인센티브의 변화’를 위한 노력 및 그 효과를 밝힌 것이다.²¹⁴

한편 옵은 다른 세 사례와 달리, 동독혁명은 운동도 없고 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촉발된 저항이라고 인식한다.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1982년 이래 개최된 월요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라이프치히 칼 마르크스 광장과 거리 시위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소비에트의 정책변화, 헝가리의 자유화, 서독의 높은 생활수준과 민주적 시장질서와 비교되는 동독체제에 대한 불만 등 거시적 기회구조 및 불만의 자원 등도

²¹²- *Ibid.*, p. 335.

²¹³- *Ibid.*, pp. 336~348.

²¹⁴- *Ibid.*, p. 345.

I
II
III
IV
V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미시적 수준으로 내려가면, 운동의 조직화보다는 개인들이 그 집회에 가면 나와 유사한 불만이나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는 심리적 인센티브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²¹⁵

웁은 그간 동독혁명에 대한 선행연구 재검토와 함께 위 모형의 적용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기존 설명들은 그 원인들로서 대내외적 사건들을 제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거시적 설명에서 미시적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즉, 그 대내외 사건들로부터 그 행동들로의 블랙박스는 채워지지 않는다. 왜 그 사건들이 그 저항들을 발생 또는 변화시켰는지를 밝히지 못한다. 나아가 기존 설명들은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적용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구조-인지 모델은 실종된 거시에서 미시로의 연계를 밝힌다.”²¹⁶ 이는 사회운동과 운동 조직이 없는 북한에 이 모형 적용의 가능성 및 향후 과제를 추론하는 데 유의미한 시도이다.

구조-인지 모델을 현실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IV-1>과 같은 인식에 따라, 관련 이론 및 성과를 발굴하고 북한 현실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 이 설계도가 도출된 인식적 기저에는 거시와 미시를 연계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의 바탕이 된 ‘합리적 선택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합리적 선택 시각은 사회운동 학자들에 의해 사랑과 미움을 둘 다 받았다. 특히 올슨의 저작을 통해 여과된 합리적 선택 시각의 영향은 초기 자원동원 이론의 성과이다. 개별 저항가에게 합리성 개념을 적용한 것은 비이성적 폭도들의 활동이라는 고전적 집합행동

²¹⁵-*Ibid.*, pp. 345~348.

²¹⁶-*Ibid.*, p. 348.

이론의 낡은 해석틀을 해체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이론가들은 합리적 선택이론이 현실에선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 행위기제(agency)의 차갑고 기계적이고 냉소적인 해석이라며 비판하였고, 심지어 비인간적인 모델이라고 명명하였다. 공격은 거시와 미시적 접근 모두에서 이루어졌다.²¹⁷

비판의 기저에는 합리적 선택이론이 인간을 경제적이고 도구적인 물질적 존재로 인식하고 인간의 활동을 추동하는 정신적 요소를 배제하거나 부차화시킨 측면이 있다. 즉, 모든 개별 인간은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이해에 따라 의식하고 행동한다는 인식틀에 대한 거부이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미시와 거시를 연결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합리적 선택 가설을 재정립하려 하였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개인들은 그들에게 가장 이롭고 비용이 덜 드는 행위를 선택한다”는 가설,²¹⁸ “도구주의자, 합리적 선택 또는 주관적 기대 효용 모델들의 중심 가정들인 첫째,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며 비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둘째, 그들은 다양한 행동 방향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 다음에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의식적 선택을 한다.”²¹⁹는 명제를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에 도입한 것이다.

합리적 선택의 유용성은 독립변수의 선택이 c 또는 d에 대한 a 또는 b를 선택하는 설명력을 제공하는 점이다. 특히 그 변수들이 개인 수준

²¹⁷-Paris Aslanidis, “Critical Review of Social Movement Literature,” *www.academia.edu* (2012), p. 18.

²¹⁸-Karl-Dieter Opp, *Theories of Political Protest and Social Movement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Critique, and Synthesis*, p. 11.

²¹⁹-David A. Snow and Pamela E. Oliver, “Social Movements and Collective Behavior,” Karen S. Cook, Gary Alan Fine, and James S. House (eds.),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1995), p. 583.

I
II
III
IV
V

에서 비용-편익 균형에 영향을 미쳐 선택된다는 것을 명료하게 하는 분석틀을 제공하여 특정한 함정을 피하게 한다.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일반적 비판은 이 주창자들이 특히 물질적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제기할 때 그 진위가 의심스러운 한계가 있다.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론의 더 넓은 시각을 주창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인센티브들로부터 거리를 둔 모델을 구축했다.

그들은 올슨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방정식들에 ‘선별적 인센티브들’을 결합했다. 예를 들어 감정(emotions)이다. 감정이 물질적 이익에 따라 계산되는 비용·편익들과 함께 개인 결정과정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 합리성과 대립하는 비이성적-감정적 계산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감정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복의 추구’는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인지된 다른 선택들보다 특정한 감정적 목표 실현을 함축한다. 집단 정체성 또한 유사하다. ‘친구들과 가족의 사회적 찬성 및 반대’의 메카니즘을 통해 집합행동을 위한 “연대 인센티브(solidary incentives)”가 제공되기 때문이다.²²⁰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모델이 옴의 구조-인지 모델이다. 확장된 사회운동 접근에 대안으로 제기된 ‘구조-인지 모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두 가지이다. 첫째, 구조-인지 모델의 기본적 주장은 미시-거시 설명이다. 이는 자원동원이나 정치적 기회구조 시각들과 같은 거시적 접근들이 더 이상 “자기 완결적 이론 패러다임(self-contained theoretical paradigms)”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²²¹ 오히려 그들은 설명되어

²²⁰-Paris Aslanidis, “Critical Review of Social Movement Literature,” pp. 19~20.

²²¹-이와 관련해 옴은 기존 사회운동과 정치저항의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맹점으로 “거시 구조적 시각들이 미시적 수준을 무시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야 할 명제(propositions)이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새로운 연합이 구성된 후에 저항이 증가했다고 가정해 보자. 정치적 기회구조 주창자들은 그 신생연합이 변화 기회이고 그 변화 기회가 저항을 유발시켰다는 그들의 논리로 해석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인지 모델 시각에선 만족스러운 해석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생연합이 하나의 정치적 기회라는 것이 전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생연합이 집합행동에 개입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인센티브들을 촉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설명되어야 한다. 둘째, 구조-인지 모델은 상이한 시각들의 총합이다. 사회적 자원이나 정치적 기회 같은 거시 변수들은 미시수준에서 인센티브들을 영향이 아니라 필요할 수 있는 요소로서 활용했다. 경험적 연구와 이론은 거시변화들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만 한다. 거시 변수들은 미시 변수들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관련 거시 변화들은 우선 개인들의 인지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인지과정(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인식된다. 인지 시스템에서 그 영향은 저항의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것이다(<그림 IV-1> 참조).²²²

거시 변화는 “우호적인(favorable)”인지 구조의 멘탈 모델과 만난다면, 그 인센티브들이 저항에 직접적 효과를 미친다. 그러나 비우호적인 모델과 만난다면 그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볼 때 거시 변화는 인센티브에 간접적 효과를 미친다. 이때 중요한 포인

정치적 기회구조 변화가 집단적 정치 행동을 변경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기회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왜 개별 행위자들이 그들의 정치적 행위를 변화시키는데에 대해서는 무시했다. Karl-Dieter Opp, *Theories of Political Protest and Social Movement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Critique, and Synthesis*, p. 352. 이 분석은 현장의 현실(예를 들어, 북한의 현실)에 기반하지 못하고 자기만족적이거나 이념적 편향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²²² *Ibid.*, p.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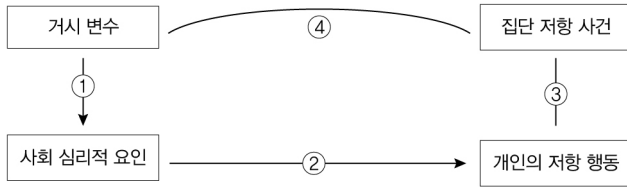
I
II
III
IV
V

트는 인센티브는 물질적 비용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비용과 편익들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구조-인지 모델은 거시와 미시를 포괄하는 그 연계성들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거시 또는 순수한 미시 접근들의 설명적 부족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모델은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여러 시각들의 통합 또는 총합을 이루게 한다.²²³

이 미시-거시 모델에 기반할 때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 친화성 증대 방안을 설계하는 중장기적 모델 구성은 다음의 세 단계 또는 과정을 통해 진화해야 한다.²²⁴

1단계는 기본모델 설계이다. 아래 <그림 IV-2> 정책 설계의 기본모델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림 IV-2 정책 설계의 기본모델



위의 <그림 IV-2> 정책 설계의 기본모델은 ‘거시적 변화가 사회 심리적 요인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심리적 요인이 개인적 저항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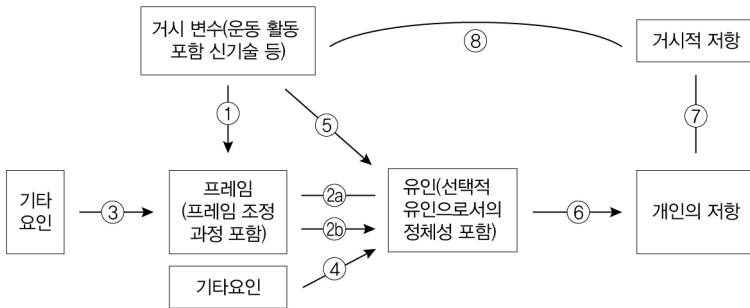
²²³-Ibid., p. 354.

²²⁴-아래의 <그림 IV-2, 3, 4>는 위의 책, 328쪽의 그림 11.1. 구조-인지 모델: 사회운동과 정치저항에 관한 주요 이론적 관점의 종합(Figure 11.1. The structural-cognitive model: a synthesis of the major theoretical perspectives about social movement and political protest)의 A. 기본모델, B. 프레이밍, 인센티브, 자원, 정치적 자원 통합, C. 최종 모델에 기초하여, B와 C를 수정한 것이다. 세 모델에 대한 분석적 설명은 위의 책, pp. 327~334.

동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적 효과성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화살표 ①과 화살표 ②이다. 다음으로 개인적 저항행동이 집단 저항과 상관관계에 있고, 거시적 변수가 집단 저항 사건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본모델 구조이다. 그러나 이때 선 ③과 ④가 지시하는 상관성은 원인과 결과를 표현하는 인과적 화살표가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선 ③과 ④가 보여주는 개인적 저항과 집단적 저항의 영향성, 거시 변수와 집단 저항의 영향성은, 분석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으나 역사적 경험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무엇이 원인인지를 분명히 하기는 어렵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선 ③의 관계에서 집단적 저항사건이 개인적 저항의 합(a summary)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2단계는 프레이밍, 인센티브, 자원, 정치적 기회의 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IV-3 기본모델의 통합적 진화



<그림 IV-3>은 1단계 기본모델을 확장시켜 관련 이론들의 통합적 진화를 위해 각 요인들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다. 각 선이 나타내는 이 모델 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살표 ①이 보여주는 인과성으로 거시 변수가 프레임에 영향

I
II
III
IV
V

을 미친다.

둘째, 선 ②a가 보여주는 프레임 변화가 인센티브 변화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셋째, 화살표 ②b(이 관계는 프레이밍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경험적 영향)²²⁵가 보여주는 프레임 변화가 인센티브 변화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다.

넷째, 화살표 ③이 보여주는 가족이나 친구의 신뢰 네트워크 등 공식-비공식 제도를 포함한 기타 요인들이 프레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는 것이다.

다섯째, 화살표 ④가 보여주는 개인적인 흥미유발 요인들이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는 것이다.

여섯째, 화살표 ⑤가 보여주는 거시 변수들이 인센티브들에 미치는 인과성 해석이다.

일곱째, 화살표 ⑥이 지시하는 인센티브들이 개인적 저항에 미치는 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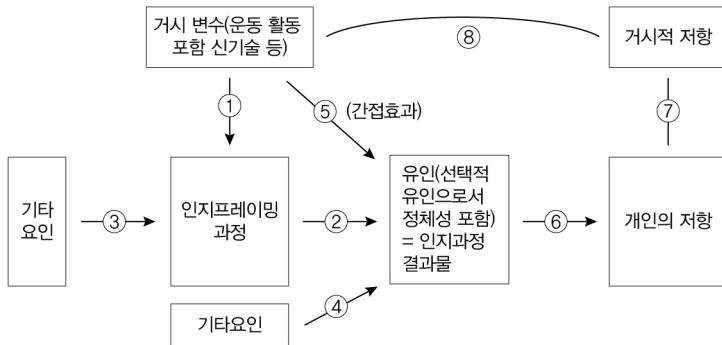
여덟째, 거시적 집단 저항과 미시적 개인 저항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둘 간의 관계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다.

세부 정책을 설계하는 데는 위의 관계선 중 ③과 ④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화살표 ③은 상호 작용이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표현한 것이고, 화살표 ④는 흥미나 관심유발 이벤트 등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액션플랜을 설계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3단계는 최종 모델의 구성이다. 아래 <그림 IV-4> 거시-미시 연계의 최종 모델: 구조-인지 모델이다.

²²⁵- *Ibid.*, p. 333.

●그림 IV-4 거시-미시 연계의 최종 모델: 구조-인지 모델



위 <그림 IV-4> 거시-미시 연계의 최종 모델: 구조-인지 모델은 앞의 2단계 프레이밍, 인센티브, 자원, 정치적 기회 구조의 요인들을 통합한 설계에 기반하여, 프레이밍과 인센티브의 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거시 변수가 인센티브에 미치는 경험적 제약을 인지하는 최종 모델의 구성이다. 즉, 사회운동과 정치적 저항에 대한 주요 이론적 관점을 종합한 구조-인지 모델이다. 각 번호가 나타내는 이 모델 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과적 화살표 ①이 보여주듯 거시적 변화가 개개인들의 인지 프레이밍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거시적 변화의 개인적 해석에 작용한다.

둘째, 앞선 2단계 통합모델에서 선 ②a가 보여주는 프레임 변화가 인센티브 변화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명료화하여, 화살표 ②b가 보여주는 프레임 변화가 인센티브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성으로 화살표 ②와 같이 단일화한다.

셋째, 화살표 ③이 보여주듯 가족이나 친구의 신뢰 네트워크 등 공식-비공식 제도를 포함한 기타 요인들이 인지프레이밍 과정을 통해 거

I
II
III
IV
V

시 변수 해석에 직접적 효과를 발휘한다.

넷째, 화살표 ④가 드러내듯 개인적인 흥미유발 요인들이 정신적, 물질적 인센티브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화살표 ⑤가 보여주듯 거시적 변화가 정신적, 물질적 인센티브들에 영향을 미치나, 이는 경험적으로 간접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여섯째, 화살표 ⑥이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인센티브들이 개인적 저항에 직접적이고 인과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곱째, 선 ⑦과 선 ⑧로 거시 변수와 개인의 저항이 거시적 저항에 상관관계가 있으나, 경험적으로 그 직접적 인과성을 논증할 수는 없다. 우선 거시적 변화 그 자체가 거시적 저항을 유도하지는 않으며, 개인적 저항의 총합이 거시적 저항으로 이어진다는 직접적 인과성은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회운동 시각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남북 친화성을 증대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경험적 및 이론적으로 확인된 인과 관계로서 화살표 ①, ②, ③, ④, ⑤(간접효과), ⑥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프레이밍 과정과 인센티브의 변화를 중심에 놓고 거시적 변화와 미시적 개인 변화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정책 방향

위의 구조-인지 모델을 북한의 변화 촉진 및 남북 친화성 증대를 위한 정책 방안에 적용할 때,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시로부터 거시 요인을 연계하는 전략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시로부터 미시 요인을 연계하는 전략이다.

가. 미시로부터 거시 연계전략

북한지역 행위자들의 의식과 심리 등 문화적 변화에 착목하여 그들의 프레임을 변화시키는 인지프레이밍 과정으로부터 거시적 변수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 지점을 구체화하여 이를 대북정책 목표에 따라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 담론을 구성하고, 각종 선전 기제와 네트워크 등을 통해 북한지역 행위자들과 공명하며 프레임을 일치시키려는 의식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인지프레이밍에 영향을 미치는 대북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개개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임파워먼트 강화 전략을 실행한다. 이는 조직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의식화와 조직화 과정에 정치, 경제 등 거시적 변화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18세기 이래 사회주의 이념이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상업혁명의 성공과 농업혁명에 이은 산업혁명의 출현과정에서, 신분적 연속을 전제로 한 봉건적 영주-농노 체제 및 불평등한 지배 체제가 붕괴되어야 한다는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계몽주의자들의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20세기 러시아로부터 현실화된 국가사회주의 체제 역시 그 역사성에 따라 볼 때, 인간 의식의 중요성, 집단적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수지배-다수피지배의 권력구조 사회가, 다수지배(프롤레타

I
II
III
IV
V

리아트 독재)-소수피지배(봉건적 자본주의적 잔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낮은 생산력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물질세계 발전보다 선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또는 진행될 수 있는 정신세계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이를 역으로 사고하면, 20세기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이나 중국 및 베트남의 개혁·개방 역시 구성원의 의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기반하여 집단주의 사회를 구축했던 북한 사회는 여타 20세기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정신과 의식 세계를 유달리 강조하였다. 북한체제는 정권의 장기 지속적 통치과정에서, 사상투쟁의 선차적 중요성을 한 번도 후순위 정책으로 실시해본 적이 없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투쟁임을 사회와 주민, 엘리트에게 각인시켰던 체제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는 그 체제를 아래로부터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신념체계에 대한 의문 및 불신 확산으로 인한 체제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의식과 이념에 의해 건설되거나 지탱되는 체제는 새로운 의식이나 이념이 출현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때, 또 다른 체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정권의 프레임을 대표하는 김정일은 북한의 미시적 변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첫째, ‘혁명의 3, 4세대’가 “조국애와 민족애가 희박”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의 동요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²²⁶ 둘째, “비문화적이고 레의도덕이 없는 현

²²⁶ 김정일,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3월 2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18.

상”으로 “고유한 민족성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²²⁷ 셋째, “내부에 자
유화바람”으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조장”하는 상황,²²⁸ 넷째, “김일
성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 “자기 수령에 대한 충효심”을 지
킬 수 있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²²⁹ 다섯째, “조국애, 민족애 같은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민족적
편견”이라는 흐름이다.²³⁰

이 의식과 문화적 변화 흐름은 김정은 시대에 더욱 확장된 상황이
다.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는 김정은 정권은 1970년대 식의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을 재구성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2014년부터 의무
교육을 1년 연장시킨 12년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2015년부터 남성
의 군복무 기간을 10년에서 11년으로 연장시키고 여성의 군복무를 의
무화하는 군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에 대한 북한정권의 정책 변화에 비
해,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
러므로 북한체제가 지탱되는 중요 요인인 신념체계 변화의 맥락을 재
정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미시적 북한변화 촉진 전략이 거시적 북한체
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 세부 정책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변화와

227- 김정은, “온 사회에 공산주의도덕기풍을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
임일군들과한 담화, 1996년 2월 26일),” 위의 책, p. 151.

228- 김정은,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모범
초급일군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9년 9월 29일),” 위의 책, pp. 473~474.

229- 김정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1997년 6월 19일),”
위의 책, pp. 328~329.

230- 김정은,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
임일군들과 한 담화, 2002년 2월 26일, 28일),” 『김정은 선집 15』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5), p. 260.

선행연구의 성과에 기반하여, 거(Ted R. Gurr)의 통찰을 적용할 수 있다. ‘Why Men Rebel’ 모델은 정치적 저항과 반란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이며 사람에 기반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이 모델은 21세기 중동의 봄에서 나타나는 전 민주주의 사회의 저항 사례분석에도 분석의 틀로 활용되며, 동시에 다양한 세계에서 나타나는 대중적 불만에 대한 이해와 대응책을 찾을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핵심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극빈층, 도시실업청년,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소수자 집단들을 포함해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disadvantaged people)의 집단 정체성과 불만 규명으로부터 시작하라!

둘째, 정부 또는 다른 집단들에 의해 그들이 어떤 지위와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사람들의 불만 원천을 이해하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경청하라!

셋째, 왜 그룹 정체성과 불이익이 그 멤버들로 하여금 저항 또는 반역이라 정의할 수 있는 상이한 종류의 정치적 호소와 이데올로기들에 영향 받기 쉽게 하는지를 물어보아라!

넷째, 공격적인 사람들 사이에 정치 운동을 구축하려 시도하는 지도자들의 동기와 전략들을 분석하라!

다섯째,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집단들을 다루는 정부의 동기와 전략들을 분석하라!

여섯째, 집단 분노, 동원, 상이한 정치 전략들 중 선택들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요인들에 대해 분명히 하라! 초국가적 운동들, 이데올로기들, 성공적인 정치 행동의 사례들이다.

일곱째, 정부가 정치적 행동에 반응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압력들과 제재를 분석하라!

여덟째, 정치행동과 정부반응 관련 집단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라! 한 그룹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과 손실이 있는가? 정부 정책이 공공질서(public order)를 파괴하는가? 또는 저항을 더 야기하는가?²³¹

미시에서 거시를 연결하기 위한 정책 중 중요한 것이 임파워먼트 전략이다. 북한지역의 개인 역량 증진, 즉 임파워먼트(empowerment) 문제이다. 임파워먼트는 대개 사회복지학과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여러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는 ‘강점전략’과 ‘역량강화’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행위주체 스스로에 의한 내적인 힘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은 주류 집단에 비해 능동적 태도를 지니기 어려우며, 무력하여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임파워먼트는 이와 같은 사회적 취약 집단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임파워먼트 모델의 기능과 목적은 자기 효능감 증진, 새로운 개발, 무력함의 이유에 대한 비판적 자각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또한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취약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여 정신적 및 물질적 힘을 발휘할 뿐 아니라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정신적·물질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은 자신의 삶과 소속 공동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상의 주요 사건과 과정에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무력한 개인의 자기 존중감 및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북한지역 행위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첫째, 그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조직적 측면에서 관계를 확장시키고 개인적 측면에서 힘을 키워 나가는 과정이며, 둘째, 개인적 힘인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 등을 가지고 의식과 지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셋째, 불평등하

231- Ted Robert Gurr, *Why Men Rebel: Fortieth Anniversary Edition* (Colorado: Paradigm Publishers, 2011), pp. iv, x.

I
II
III
IV
V

고 위계적인 자원과 권력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구조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기 효능감 발전 및 희망적인 신념체계 구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임파워먼트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과 행동에 책임 및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파워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이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이해와 꿈, 희망과 만족감 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환경과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거나 형성 및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량강화 방안이다.

강점강화 또는 역량강화 모델이라고 평가되는 임파워먼트는 단지 사회적 약자가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파워 및 영향력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그 출발 지점은 자신에 대한 힘, 즉 자기 존중감 및 효능감, 자신감에 기반하여 스스로의 삶을 통제 할 수 있는 힘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 개념과 주체 차원의 의미에 대해 사회복지학계에서 임파워먼트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브라우네(Colette V. Browne)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임파워먼트는 소수집단이 다수집단의 압력에 대항하여 자신의 힘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사회적 작업 과정이자 사회적 개입(a social work process and intervention)”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차원의 처방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개개인들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다양한 필요 또는 요구들(the multiple needs)”을 더 강조한다. 즉, 행위 주체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개개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 지배감, 역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점을 강화시키는 변화 능력 등을 의미한다.²³²

또한 조직화의 기본모델로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도 외부의 지원

이 아니라 북한 주민 개인들의 요구와 목소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개인적 태도를 구성하는 자기 공개, 자기인식, 자기개념/세계관(self-disclosure, self-awareness, self-concept)이라는 자기 또는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접촉과 교류협력 증진 등) 사회적 이완(social relaxation)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²³³ 이는 북한 주민들의 임파워먼트 방안의 기초이자 의사소통, 관계형성의 기초이다.

나. 거시로부터 미시 연계전략

앞선 구조-인지 모델에서 설명했듯이 거시적 변화는 그 변화에 우호적인 인지모델과 만난다면, 우호적인 인지모델을 가진 이들의 인센티브 사고를 촉진시켜 저항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비호적인 인지모델과 만난다면 그 역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볼 때 거시적 변화는 인센티브에 간접적 효과를 발휘한다(<그림 IV-4> 참조).

그러므로 정치, 경제의 구조 변동 등 거시적 변화로부터 미시적 변화를 연계하는 전략은, 거시적 변화가 개인의 인지프레이밍 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인지프레이밍 작업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거시적 변화가 인센티브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지프레이밍 작업 및 개인적 흥미 유발 요인을

²³²- Colette V. Browne, "Empowerment in Social Work Practice with Older Women," *Social Work(NASW)*, Vol. 40, No. 3 (May 1995), p. 358.

²³³- William B. Gudykunst (ed.), *Cross-Cultur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ousand Oaks: Sage, 2003).

I
II
III
IV
V

결합시켜야 한다.

그간 북한변화 연구는 대개 거시적 변수에 착목하여 이 효과가 미시적 변화에 직접적으로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고에 기반하였다. 또한 정치적 기회구조와 시장화를 중심으로 발전한 북한변화 연구에서, 정치적 경제적 구조와 기회 중심의 거시 변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최근 대표적 연구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체제 변화의 다양한 경로를 단순화하여 북한경로, 중국경로, 동유럽경로의 세 가지 유형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북한이 택할 수 있는 많은 경로를 단순화하면, 결국 이상의 세 가지 유형으로 좁혀진다고 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제환경, 국가·사회와의 관계 등의 구조적 요인이 있고, 최고지도자의 사망, 재난, 우발적 사건 등과 같은 촉발요인도 있다. 북한체제의 변화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과 촉발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발생할 것이다. 또한 북한체제 변화를 촉발하는 사건에도 쿠데타, 민중봉기, 외세의 개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 이 연구는 북한체제 변화에 작용하는 거시적 변수를 상정하고 이러한 거시적 변수에 의해 북한체제가 특정한 속성을 지닌 유형으로 전환된다는 결과를 중시하고자 한다.²³⁴

한편 대북정책을 북한의 거시적 변화로부터 미시적 변화로까지 진전되도록 하자는 다음과 같은 논리이다.

향후 5년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북한이 협조하는

²³⁴ 박종철 외,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5~6.

가운데 조속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며,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내부 개혁을 통해 경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실현해 가는 것이다. … 정권과 주민을 구별하며 주민의 역량강화를 촉진 한다는 화두를 모든 정책 사안을 숙고할 때마다 고려해야 한다.²³⁵

이러한 거시적 변수를 중심으로 한 전망 및 변화촉진을 위한 대북정책의 가장 큰 한계는 거시적 변화가 개인의 저항을 추동하는 인센티브 변화에 직접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비교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체제전환의 모멘텀은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위로부터의 기회구조’와 연계될 때 현실화될 수 있다. 정치변동, 경제변동, 사회변동, 문화변동 과정에서 행위자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가족이나 친구 등 사회적 관계 및 상호 작용의 확장이나 신념체계 변화 등이 동반되어야, 정신적·물질적 인센티브 효과가 나타나고, 그 인센티브에 맞물려서 개인의 저항뿐 아니라 나아가 집단적 저항까지 발생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거시적 변화가 프레이밍 작업 및 인센티브 (변화) 등과 맞물리지 않는다면, 결국 추상적 수위의 막연한 변화 전망과 그 막연한 변화 전망 속에서 집단 또는 개인의 필요에 따른 현실 진단과 미래 예측, 즉 당파적 필요 또는 자기 필요에 따른 북한변화에 대한 재단(裁斷)들이 무수히 반복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루머와 유언비어가 버젓이 공적인 담론 구조에 자리 잡게 된다. 이 현실은 2014년 현재까지 북한정권과 주민 등을 포함한 북한문제에 대한 수많은 루머

²³⁵ 박형중 외,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향후 5년(2012~2016)간의 정세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ix ~ x.

I
II
III
IV
V

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확산되는 집단들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거시에서 미시로의 연계 전략에서 중요한 요인은 정치적·경제적 구조 변화가 미시적 변화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는가에 착목하는 것이다. 이때 기회는 내적으로론 북한 주민들의 행위 및 의식 변화, 엘리트 분화과정 및 세력의 이합집산과 긴밀한 상관성이 있으며, 외적으로 대외교류 및 정보화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아래로부터의 변동이 체제변화의 역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재집단화와 집단별 정체성 재구성의 환경인 정치·경제적 균열 구조와 맞물리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V. 결론

본문에서는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 관련 일반 이론을 발굴 및 소개하고, 이 이론들에 묵시적으로 기반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이론들과 선행연구들의 성과 및 한계에 기반하여 정책모델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제Ⅱ장은 정치저항과 사회운동의 일반 이론이다. 이 장에서는 1960년대 서방에서 전개된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의 출발 배경, 자원동원 이론, 정치적 기회구조론 또는 정치과정론, 프레임 분석 또는 프레임링 이론, 합리적 선택이론과 구조-인지 모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이론들의 북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Ⅲ장은 이론으로 본 북한변화의 논리이다. 이 장에서는 북한변화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기존 선행연구도 앞에서 언급한 일반 이론에 묵시적으로 기반해 있음을 논증하였다. 먼저 기존 북한연구에서 나타난 북한의 변화와 불변의 논리 구조를 소개하고, 이 연구들에 집합행위론, 자원동원론, 정치적 기회구조론, 프레임 이론이 어떠한 양상으로 스며들어 있는지를 이론과 함께 살펴보았다.

제Ⅳ장은 이론의 적용: 정책 설계와 방향이다.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일반 이론을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 친화성 증대와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연구문제에 따라, 대북통일 정책의 설계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반 이론들과 선행연구들의 시사점을 총합하여, 정책 목표 및 이론의 적용 시각, 거시와 미시의 연계로서의 정책 설계의 이론적 모델, 미시에서 거시로, 거시에서 미시로의 연계 전략에 대해 다루었다.

이 연구는 2년 연구의 1년차 연구이다. 1년차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 중점을 두었기에 실증적 분석 및 세부적 정책 방안 마련에는 한계가

I
II
III
IV
V

있다. 따라서 2년차 연구는 보다 실증적인 북한변화의 실재를 분석하고 북한의 새로운 주체 형성, 즉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들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정책 및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려 한다.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다양한 사례가 펼쳐지면서 이전 이론들이 개인들이 집합행동에 참여하거나 불참하는 문제에 대한 이슈들을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으며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 가설을 새롭게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합리적 선택이 개인들의 집합행동 참여 결정의 내적 과정 및 성공적인 동원의 이유와 관련해 더 나은 설명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강점이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전략적 함의, 조직화 이슈, 무임승차자와 자원할당 문제에 처방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성주의자들의 분석적 사고방식은 행위체(agency)의 결정적 역할을 규명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신뢰할 만한 연산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 모델은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접근과 연계되어 작동할 수 있고, 이 합작은 향후 더 나은 이론 및 방법을 유도할 수 있다.²³⁶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계되어 ‘구조-인지 모델’을 주장한 옴은, ‘거시-미시 모델’은 그 관계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향후 과제로 미시 이론들을 재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 모델의 발전을 위해선 더 많은 시도들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감정, 문화, 개인성들이 이 모델에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옴은 이 향후 과제를 위한 이론적 시사점을 한편으론 “자연과학의 정

²³⁶-Paris Aslanidis, “Critical Review of Social Movement Literature,” *www.academia.edu* (2012), pp. 20~21.

위력(orientation)²³⁷ 또 다른 한편에선 “구성주의자들의 자세(stance)”
에서 발견할 것을 제안한다.²³⁸

²³⁷-현재의 환경·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을 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²³⁸-Karl-Dieter Opp, *Theories of Political Protest and Social Movement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Critique, and Synthesis*, p. 362.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동완·박정란. 『한류 북한을 흔들다: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 서울: 늘품플러스, 2011.
- _____. 『한류 통일의 바람: 한류 북한을 흔들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명인문화사, 2012.
- 김병로·김성철. 『북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수준 평가와 내구력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1996.
-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김연철·박순성 엮음. 『북한 경제개혁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2002.
- 박관용 외.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 박종철 외.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박형중. 『북한의 변화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_____. 『북한의 정치와 권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2.
- _____.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 박형중 외.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_____.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향후 5년(2012~2016)간의 정세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서재진.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_____.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안드레이 란코브, 『북한 워크아웃』. 서울: 시대정신, 2009.
- 양문수. 『북한 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 함의』.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0.
- 이교덕 외. 『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_____.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을까』.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2.
- 이 석. 『북한의 시장: 규모 추정과 구조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임강택. 『북한 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전현준 외.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_____.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정영태. 『북한의 국방위원장 통치체제의 특성과 정책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정형근 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_____.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_____.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조한범·황선영. 『북한 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최수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경제 변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지음. 김진욱 옮김. 『구조인류학』. 서울: 종로서적, 1983.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 홍민·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3.
- 황장엽. 『북한민주화와 민주주의 전략』. 서울: 시대정신, 2008.
-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1951.
- Blumer, Herbert.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9.
- Gamson, William. *Talking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Goffman, Erving. *Encounters*. New York: Bobbs-Merrill, 1961.
- _____. *Frame Analysis*.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 Gudykunst, William B. (ed.). *Cross-Cultur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ousand Oaks: Sage, 2003.
- Gurr, Ted R. *Why Men Reb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 _____. *Why Men Rebel: Fortieth Anniversary Edition*. Colorado: Paradigm Publishers, 2011.
- Johnston, Hank and John A. Noakes (eds.). *Frames of Protest. Social Movements and the Framing Perspective*. Boston: Rowman and Littlefield, 2005.
- Klandermans, Bert. *The Social Psychology of Protest*.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7.
- Kornhauser, William. *The Politics of Mass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59.
- Litwak, Robert S. *Regime Change: U.S. Strategy through the Prism of 9/11*.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7.
- McAdam, Doug.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McAdam, Doug,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McCarthy, John D. and Mayer N. Zald. *The Trend of Social Movements in America: Professionaliz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Corporation, 1973.
- McEachern, Patrick. *Inside the Red Box: North Korea's Post-Totalitarian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 Mead, George H.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34.
- Noland, Marcus.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4.
-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Opp, Karl-Dieter. *Theories of Political Protest and Social Movement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Critique, and Synthesis*. Abingdon, UK and New York: Routledge, 2009.
- Skocpol, Theda. *Social Revolutions in the Modern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Smelser, Neil J.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New York: Free Press, 1962.
- Staggenborg, Suzanne. *Social Movem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Tarrow, Sidney.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Collective Action an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_____.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8.
- Tilly, Charles.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1978.
- Tocqueville, Alexis. translated by Stuart Gilbert. *The Old Regime*

and the French Revolution. New York: Anchor Books, 1955.

Turner, Ralph H. and Lewis M. Killian. *Collective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57.

2. 논문

김갑식. “김정일의 선군정치: 당·군 관계의 변화와 지속.” 『현대북한연구』. 제4권 제2호 (북한미시연구소), 2001.

_____.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통일연구원), 2012;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한국정치학회), 2002.

박영자. “북한 지방 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중앙권력의 이중통제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05.

_____.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3호 (한국정치학회), 2009.

_____. “2000년대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민족의식.” 『정책연구』. 통권 17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_____. “독재정치 이론으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국방정책연구』. 제28권 4호 (통권 제98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

_____.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행위자 모형에 기반한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12.

_____. “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 『국방연구』. 제56권 제2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3.
-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치체제 변화 : 전체주의 겸 술탄주의로부터 탈전체주의적 술탄주의 폭정으로.” 『정책연구』. 통권 168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 _____.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통일연구원), 2011.
- _____.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한국정치학회), 2012.
- 박형중 외. “수령독재 하에서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 그리고 장성택 숙청.”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14.
- 백승주. “북한 급변사태시 군사 차원 대비 방향.”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엮음.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 _____. “김정은 권력승계 2년차, 3대 관전 포인트.” 『신동아』. 626호 (동아일보사), 2001.
- 양문수. “김정은 정권, 시장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 『IFES 현안진단』. 제19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4.
- 유호열.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북한 급변사태.”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편.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 (북한미시연구소), 2001.
-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행태의 변화.”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 제21권 1호 (통일연구원), 2012.
- 이정철. “조선로동당 3차 당대표자회의와 김정일 후계체제.” 『유라시아 연구』. 8권 1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1.
- 이종석. “김정일 시대의 조선노동당.” 이종석·백학순.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서울: 세종연구소, 2000.
-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 관계.” 『국가전략』. 제7권 3호 (세종연구소), 2001.
- _____.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후계문제 및 권력체제 변동.” 『정세와 정책』. 179호 (세종연구소), 2011.
- _____.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국방연구』. 제57권 제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 정영태. “김정은 세습후계체제의 특성과 대내외 정책 전망.” 『전략연구』. 제18권 2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 최진욱. “북한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 (북한미시연구소), 2001.
-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분의 시장화와 경제적 계층분화.” 『현대북한연구』. 제11권 2호 (북한미시연구소), 2008.
- _____. “북한의 시장활성화와 시장세력 형성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한반도 포커스』. 제14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_____. “권력승계 시기 북한의 지배구조와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통일연구원), 2010.

홍 민. “북한 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수령경제와 시장세력을 중심으로.” 『KDI 북한 경제리뷰』. 2002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2.

Aslanidis, Paris. “Critical Review of Social Movement Literature.” *www.academia.edu*, 2012.

Benford, Robert D. “An Insider’s Critique of the Social Movement Framing Perspective.” *Sociological Inquiry*. Vol. 67, No. 4, 1997.

Benford, Robert D. and David A. Snow.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6, 2000.

Blumer, Herbert. “Symbolic Interaction: An Approach to Human Communication.” Richard W. Budd and Brent Ruben (eds.). *Approaches to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Spartan Books, 1972.

Browne, Colette V. “Empowerment in Social Work Practice with Older Women.” *Social Work(NASW)*. Vol. 40, No. 3, May 1995.

Brownlee, Jason.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 59, No. 4, 2007.

Buechler, Steven M. “The Strange Career of Strain and Breakdown Theories of Collective Action.” David A. Snow, Sarah A. Soule, and Hanspeter Kriesi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 Oxford: Blackwell, 2004.

Byman, Daniel and Jennifer Lind. “Pyongyang’s Survival Strategy:

- Tool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2010.
- Davis, James C.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7, 1962.
- Eberstadt, Nicholas. “The Persistence of North Korea: What Has Been Keeping Pyongyang Afloat?” *Policy Review*. Vol. 127, October/November, 2004.
- Eisinger, Peter K. “The Conditions of Protest Behavior in American C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7, March 1973.
- Gamson, William and David S. Meyer. “Framing Political Opportunity.” Doug McAdam, John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Gonos, George. “‘Situation’ versus ‘Frame’: The ‘Interactionist’ and ‘Structuralist’ Analyses of Everyday Lif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2, No. 6, December 1977.
- Goodwin, Jeff and James M. Jasper. “Caught in a Winding, Snarling Vine: The Structural Bias of Political Process Theory.” *Sociological Forum*. Vol. 14, No. 1, March 1999.
- Jackson, Jonathan and Jason Sunshine.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A Neo-Durkheimian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7, No. 2, 2007.
- Jenkins, Craig J.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the Study of Social Move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9, 1983.

- Kihl, Young Whan. "Staying Power of the Socialist Hermit Kingdom." Young Whan Kihl and Hong Nack Kim (eds.). *North Korea: The Politics of Regime Survival*. Armonk, New York: M. E. Sharpe, 2007.
- Kitschelt, Herbert.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Political Protest: Anti-Nuclear Movements in Four Democrac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5, 1986.
- Klandermans, Ber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rotest and Multiorganizational Fields." Aldon Morris and Carol McClurg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2.
- Koopmans, Ruu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Some Splitting to Balance the Lumping." *Sociological Forum*. Vol. 14, No. 1, 1999.
- Mansourov, Alexandre Y. "Emergence of the Second Republic: The Kim Regime Adapts to the Challenges of Modernity." Young Whan Kihl and Hong Nack Kim (eds.). *North Korea: The Politics of Regime Survival*. Armonk, New York: M. E. Sharpe, 2007.
- McAdam, Doug. "Conceptual Origins, Current Problems, Future Directions."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McAdam, Doug,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Introduction: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Framing Processes – Toward a Synthetic, Comparative Perspective on Social Movements.”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McCarthy, John D. and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 6, May 1977.

_____ . “The Enduring Vitality of the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Social Movements.” Jonathan H. Turner (ed.). *Handbook of Sociological Theory*.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2002.

Melucci, Alberto. “Getting Involved: Identity and Mobilization in Social Movements.” Bert Klandermans, Hanspeter Kriesi, and Sidney Tarrow (eds.). *From Structure to Action: Comparing Social Movement Research Across Cultures*. Greenwich, C.T.: JAI Press Inc., 1988.

Meyer, David S. “Protest and Political Opportunit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0, August 2004.

Noland, Marcus. “North Korea: The Tyranny of Deprivation.” Robert I. Rotberg (ed.). *Worst of the Worst: Dealing with Repressive and Rouge Nations*. Washington, D.C.: World Peace Foundation/Brookings Institution, 2007.

Oliver, Pamela E. and Gerald Marwell. “Whatever Happened to Critical Mass Theory? A Retrospective and Assessment.” *Sociological Theory*. Vol. 19, No. 3, October 2001.

- Snow, David A., E. Burke Rochford, Jr., Steven K. Worden and Robert D. Benford.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1, No. 4, August 1986.
- Snow, David A. and Robert D. Benford. "Master Frames and Cycles of Protest." A. Morris and C.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 Snow, David A. and Pamela E. Oliver. "Social Movements and Collective Behavior." Karen S. Cook, Gary Alan Fine, and James S. House (eds.).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1995.
- Snow, David A., Rens Vliegenthart, and Catherine Corrigan-Brown. "Framing the French Riots." *Social Forces*. Vol. 86, No. 2, December 2007.
- Turner, Ralph H. "The Public Perception of Protes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No. 34, 1969.

3. 기타자료

- 김정일.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95.3.2)."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은 사회에 공산주의도덕기풍을 세울데 대하여(1996.2.26)."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1999.9.29)."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1997.6.19).”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2002.2.26, 2002.2.28).” 『김정일 선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중앙일보』.

『경향신문』.

- 박형중. “북한 권력구조와 정책방향 전망.” 『통일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통일연구원, 2012.1.18.
- 백승주. “김정은 체제와 대남정책: 전망과 대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화문제연구소 공동세미나 자료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화문제연구소, 2012.4.20.
- 안종수. “북한 시장화와 주민생활에서의 변화.” 『2010년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동북아미시사학회연구소, 2010.8.12.
- 이기동.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유일지배체제’ 균열 가능성 검토: 권력엘리트 간의 수평적 균열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2.4.23.
- 이종석. “북한의 군사국가화 경향.” 『한국정치학회 1997년 연례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정치학회, 1997.
- 최대석 외.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실태 및 주민의식 변화.” 『통일부정책용역보고서』. 2010.

다음사전. <dic.daum.net>.

Encyclopaedia Britannica. <preview.britannica.co.kr>.

연구총서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 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들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기타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약: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중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콘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희 편	16,5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2014)	전병근, 홍우택, 신종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편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연례정보보고서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Study Series

비매출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 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books@kinu.or.kr)
- 나) 전화: (02)901-2679, FAX: (02)901-2545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